ETHER LIBRARY

0021

수레바퀴 아래서

Unterm Rad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 1906

문학 ·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Unterm Rad

헤르만 헤세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Unterm Rad

지은이 헤르만 헤세(1877~1962)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906년, S. 피셔(베를린).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Unterm Rad)》(1906)를 독일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1906년 베를린의 S. 피셔 출판사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출판사의 「동시대 장편 소설 문고(Fischers Bibliothek zeitgenössischer Romane)」판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으며, 이 전자 텍스트가 뒤 판본에 따라 바로잡은 명백한 오식 일곱 곳은 바로잡은 대로 따랐습니다.

원문은 일곱 장으로 되어 있고 장마다 「첫째 장」「둘째 장」 하는 서수만 붙어 있습니다. 이 책도 제목 없이 제1장부터 제7장까지로 나누었습니다. 원문의 문단은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고, 장 안의 장면이 바뀌는 자리에 원문이 둔 구분 표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학교와 제도에 관하여

이야기의 무대는 20세기 초 독일 남서부 뷔르템베르크 왕국(슈바벤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넉넉하지 않은 집의 재주 있는 소년이 공부를 이어 갈 길은 거의 하나뿐이었습니다. 해마다 수도 슈투트가르트에서 치르는 **주 시험(Landexamen)**에 붙어 나라의 돈으로 **신학교(Seminar)**에 들어가고, 거기서 튀빙겐 신학원을 거쳐 목사나 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이 책의 신학교는 옛 시토회 수도원 마울브론에 있습니다.

신학교의 우두머리(Ephorus)는 「**원장**」 으로, 한스의 고향 라틴어 학교 우두머리(Rektor)는 「**교장**」으로 옮겨 두 사람을 갈랐습니다.

당시 김나지움과 신학교의 상급 교사는 「교수(Professor)」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원문대로 「교수」라 옮겼습니다. 신학교에 머물며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젊은 신학자(Repetent)는 「조교」로 옮겼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신학교 교사들과 시험관들은 열네 살 학생들에게 어른을 대하듯 존칭(Sie)을 씁니다. 소설은 이 일을 몇 번이나 짚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른이 아랫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하게체(「자네」)로 옮겼습니다. 원장이 한스에게 「말을 놓아도 되겠느냐」 고 묻고 잠시 반말로 타이르는 대목, 플라이크의 조카 에마가 한스에게 처음 반말을 하는 대목도 원문이 말투를 바꾼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고향 어른들은 한스에게 반말을, 한스는 아버지에게 해요체를 씁니다. 신학교 학생들끼리는 서로 반말입니다.

원문에는 슈바벤 사투리가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정 지역 사투리로 옮기지 않고, 투박하고 꾸밈없는 입말로 옮겼습니다. 구두장이 플라이크가 축복할 때 사투리를 버리고 표준말로 말하는 대목은 그 사실을 문장으로 살렸습니다.

그 밖의 것

서술자는 이따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나와 학교와 나라와 소시민의 삶을 지금 시점에서 논평합니다. 이런 대목은 원문처럼 현재형으로 두었습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한 구절은 원본에 그리스 문자로 찍혀 있습니다. 우리말 음역으로 옮기고, 처음 나오는 자리에 그리스 문자를 한 번 함께 적었습니다.

노래 세 편은 원문의 행 수대로 행을 나누었습니다.

옮긴이 주는 독자가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자리에만 짧게 달았습니다.

나이와 햇수는 「열네 살」, 「두 해」처럼 한글로, 시각의 분과 돈, 등수는 「열 시 15분」, 「2마르크」, 「2등」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와 괄호로 이었으며, 끊긴 말은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차례

제1장 8

제2장 36

제3장 60

제4장 94

제5장 122

제6장 142

제7장 164

제1장

중개상이자 대리인인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이웃 시민들과 견주어 남다른 장점도 별난 구석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처럼 떡 벌어진 건강한 체격과, 돈을 향한 진실하고 정성 어린 숭배심이 곁들여진 그럭저럭한 장사 재주를 지녔고, 그 밖에도 작은 뜰이 딸린 아담한 집 한 채, 묘지의 가족 묘, 조금은 계몽되었으나 이제는 닳아 해진 교회 신앙, 하느님과 관청에 대한 알맞은 존경, 그리고 점잖은 시민 노릇이 요구하는 철칙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지니고 있었다. 포도주를 잔깨나 기울였지만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곁가지로 깨끗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래에도 여러 번 손을 댔지만, 형식상 허용된 선을 넘은 적은 결코 없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은 빈털터리라고, 자기보다 잘사는 사람은 거드름쟁이라고 욕했다. 시민 협회 회원이었고, 금요일마다 '독수리' 술집에서 하는 볼링에 빠지지 않았으며, 빵 굽는 날마다, 그리고 돼지를 잡고 벌이는 내장 스튜 잔치와 순대 국 잔치마다 끼었다. 일할 때는 싸구려 시가를, 식사 뒤와 일요일에는 그보다 고급인 것을 피웠다.

그의 내면은 속물의 내면이었다. 그나마 지닌 정이라는 것도 진작 먼지가 앉아, 대대로 내려온 무뚝뚝한 가족애와 제 아들에 대한 자랑, 그리고 이따금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고 싶어지는 변덕 말고는 별것이 없었다. 그의 정신은 타고난, 금이 딱 그어진 약삭빠름과 셈속씨를 넘어서지 못했다. 읽는 것이라곤 신문뿐이었고, 예술을 즐기고

싶은 욕구는 해마다 한 번 시민 협회가 올리는 아마추어 연극과 그 사이사이 서커스 구경 한 번으로 넉넉히 채워졌다.

그는 아무 이웃하고나 이름과 집을 맞바꾸었더라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마저 이 도시의 다른 가장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자기보다 뛰어난 힘이나 인물이면 무엇이든 잠들 줄 모르고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남다른 것, 더 자유롭고 섬세한 것, 정신에 속한 것이면 무엇에나 시기심에서 자라나 본능처럼 품는 적의가 그것이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쯤 해 두자. 이 얕은 삶과, 그 삶이 스스로 모르는 비극을 그려 내는 일은 깊이를 갖춘 풍자가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아이다.

한스 기벤라트는 두말할 것 없이 재능 있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 틈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또 얼마나 홀로 동떨어져 돌아다니는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다.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시골 동네는 여느 때라면 그런 인물을 길러 내지 못했다. 좁디좁은 테두리 너머까지 눈길이 미치고 힘이 닿는 사람이 그곳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소년이 진지한 눈과 영리한 이마와 걸음걸이의 섬세함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하느님이나 아실 일이다. 어머니에게서였을까? 어머니는 죽은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살아 있을 때도 늘 병약하고 근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 말고는 사람들 눈에 띈 데가 없었다. 아버지는 따질 거리도 못 되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위에서 내린 신비로운 불꽃이, 팔구백 년 동안 착실한 시민은 그토록 많이 길러 냈으나 재주꾼이나 천재는 아직 하나도 낳지 못한 그 오래된 동네에 튀어 들어온 셈이었다.

섬세하고 현대식 교육을 받은 관찰자라면 병약한 어머니와 집안의 오랜 내력을 떠올리고는, 퇴화가 시작되는 징후로서 지능이

비대해졌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도시는 다행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을 품고 있지 않았고, 관리와 훈장 가운데서도 젊고 약삭빠른 몇몇만이 잡지 기사에서 "현대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주워들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는 아직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몰라도 살 수 있었고 교양인 행세도 할 수 있었다. 혼인은 탄탄했고 행복할 때도 많았으며, 삶 전체가 고칠 길 없이 구식인 몸가짐을 하고 있었다. 엉덩이를 따뜻하게 붙이고 앉은 유복한 시민들은, 그 가운데 지난 스무 해 사이에 수공업자에서 공장주가 된 이도 적지 않았는데, 관리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그들과 사귀려고 애쓰면서도 저희끼리는 관리들을 빈털터리니 펜대나 굴리는 머슴이니 하고 불렀다.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들을 되도록 대학에 보내 관리로 만드는 것보다 높은 공명심을 알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이 꿈은 거의 언제나 아름답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으로 남았다. 자식들은 대개 라틴어 학교부터 몹시 끙끙대며 몇 번이고 낙제를 거듭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한스 기벤라트의 재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교사들도, 교장도, 이웃들도, 목사도, 같은 반 아이들도, 누구나 다 그 아이가 머리가 비상하고 어딘가 특별하다고 인정했다. 그것으로 그의 장래는 정해졌고 굳어졌다. 슈바벤 땅에서는 재능 있는 소년이 걸을 길이, 부모가 부자라면 모를까, 좁다란 오솔길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주 시험(Landexamen)을 거쳐 신학교(Seminar)로, 거기서 튀빙겐 신학원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설교단 아니면 교단으로 가는 길이다. 해마다 이 땅의 아들 마흔 명 안팎이 이 조용하고 안전한 길에 들어선다. 비쩍 마르고 공부에 지친 갓 견신례를 받은 아이들은 나랏돈으로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친 뒤, 여덟 해나 아홉 해가 지나면

인생길의 두 번째 구간, 대개는 더 긴 구간에 들어서는데, 그 길에서 그들은 나라에서 입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

몇 주 뒤면 다시 "주 시험"이 치러질 참이었다. 해마다 바치는 헤카톰베[1]를 이렇게 부른다. 이 제사에서 "국가"는 나라의 정신이 피워 낸 꽃을 골라 뽑고, 제사가 이어지는 동안 작은 도시와 마을마다 수많은 집안의 한숨과 기도와 소원이 시험이 치러지는 수도의 품을 향해 쏠린다.

한스 기벤라트는 이 작은 도시가 그 괴로운 경쟁에 내보내려는 단 하나의 응시생이었다. 영광은 컸지만 그는 그것을 결코 거저 얻지 않았다. 날마다 네 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교장에게 그리스어 특별 수업을 받았고, 여섯 시에는 목사가 친절하게도 라틴어와 종교를 한 시간 복습시켜 주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은 저녁을 먹은 뒤에도 수학 교사에게 한 시간씩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어에서는 불규칙 동사 다음으로, 불변화사로 나타내는 문장 연결의 갖가지 쓰임새에 무게를 두었고, 라틴어에서는 문체를 명료하고 간결하게 다듬고 특히 운율의 수많은 미묘한 규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했으며, 수학에서는 복잡한 비례 계산에 가장 힘을 쏟았다. 수학 교사가 자주 힘주어 말하기를, 비례 계산은 나중의 공부와 삶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몹시 중요했고, 몇몇 주요 과목보다도 더 중요했다. 비례 계산은 논리적 능력을 길러 주고 명료하고 냉철하며 성공적인 모든 사고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이 짐을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성을 단련하느라 마음을 잊어 메마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스는 아침마다 수업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견신례 수업에 나가도 되었다. 거기서는 브렌츠 교리 문답서에서, 그리고 문답을 외우고 암송하는 생기 돋우는

공부에서 상쾌한 종교적 삶의 숨결이 젊은 영혼들 속으로 스며들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기운을 북돋우는 시간을 스스로 망쳐 놓았고 그 축복을 제 손으로 놓쳐 버렸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단어나 연습 문제를 적은 쪽지를 교리 문답서 속에 몰래 끼워 두고, 수업 시간 거의 내내 이 세속의 학문에 매달렸던 것이다. 그래도 양심이 아주 무디지는 않아서, 그러는 동안 내내 괴로운 불안과 은근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교구장이 가까이 오거나 이름이라도 부르면 그때마다 움찔 놀랐고, 대답을 해야 할 때면 이마에 땀이 맺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옳았고 발음까지 정확했으며, 교구장은 바로 그 점을 몹시 중요하게 여겼다.

낮 동안 수업마다 쌓여 가는 숙제들, 쓰고 외우고 복습하고 예습할 것들은 밤늦게 집에서 아늑한 등잔불 아래 해치우면 되었다. 가정의 평화가 축복처럼 감싸 주는 이 고요한 공부를 두고 담임은 특별히 깊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공부는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대개 열 시쯤에 끝났지만 다른 날에는 열한 시, 열두 시, 때로는 그보다 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는 등잔 기름이 한없이 드는 것을 두고 조금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아들의 공부를 흐뭇한 자랑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여가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삶의 칠분의 일을 차지하는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읽지 않는 작가 몇을 읽고 문법을 넉넉히 복습하라는 권고가 간곡히 내려져 있었다.

"물론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하는 건 꼭 필요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다. 날씨가 좋으면 책을 한 권 들고 바깥에 나가도 되겠지. 맑은 바깥 공기 속에서는 공부가 얼마나 가볍고 즐겁게 되는지 알게 될 거다. 아무튼 고개를 꼿꼿이 들어라!"

그래서 한스는 힘닿는 데까지 고개를 꼿꼿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산책 시간도 공부에 썼으며, 밤을 새운 얼굴과 퍼렇게 테가 진 피곤한 눈으로

말없이, 겁먹은 채 돌아다녔다.

"기벤라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붙기는 하겠지요?" 어느 날 담임이 교장에게 말했다.

"붙고말고, 붙고말고." 교장이 신이 나서 외쳤다. "아주 영리한 축에 드는 아이일세. 저 아이 좀 보게, 그야말로 지적인 얼굴이 되지 않았나."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 지적인 기색은 누가 보아도 뚜렷해졌다. 곱고 여린 소년의 얼굴에서는 움푹 들어간 불안한 눈이 흐릿한 불길로 타올랐고, 아름다운 이마에는 정신을 드러내는 가는 주름이 파르르 떨렸으며, 그렇잖아도 가늘고 야윈 팔과 손은 보티첼리를 떠올리게 하는 지친 우아함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일 아침 일찍 그는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신학교의 좁은 수도원 문을 들어설 자격이 있는지를 주 시험에서 보여 주어야 했다. 방금 그는 교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오늘 밤에는 더 공부하면 안 된다. 약속해라." 무서운 지배자가 끝으로 여느 때 없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슈투트가르트에는 아주 생생한 몸으로 나서야 한다. 한 시간쯤 더 산책하고, 그다음엔 일찌감치 자거라. 젊은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 법이다."

한스는 두려워하던 충고 더미 대신 그토록 큰 호의를 받자 놀랐고, 한숨을 돌리며 학교 건물을 나섰다. 교회 언덕의 커다란 보리수들이 늦은 오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흐릿하게 빛났고, 장터 광장에서는 커다란 분수 두 개가 찰랑거리며 반짝였으며, 들쭉날쭉 이어진 지붕들 너머로 가까운 검푸른 전나무 산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만 같았고, 모든 것이 유난히 아름답고 마음을 끌었다. 두통이 나기는 했지만, 오늘은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천천히 장터 광장을 가로질러 옛 시청을 지나고, 장터 골목을 지나 칼 대장간 옆을 거쳐 옛 다리까지 걸었다. 거기서 한동안 이리저리 거닐다가 마침내 넓은 난간에 걸터앉았다. 몇 주, 몇 달 동안 날마다 네 번씩 이곳을 지나다녔으면서도 그는 다리 위의 작은 고딕식 예배당에도, 강에도, 수문과 둑과 방앗간에도, 하다못해 멱 감는 풀밭과 버드나무가 늘어선 강기슭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기슭에는 무두질 터가 줄지어 있었고, 강물은 호수처럼 깊고 푸르고 고요하게 고여 있었으며, 휘어진 뾰족한 버들가지가 물속까지 늘어져 있었다.

이제 다시 떠올랐다. 여기서 반나절을, 온종일을 얼마나 많이 보냈던가. 여기서 얼마나 자주 헤엄치고 자맥질하고 노를 젓고 낚시를 했던가. 아, 낚시! 그것도 이제는 거의 잊어버려 할 줄도 모르게 되었다. 지난해 시험공부 때문에 낚시를 금지당했을 때 그는 그토록 서럽게 울었다. 낚시! 그 긴 학창 시절을 통틀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그늘에 서 있던 일, 가까이서 쏴 하고 울리던 방앗간 둑의 물소리, 깊고 잔잔한 물! 그리고 강물 위에 어른거리던 빛, 긴 낚싯대가 부드럽게 흔들리던 모습, 입질이 오고 줄을 끌어당길 때의 흥분, 서늘하고 통통하며 꼬리를 파닥이는 물고기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야릇한 기쁨!

그는 실한 잉어를 여러 마리 낚아 올렸고, 황어와 누치, 맛 좋은 텐치와 작고 드물며 빛깔 고운 연준모치도 낚았다. 그는 오래도록 물을 바라보았다. 초록빛 강굽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자니 생각에 잠기며 슬퍼졌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거칠던 소년 시절의 즐거움이 아득히 뒤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크고 작은 공을 빚어 물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다가 물고기들에게 낚아채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맨 먼저 아주 작은 금빛 피라미와 피라미가 몰려와 작은 조각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큰 조각은

배고픈 주둥이로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밀고 다녔다. 그다음에는 더 큰 황어 한 마리가 천천히 조심스레 다가왔다. 검고 넓은 등이 바닥에서 희미하게 떠올라 보였는데, 황어는 빵 공 둘레를 신중하게 한 바퀴 돌더니 갑자기 둥근 입을 벌려 그것을 삼켜 버렸다. 느릿느릿 흐르는 물에서 축축하고 따뜻한 냄새가 올라왔고, 밝은 구름 몇 조각이 초록빛 수면에 흐릿하게 비쳤으며, 방앗간에서는 둥근톱이 끼익거렸고, 두 둑은 서늘하고 낮은 소리로 쏴아 하고 서로 섞이며 울렸다. 소년은 얼마 전에 지나간 견신례 주일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엄숙하고 감동적인 예식 한가운데서 속으로 그리스어 동사를 외우고 있는 자신을 붙잡았다. 요즘 들어 다른 때에도 그런 일이 잦았다. 생각이 뒤죽박죽 섞였고, 학교에서도 눈앞에 놓인 과제가 아니라 늘 앞서 한 과제나 나중에 할 과제를 생각했다. 이래서야 시험이 퍽이나 잘되겠다!

그는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갈지 망설였다. 그때 억센 손이 어깨를 붙잡고 다정한 사내 목소리가 말을 걸어와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잘 있었니, 한스. 나랑 좀 같이 걷겠니?"

구두장이 플라이크였다. 예전에는 이따금 그의 집에서 저녁 한때를 보내곤 했지만, 그런 지도 벌써 오래였다. 한스는 따라 걸으며 이 신앙심 깊은 경건주의자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플라이크는 시험 이야기를 하며 소년에게 행운을 빌어 주고 용기를 북돋웠지만, 그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시험이란 결국 겉치레이고 우연한 일일 뿐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데 있었다.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하느님은 영혼마다 특별한 뜻을 품고 저마다 고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다.

한스는 이 사람 앞에서 양심이 아주 떳떳하지는 않았다. 그는 플라이크와 그의 굳건하고 위엄 있는 사람됨을 우러러보았지만, 경건회 형제들을 두고 하는 우스개를 수없이 들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속으로 알면서도 함께 웃을 때가 많았다. 게다가 제 비겁함도 부끄러워해야 했다. 얼마 전부터 구두장이의 날카로운 질문이 무서워서 그를 거의 겁먹은 듯 피해 다녔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 자신도 조금 거만해진 뒤로, 구두장이 플라이크는 그를 이따금 묘한 눈길로 바라보며 기를 꺾어 놓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의의 길잡이에게서 소년의 영혼은 차츰 빠져나가 버렸다. 한스는 소년다운 반항심이 한창 피어나는 나이였고, 제 자존심을 언짢게 건드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예민하게 알아채는 더듬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제 그는 말하는 사람 곁에서 걸으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근심스럽고 자애로운 눈으로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지 알지 못했다.

왕관 골목에서 그들은 목사를 만났다. 구두장이는 절도 있게, 차갑게 인사하고는 갑자기 바빠졌다. 목사는 신식 사람이었고, 부활조차 믿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목사는 소년을 데리고 함께 걸었다.

"어떠냐?" 목사가 물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홀가분하겠구나."

"네, 뭐 괜찮아요."

"그래, 잘해 내라! 우리가 다 너한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 알지. 라틴어에서는 특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마."

"하지만 떨어지면요." 한스가 수줍게 말했다.

"떨어진다고?!" 목사는 깜짝 놀라 우뚝 멈춰 섰다. "떨어지는 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있을 수 없어. 무슨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럴 리 없다, 한스, 그럴 리 없어. 그건 마음 푹 놓아라. 자, 아버지께 안부 전하고, 용기를 내라!"

한스는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구두장이 쪽을 돌아보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마음만 바른 자리에 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라틴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말이야 쉽지. 게다가 목사까지 있다. 떨어지면 목사 앞에는 다시는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풀이 죽어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가 비탈진 작은 뜰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쓰지 않아 썩어 가는 정원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그는 예전에 그 안에 판잣집 우리를 짜 놓고 세 해 동안 토끼를 길렀다. 지난가을에 시험 때문에 토끼를 빼앗겼다. 그에게는 이제 기분을 풀 시간이 없었다.

뜰에도 와 보지 않은 지 오래였다. 빈 우리는 곧 무너질 것 같았고, 담 모퉁이의 종유석 무더기는 허물어졌으며, 작은 나무 물레바퀴는 수도관 옆에 휘고 부서진 채 뒹굴고 있었다. 그는 이것들을 다 짓고 깎으며 즐거워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것도 벌써 두 해 전이었다.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그는 작은 바퀴를 주워 이리저리 비틀다가 아예 부숴 버리고는 울타리 너머로 던졌다. 이런 건 치워 버려야지, 다 오래전에 끝나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다 학교 친구 아우구스트가 생각났다. 아우구스트는 그가 물레바퀴를 만들고 토끼장을 고칠 때 거들어 주었다. 둘은 오후 내내 여기서 놀았다. 새총을 쏘고,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천막을 치고, 새참으로 날 당근을 먹었다. 그러다 공부벌레 노릇이 시작되었고, 아우구스트는 한 해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공 견습이 되었다. 그 뒤로 아우구스트는 두 번밖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하긴 그 아이도 이제는 시간이 없겠지.

구름 그림자가 골짜기 위를 서둘러 지나갔고, 해는 벌써 산등성이 가까이 내려와 있었다. 한순간 소년은 땅바닥에 몸을 내던지고 울부짖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는 대신 그는 헛간에서 손도끼를 꺼내 와 가냘픈 두 팔로 허공에 휘두르더니 토끼장을 산산조각 내 버렸다.

널빤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못이 끼익 소리를 내며 휘었으며, 지난여름부터 남아 있던 썩은 토끼 먹이가 조금 드러났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마구 도끼질을 했다. 그렇게 하면 토끼와 아우구스트와 그 모든 옛 어린 장난을 그리는 마음을 때려죽일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어이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땔감이요."

그는 더 대답하지 않고 도끼를 내던진 뒤 마당을 지나 골목으로 뛰쳐나가, 강기슭을 따라 상류 쪽으로 달렸다. 바깥 양조장 근처에 뗏목 두 개가 매여 있었다. 예전에 그는 따뜻한 여름날 오후면 이런 뗏목을 타고 몇 시간이고 강을 따라 내려가곤 했다. 통나무 사이에서 철썩이는 물 위를 떠가다 보면 마음이 들뜨면서도 졸음이 왔다. 그는 물에 뜬 헐거운 통나무 위로 건너뛰어 버들가지 더미 위에 누웠다. 그리고 상상해 보려 했다. 뗏목이 길을 떠나 빠르게 혹은 머뭇머뭇 풀밭과 밭과 마을과 서늘한 숲 가장자리를 지나고 다리 밑과 열어 둔 수문 아래를 빠져나가며, 자기는 그 위에 누워 있고, 모든 것이 다시 예전과 같다고. 카프 산에서 토끼 먹이를 뜯어 오고, 강기슭 무두장이네 뜰에서 낚시를 하고, 두통도 걱정도 아직 없던 그 시절처럼.

그는 피곤하고 뿌루퉁한 채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코앞에 닥친 슈투트가르트 시험 여행 때문에 지독히 들떠서, 책은 다 쌌는지, 검은 양복은 꺼내 두었는지, 가는 길에 문법책을 좀 더 읽지 않겠는지, 몸은 괜찮은지 열두 번도 더 물었다. 한스는 짧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조금 먹다가 이내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잘 자라, 한스. 푹 자거라! 그럼 내일 아침 여섯 시에 깨우마. 그 사전은 안 잊었겠지?" "네, '그' 사전 안 잊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제 작은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 깨어 앉아 있었다. 시험 소동이 지금까지 그에게 가져다준 축복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그가 주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만의 작은 방이었다. 여기서 그는 피로와 졸음과 두통과 싸우며 기나긴 저녁 시간을 카이사르와 크세노폰과 문법책과 사전과 수학 문제를 붙들고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공명심에 차서, 때로는 절망의 문턱까지 가며 골똘히 보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잃어버린 소년 시절의 온갖 즐거움보다 그에게 더 값진 몇 시간도 보냈다. 자부심과 도취와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꿈결처럼 기이한 그 몇 시간 동안 그는 학교도 시험도 모든 것도 뛰어넘어 더 높은 존재들의 무리 속으로 꿈꾸듯 그리워하며 건너갔다. 그럴 때면 자기가 볼 통통하고 순한 친구들과는 참으로 다른, 더 나은 존재이고, 언젠가는 아득한 높이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아도 되리라는 뻔뻔하고도 황홀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지금도 그는 이 작은 방에 더 자유롭고 서늘한 공기가 있기라도 한 듯 한숨을 돌리고, 침대에 걸터앉아 꿈과 소원과 예감 속에서 몇 시간을 아련하게 보냈다. 밝은 눈꺼풀이 공부에 지친 커다란 눈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한 번 더 열리고, 깜박이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창백한 소년의 머리가 야윈 어깨 위로 기울었고, 가는 두 팔이 지친 듯 늘어졌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잠들었고, 잠의 부드럽고 어머니 같은 손이 그의 불안한 어린 가슴속 물결을 잔잔히 다독이고 고운 이마의 작은 주름을 지워 주었다.

◆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른 시각인데도 교장이 몸소 역까지 나왔다. 기벤라트 씨는 검은 프록코트를 입고서 흥분과 기쁨과 자랑을 못 이겨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다. 그는 교장과 한스 둘레를 초조하게

종종걸음으로 맴돌았고, 역장과 역무원이라는 역무원에게서 빠짐없이 잘 다녀오라는 인사와 아들의 시험에 행운을 비는 말을 받았으며, 작고 딱딱한 가방을 왼손에 들었다가 오른손에 들었다가 했다. 우산은 겨드랑이에 끼었다가 다시 무릎 사이에 끼웠다가 하다가 몇 번이나 떨어뜨렸고, 그때마다 우산을 주우려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누가 보았다면 왕복표를 끊어 슈투트가르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로 떠나는 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은 아주 침착해 보였지만, 남모르는 두려움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

기차가 들어와 멈추자 사람들이 올라탔고, 교장은 손을 흔들었으며, 아버지는 시가에 불을 붙였고, 아래쪽 골짜기로 도시와 강이 사라져 갔다. 여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역이었다.

슈투트가르트에 오자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 쾌활하고 붙임성 있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왕도에 올라온 작은 도시 사람의 기쁨이 그를 들뜨게 했다. 그러나 한스는 더 말이 없어지고 더 겁을 먹었다. 도시를 보자 그는 가슴이 꽉 막혀 왔다. 낯선 얼굴들, 거드름 피우듯 높고 요란하게 꾸민 집들, 길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길들, 철도 마차와 거리의 소음이 그를 주눅 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 그들은 고모 집에 묵었는데, 그곳에서는 낯선 방들, 고모의 친절과 수다, 하릴없이 오래 앉아 있는 일, 그리고 기운 내라고 끝없이 다그치는 아버지의 말이 소년을 아예 바닥까지 짓눌렀다. 그는 낯설고 길 잃은 사람처럼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익숙지 않은 주변을, 고모와 고모의 도시풍 차림새를, 큼직한 무늬의 벽지와 탁상시계와 벽에 걸린 그림을, 혹은 창밖의 시끄러운 거리를 바라보노라면,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만 같았고, 집을 떠난 지 벌써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 애써 배운 모든 것을 당분간 깡그리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오후에는 그리스어 불변화사를 한 번 더 훑어볼 생각이었지만, 고모가 산책을 하자고 했다. 한순간 한스의 마음속 눈앞에 초록 풀밭과 숲의 웅성거림 같은 것이 떠올라서 그는 기꺼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 큰 도시에서는 산책도 고향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는 곧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시내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나가 있었으므로 그는 고모와 단둘이 나섰다. 계단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2층에서 뚱뚱하고 거만해 보이는 부인을 만났는데, 고모는 그 부인에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고, 부인은 곧바로 청산유수로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멈춰 선 것이 15분도 넘었다. 한스는 계단 난간에 몸을 붙인 채 그 옆에 서 있었고, 부인의 강아지가 그의 냄새를 맡으며 으르렁거렸다. 낯선 뚱보 부인이 코안경 너머로 그를 위아래로 몇 번이나 훑어보았으므로, 그는 자기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고모는 가게에 들어갔고, 다시 나올 때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동안 한스는 쭈뼛거리며 길가에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리고 골목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가게에서 나온 고모는 그에게 초콜릿 한 판을 내밀었고,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손히 고맙다고 했다. 다음 모퉁이에서 철도 마차를 탔고, 쉴 새 없이 땡땡거리는 만원 마차에 실려 거리를 지나고 또 거리를 지나 마침내 큰 가로수 길과 공원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분수가 솟고, 울타리를 두른 꽃밭에 꽃이 피고, 작은 인공 연못에서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산책객 무리에 섞여 이리저리 오가고 빙빙 돌며 거닐었고, 수많은 얼굴과 멋진 옷과 그렇지 않은 옷, 자전거와 환자용 의자차와 유모차를 보았으며, 웅성웅성 뒤엉킨 목소리를 들으며 따뜻하고 먼지 낀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 곁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고모는 거의

내내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 이제 한숨을 쉬더니 소년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웃고는 이제 그 초콜릿을 먹으라고 했다. 그는 먹기 싫었다.

"세상에, 설마 부끄러워서 그러니? 어서 먹어, 먹어!"

그래서 그는 초콜릿을 꺼내 한동안 은박지를 잡아 뜯다가 마침내 아주 조그만 조각을 깨물었다. 초콜릿이라면 그는 죽어도 싫었지만, 고모에게 그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가 아직 그 한 조각을 빨며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 사이, 고모는 사람들 틈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여기 앉아 있어. 금방 올게."

한스는 한숨을 돌리며 이 틈을 타 초콜릿을 잔디밭 저 멀리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박자에 맞춰 다리를 흔들며 수많은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다. 마침내 그는 또 불규칙 동사를 외워 보기 시작했지만, 죽을 만큼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몽땅 잊어버렸다! 그런데 내일이 주 시험이었다.

돌아온 고모는 그사이 올해 주 시험 응시생이 백열여덟 명이라는 것을 알아 왔다. 그러나 붙을 수 있는 것은 서른여섯 명뿐이었다. 그러자 소년은 간이 콩알만 해져서 집에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와서는 두통이 났고, 또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으며, 어찌나 자포자기한 꼴이었던지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었고 고모마저 그를 못 견뎌 했다. 밤에 그는 무겁고 깊게 잠들었고, 끔찍한 꿈 장면들에 쫓겼다. 꿈에서 그는 다른 응시생 백열일곱 명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는데, 시험관은 고향의 목사를 닮았다가 고모를 닮았다가 하더니 그의 앞에 초콜릿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먹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 작은 문으로 사라졌다. 모두 제 몫의 산을 다 먹었지만, 그의 산은 눈앞에서

점점 더 커져 책상과 걸상 위로 넘쳐흘렀고, 그를 숨 막히게 하려는 것만 같았다.

이튿날 아침, 한스가 커피를 마시며 시험에 늦지 않으려고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동안, 고향의 작은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를 생각했다. 맨 먼저 구두장이 플라이크가 그랬다. 그는 아침 수프를 앞에 두고 기도를 올렸는데, 가족과 직인들과 견습공 둘이 식탁 둘레에 빙 둘러서 있었고, 구두장이는 여느 아침 기도에 오늘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주여,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 한스 기벤라트 위에도 주의 손을 얹으시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힘을 주시며, 언젠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바르고 굳세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목사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기벤라트네 꼬마가 시험을 보는군. 저 아이는 앞으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 눈에도 띄게 될 테고, 그러면 내가 라틴어 공부를 거들어 준 것도 손해 볼 일은 아니지."

담임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주 시험이 시작된다. 기벤라트에게 행운을 빌어 주자. 그 녀석한테야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너희 같은 게으름뱅이라면 열 명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녀석이니까." 그러자 학생들도 거의 모두가 자리에 없는 그 아이를 생각했다. 특히 그가 붙을지 떨어질지를 두고 저희끼리 내기를 건 아이가 많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중보 기도와 다정한 마음은 먼 거리도 손쉽게 넘어 멀리까지 미치는 법이므로, 한스 역시 고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아버지를 따라 시험장에 들어갔고, 겁먹고 놀란 채 사환이 이르는 대로 따랐으며, 창백한 소년들로 가득 찬 커다란 방을 고문실에 끌려온 죄인처럼 둘러보았다. 그러나 교수가 들어와 조용히 하라고 이르고 라틴어 작문

문제를 불러 주자, 한스는 문제가 우스울 만큼 쉬운 것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재빨리, 거의 즐겁게 초안을 쓴 다음 차분하고 깔끔하게 정서했고, 가장 먼저 답안을 낸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 뒤에 고모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뜨거운 시내 거리를 두 시간이나 헤맸지만, 되찾은 마음의 평정은 그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모와 아버지에게서 한동안 더 벗어나 있는 것이 기뻤고, 낯설고 시끄러운 왕도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대담한 모험가라도 된 것 같았다. 마침내 간신히 길을 물어물어 집을 찾아 들어가자 그는 질문 공세를 받았다.

"어떻게 됐니? 어땠어? 문제는 잘 풀었냐?"

"쉬웠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정도는 5학년 때도 번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허기진 배로 듬뿍 먹었다.

오후는 자유였다. 아버지는 그를 끌고 친척과 친구 몇 집을 돌아다녔다. 그 가운데 한 집에서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수줍은 소년을 만났는데, 그 아이도 주 시험을 치르려고 괴핑겐에서 올라와 있었다. 두 소년만 남겨지자 둘은 쭈뼛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라틴어 시험 어땠어? 쉬웠지?" 한스가 물었다.

"엄청 쉬웠어.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야. 쉬운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거든. 방심하니까. 숨겨 놓은 덫도 분명히 들어 있었을걸."

"그럴까?"

"당연하지. 그 양반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한스는 조금 놀라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머뭇머뭇 물었다. "그 문제 아직 갖고 있어?"

괴핑겐 소년이 공책을 가져왔고, 두 아이는 함께 답안 전체를 한 낱말 한 낱말 훑어 나갔다. 괴핑겐 소년은 라틴어에 빠삭한 아이 같았다.

적어도 한스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문법 용어를 두 번이나 썼다.

"그럼 내일은 뭐가 나올까?"

"그리스어하고 작문."

그러자 괴핑겐 소년은 한스네 학교에서 응시생이 몇 명이나 왔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없어." 한스가 말했다. "나 혼자야."

"아이고, 우리 괴핑겐에서는 열두 명이나 왔어! 그중에 아주 똑똑한 애 셋이 끼어 있는데, 다들 걔들이 상위권에 들 거라고 기대해. 작년 수석도 괴핑겐 애였어. 그런데 너,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갈 거야?"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 아니, 안 갈 것 같아."

"그래? 나는 어떻게든 공부할 거야. 이번에 떨어져도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가 울름에 보내 주실 거야."

그 말에 한스는 엄청나게 기가 눌렸다. 열두 명의 괴핑겐 아이들과 그중의 아주 똑똑한 세 아이도 그를 겁나게 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고향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집에 와서 그는 자리에 앉아 미(mi) 동사를 한 번 더 훑었다. 라틴어는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 그 과목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사정이 묘했다. 그는 그리스어를 좋아했고 거의 열광하다시피 했지만, 그것은 읽을 때만 그랬다. 특히 크세노폰은 아름답고 생동하며 싱싱하게 쓰여 있어서, 모든 것이 밝고 곱고 힘차게 울렸고, 거침없고 자유로운 기상이 깃들어 있었으며, 이해하기도 쉬웠다. 그러나 문법으로 넘어가거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옮겨야 할 때면, 그는 서로 어긋나는 규칙과 형태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았고, 아직 그리스어 알파벳도 읽지 못하던 첫 시간 때와 거의 똑같은 불안한 두려움을 이 낯선 언어 앞에서 느꼈다.

이튿날에는 과연 그리스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독일어 작문이 이어졌다. 그리스어 문제는 꽤 길었고 조금도 쉽지 않았으며, 작문 주제는 까다로워서 잘못 이해하기 쉬웠다. 열 시부터는 시험장이 후텁지근하고 더워졌다. 한스는 펜이 좋지 않아서 그리스어 답안을 정서할 때까지 종이를 두 장이나 버렸다. 작문 시간에는 옆자리의 뻔뻔한 아이 때문에 몹시 곤란해졌다. 그 아이가 질문을 적은 종이쪽지를 슬쩍 밀어 주며 옆구리를 쿡쿡 찔러 대답하라고 졸랐던 것이다. 옆자리 아이와 주고받는 일은 더없이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걸리면 가차 없이 시험에서 쫓겨났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쪽지에 "날 내버려 둬"라고 적고는 그 아이에게 등을 돌렸다. 게다가 너무 더웠다. 쉬지 않고 한결같은 걸음으로 시험장을 오가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던 감독 교수조차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얼굴을 훔쳤다. 한스는 두꺼운 견신례 양복을 입은 채 땀을 흘렸고, 두통이 났으며, 마침내 답안지가 틀린 데투성이이고 이제 시험은 끝장났다는 느낌에 몹시 비참한 기분으로 답안지를 냈다.

식탁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슨 질문을 받든 어깨만 으쓱하며 죄인 같은 얼굴을 했다. 고모는 달랬지만, 아버지는 흥분해서 언짢아했다. 식사가 끝나자 아버지는 아들을 옆방으로 데려가 다시 한번 캐물으려 했다.

"잘 못 봤어요." 한스가 말했다.

"왜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렸냐? 마음만 먹으면 정신 차릴 수 있잖냐, 제기랄."

한스는 잠자코 있다가, 아버지가 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를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무엇보다 나쁘게도 두 시에는 구술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는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이글이글 달아오른 시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속이

몹시 메스꺼워졌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현기증 때문에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10분 동안 커다란 초록색 탁자 앞에서 신사 셋을 마주하고 앉아 라틴어 문장 몇 개를 옮기고 묻는 말에 대답했다. 그다음 10분 동안은 다른 신사 셋 앞에 앉아 그리스어를 옮기고 또 이것저것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는 부정과거 하나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도 되네. 저기, 오른쪽 문."

그는 나갔지만, 문간에 이르자 그 부정과거가 그제야 떠올랐다. 그는 멈춰 섰다.

"나가게." 누군가 그에게 소리쳤다. "나가게! 아니면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부정과거가 이제 생각나서요."

그는 방 안에 대고 그것을 외쳤고, 신사 하나가 웃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채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질문들과 자기 대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눈앞에는 그저 커다란 초록색 탁자와, 프록코트를 입은 늙고 엄숙한 신사 셋과, 펼쳐진 책과, 그 위에 떨며 올려놓은 자기 손만 자꾸 떠올랐다. 맙소사, 대체 무슨 대답들을 했을까!

거리를 걸어가노라니 벌써 몇 주째 여기 있는 것만 같았고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 집의 뜰과 전나무 빛으로 푸른 산들과 강가의 낚시터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오래전에 한 번 보았던 것처럼 떠올랐다. 아,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머물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험은 어차피 망쳤으니까.

그는 우유 빵 하나를 사 들고, 아버지에게 해명하지 않으려고 그 긴 오후 내내 거리를 쏘다녔다. 마침내 집에 돌아가 보니 다들 그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가 녹초가 되어 비참한 꼴이었으므로 달걀 수프를

먹이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 내일은 산수와 종교가 남아 있었고, 그것만 끝나면 다시 집에 갈 수 있었다.

이튿날 오전 시험은 꽤 잘되었다. 어제 주요 과목에서 그토록 운이 나빴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잘 풀리니, 한스에게는 그것이 쓰라린 조롱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제 그저 떠나는 거다, 집으로!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가 고모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 더 머물고 싶어 했다. 칸슈타트에 가서 요양 정원에서 커피를 마실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스가 하도 간절히 조르자, 아버지는 그가 오늘 혼자 먼저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는 기차까지 배웅을 받고 차표를 받았으며, 고모에게서 입맞춤과 먹을 것을 받고서, 지친 채 아무 생각 없이 초록빛 구릉지를 지나 집으로 향했다. 검푸른 전나무 산이 나타나서야 기쁨과 해방감이 소년을 덮쳤다. 그는 늙은 하녀와 제 작은 방과 교장과 익숙한 낮은 교실과,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설렜다.

다행히 역에는 호기심 많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는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서둘러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는 좋았어요?" 늙은 안나가 물었다.

"좋았냐고? 시험이 무슨 좋은 거라고 생각해? 다시 와서 기쁠 뿐이야. 아버지는 내일에야 오셔."

그는 갓 짠 우유를 한 사발 마시고, 창밖에 걸어 둔 수영복을 걷어 들고는 뛰어나갔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다 멱을 감는 풀밭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그는 도시 밖으로 멀리, 물이 높은 덤불 사이로 깊고 느릿하게 흘러가는 '저울터'까지 나갔다. 거기서 그는 옷을 벗고, 손을, 이어서 발을 더듬듯 차가운 물에 담가 보고는 조금 몸을 떨더니, 재빠르게 몸을

날려 강물에 뛰어들었다. 약한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헤엄치는 동안 그는 지난 며칠의 땀과 두려움이 몸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꼈고, 강물이 그의 가냘픈 몸을 서늘하게 끌어안는 사이 그의 영혼은 새로운 기쁨으로 아름다운 고향을 다시 차지했다. 그는 더 빨리 헤엄치다가 쉬고, 다시 헤엄치며, 기분 좋은 서늘함과 피로에 감싸였다. 반듯이 누워 다시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그는 금빛 원을 그리며 떼 지어 나는 저녁 날벌레들의 가느다란 윙윙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작고 날랜 제비들이 늦은 하늘을 가르는 것과, 벌써 넘어간 해가 산 뒤에서 그 하늘을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다시 옷을 입고 꿈꾸듯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갈 때, 골짜기에는 벌써 그늘이 가득했다.

그는 상인 자크만의 뜰 앞을 지나갔다.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 다른 아이 몇과 덜 익은 자두를 훔친 적이 있는 뜰이었다. 키르히너네 목재 하치장도 지나갔다. 하얀 전나무 각목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그는 예전에 늘 그 밑에서 낚시 미끼로 쓸 지렁이를 찾곤 했다. 게슬러 감독관의 작은 집 앞도 지나갔다. 두 해 전 얼음판에서 그는 그 집 딸 에마 게슬러에게 그토록 구애해 보고 싶었다. 에마 게슬러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앙증맞고 맵시 있는 여학생이었고, 그와 동갑이었다. 그는 그때 한동안 그 아이와 한 번 말을 해 보거나 손을 잡아 보는 것만큼 간절히 바란 것이 없었다. 끝내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가 너무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에마 게슬러는 기숙 학교에 보내졌고, 그는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들이 지금 아득히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다시 떠올랐고, 그 이야기들은 그 뒤에 겪은 어떤 일보다도 짙은 빛깔과, 이상하리만큼 무언가를 예감하게 하는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야말로 좋은 시절이었다. 저녁이면 나숄트네 리제의 대문간에 앉아 감자를 깎으며 이야기를 들었고, 일요일이면 꼭두새벽에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찜찜한 양심을 안은 채 아래쪽 둑으로 가재를 잡으러, 금빛 피라미를 잡으러 갔다가, 흠뻑 젖은 나들이옷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던 시절! 그때는 수수께끼 같고 기이한 것들과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다! 목이 굽은 꼬마 구두장이, 아내를 독살한 게 틀림없다고 다들 알고 있던 슈트로마이어,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배낭을 멘 채 군 전체를 떠돌아다니던 별난 '베크 나리'가 있었다. 베크 나리는 예전에 부자여서 말 네 필에 마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리라고 불렀다. 한스는 이제 그들에 대해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이 어둑하고 작은 골목의 세계를 잃어버렸으며, 그 대신 살아 있고 겪어 볼 만한 무엇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도 학교를 쉬어도 되었으므로 그는 아침에 늦잠을 자며 자유를 누렸다. 점심때 그는 아버지를 마중 나갔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슈투트가르트의 온갖 즐거움으로 흐뭇하게 들떠 있었다.

"붙으면 갖고 싶은 걸 하나 말해도 된다." 아버지가 기분 좋게 말했다. "잘 생각해 봐라!"

"아뇨, 아니에요." 소년이 한숨을 쉬었다. "분명히 떨어졌어요."

"쓸데없는 소리, 떨어지긴 뭘 떨어져! 내 맘 변하기 전에 얼른 소원이나 말해라."

"방학 때 다시 낚시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좋다, 해라. 시험에 붙으면."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뇌우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고, 한스는 몇 시간이고 방에 앉아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치른 시험을 다시 꼼꼼히 되짚어 보았고, 그때마다 지독하게 운이 나빴으며 훨씬 더 잘 쓸 수 있었으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붙기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 멍청한 두통! 차츰 커져

가는 불안이 그를 짓눌렀고, 마침내 그는 무거운 근심에 떠밀려 아버지에게 건너갔다.

"저, 아버지!"

"뭐냐?"

"여쭤볼 게 있어요. 소원 말인데요. 낚시는 그만둘래요."

"그래? 이번엔 또 왜?"

"왜냐하면 제가… 아, 여쭤보고 싶었던 건, 혹시 제가…"

"얼른 말해 봐라, 무슨 연극이냐! 그래, 뭔데?"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가도 되는지요."

기벤라트 씨는 말문이 막혔다.

"뭐? 김나지움?" 그러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김나지움에? 누가 그런 걸 네 머리에 집어넣었냐?"

"아무도요. 그냥 해 본 말이에요."

얼굴에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뚜렷이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가라, 가." 아버지가 언짢은 듯 웃으며 말했다. "다 허황한 소리다. 김나지움이라니! 내가 무슨 상업 고문관이라도 되는 줄 아냐?"

아버지가 어찌나 세차게 손을 내젓는지, 한스는 단념하고 절망에 빠져 밖으로 나갔다.

"저런 녀석 봤나!" 아버지가 등 뒤에서 투덜거렸다. "원, 세상에! 이제는 김나지움까지 가겠다고! 그래, 어디 잘해 봐라, 꿈도 야무지지."

한스는 반 시간 동안 창턱에 앉아, 막 걸레질한 마룻바닥을 멍하니 쳐다보며, 신학교도 김나지움도 대학 공부도 끝내 다 틀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치즈 가게나 사무실에 견습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그는 평생 그가 경멸하고 기어코 넘어서고

싶었던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곱고 영리한 학생다운 얼굴이 분노와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을 뱉고는, 거기 놓여 있던 라틴어 독본을 집어 온 힘을 다해 가까운 벽에 내던졌다. 그러고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월요일 아침 그는 다시 학교에 갔다.

"어떠냐?" 교장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어제쯤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시험은 어땠느냐?"

한스는 고개를 숙였다.

"응, 왜 그러느냐? 잘 못 본 게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참고 기다려라!" 늙은 신사가 달랬다. "아마 오늘 오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통지가 올 게다."

오전은 끔찍하게 길었다. 통지는 오지 않았고, 점심을 먹을 때 한스는 속으로 흐느끼느라 음식을 거의 삼킬 수 없었다.

오후 두 시에 교실에 들어가 보니 담임이 벌써 와 있었다.

"한스 기벤라트." 담임이 큰 소리로 불렀다.

한스가 앞으로 나갔다. 담임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축하한다, 기벤라트. 주 시험에 2등으로 합격했다."

엄숙한 정적이 흘렀다. 문이 열리고 교장이 들어왔다.

"축하한다. 그래,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소년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온몸이 굳어 버렸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냐?"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수석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집에 가거라." 교장이 말했다.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이제 학교에는 안 나와도 된다. 일주일 있으면 어차피 방학이니까."

소년은 어지러운 머리로 거리에 나섰고, 보리수들이 서 있고 장터 광장이 햇빛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지만,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뜻깊고 더 즐거워 보였다. 그는 합격했다! 그것도 2등이었다! 첫 기쁨의 폭풍이 지나가자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그를 가득 채웠다. 이제 목사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었다. 이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제 치즈 가게도 사무실도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낚시도 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침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학교에서 내보냈어요."

"뭐? 아니, 왜?"

"제가 이제 신학생이거든요."

"아니, 이런, 그럼 붙었다는 거냐?"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붙었냐?"

"2등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도 미처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들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며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시 고개만 저었다.

"허, 이거 참!" 마침내 그가 외쳤다. 그리고 한 번 더 외쳤다. "허, 이거 참!"

한스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계단을 올라 다락으로 갔고, 비어 있는 지붕 밑 방의 벽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뒤적거리더니 상자며 실 뭉치며 코르크 조각을 이것저것 끄집어냈다. 그의 낚시 도구였다. 이제 무엇보다도 거기에 맞는 멋진 낚싯대를 베어 와야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려갔다.

"아버지, 주머니칼 좀 빌려주세요!"

"뭐 하게?"

"회초리를 하나 베어야 해요. 낚싯대 하려고요."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옜다."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통 크게 말했다. "2마르크다. 네 칼을 하나 사라. 하지만 한프리트네 말고 건너편 칼 대장간에 가서 사라."

그다음은 쏜살같았다. 칼 대장장이는 시험 이야기를 묻더니, 기쁜 소식을 듣고는 각별히 멋진 칼을 내주었다. 강 하류 쪽 브뤼엘 다리 아래에는 날씬하고 보기 좋은 오리나무와 개암나무 덤불이 서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오래 고르고 고른 끝에 흠 하나 없이 질기고 탄력 있는 낚싯대 감을 베어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을 반짝이며 그는 낚시 채비라는 즐거운 일에 달려들었다. 그에게는 그 일이 낚시 자체만큼이나 좋았다. 오후 내내, 저녁 내내 그는 거기에 매달려 앉아 있었다. 하얀 줄, 갈색 줄, 초록색 줄을 가려 놓고 꼼꼼히 살피며 손질했고, 묵은 매듭과 엉킨 데를 하나하나 풀어냈다. 온갖 모양과 크기의 코르크와 깃대를 대어 보거나 새로 깎았고, 무게가 저마다 다른 작은 납 조각을 두드려 동그랗게 만들고 칼집을 내어 줄을 가라앉힐 봉돌로 삼았다. 그다음은 낚싯바늘이었는데,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바늘은 더러는 네 겹으로 꼰 검은 바느질 실에, 더러는 남은 창자 현에, 더러는 꼬아 만든 말총 줄에 매었다. 저녁 무렵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한스는 이제 일곱 주나

되는 긴 방학 동안 심심할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낚싯대만 있으면 온종일이라도 혼자 물가에서 보낼 수 있을 테니까.

---

1. 헤카톰베는 고대 그리스의 큰 제사로, 본디 소 백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제2장

여름 방학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산 위로는 용담꽃처럼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몇 주 동안 눈부시게 뜨거운 날이 하루 또 하루 이어졌으며, 이따금 짧고 세찬 뇌우가 한 차례씩 지나갈 뿐이었다. 강은 숱한 사암 바위와 전나무 그늘과 좁은 골짜기 사이로 길을 내며 흐르는데도 물이 어찌나 데워졌는지 밤늦게까지 멱을 감을 수 있었다. 작은 도시 둘레에는 온통 건초와 두벌 풀 냄새가 감돌았고, 몇 뙈기 안 되는 곡식 밭의 좁은 띠가 노랗게, 금갈색으로 익어 갔으며, 개울가에는 독미나리를 닮은 흰 꽃 풀들이 사람 키만큼 무성하게 자랐다. 그 풀은 꽃이 우산 모양으로 피고 늘 아주 작은 딱정벌레들로 덮여 있으며, 속이 빈 줄기를 잘라 피리와 호루라기를 만들 수 있는 풀이었다. 숲 가장자리에는 털이 보송보송하고 노란 꽃을 피운 위엄 있는 우단담배풀이 길게 줄지어 뽐냈고, 털부처꽃과 분홍바늘꽃은 가늘고 질긴 줄기 위에서 흔들리며 비탈 전체를 보랏빛 도는 붉은색으로 덮었다. 전나무 아래 숲 속에는 은빛 솜털이 난 넓은 뿌리잎과 튼튼한 줄기, 높이 줄지어 매달린 고운 붉은 종 모양 꽃을 단 키 크고 꼿꼿한 붉은 디기탈리스가 엄숙하고 아름답고 낯설게 서 있었다. 그 곁에는 갖가지 버섯이 있었다. 붉게 빛나는 광대버섯, 살지고 넓적한 그물버섯, 기묘한 싸리버섯, 붉고 가지가 많은 산호버섯, 그리고 이상하게 빛깔이 없고 병든 듯 살진 구상난풀. 숲과 풀밭 사이 히스 덮인 수많은 둑에서는 질긴 금작화가 불타는 듯 노랗게 타올랐고, 그다음에는 보랏빛 에리카가

길게 띠를 이루었으며, 그다음에는 풀밭이 펼쳐졌는데, 대개 두 번째 풀베기를 앞둔 풀밭은 황새냉이와 동자꽃과 샐비어와 체꽃으로 알록달록 뒤덮여 있었다. 활엽수 숲에서는 되새들이 쉴 새 없이 노래했고, 전나무 숲에서는 여우처럼 붉은 다람쥐들이 우듬지 사이를 내달렸으며, 둑과 담과 마른 도랑에서는 초록 도마뱀들이 따스함 속에서 기분 좋게 숨 쉬며 반짝였고, 풀밭 너머로는 높고 우렁차며 지칠 줄 모르는 매미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이 무렵 도시는 무척 시골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건초 수레와 건초 냄새와 낫을 두드려 벼리는 소리가 거리와 하늘을 가득 채웠다. 공장 두 곳만 없었더라면 마을에 와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방학 첫날 이른 아침, 늙은 안나가 겨우 일어났을 무렵 한스는 벌써 부엌에 서서 조바심을 내며 커피를 기다렸다. 그는 불 피우는 일을 거들고 빵집에서 빵을 받아 왔으며, 갓 짠 우유를 부어 식힌 커피를 후딱 들이켜고는 빵을 주머니에 넣고 뛰어나갔다. 위쪽 철둑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바지 주머니에서 둥근 양철 상자를 꺼내 부지런히 메뚜기를 잡기 시작했다. 기차가 지나갔다. 쏜살같이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선로가 몹시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이어서, 기차는 창문을 죄다 열어 놓고 승객도 별로 없이 아주 느긋하게, 연기와 증기로 된 길고 즐거운 깃발을 뒤로 펄럭이며 지나갔다. 그는 기차를 바라보았고, 희뿌연 연기가 소용돌이치다가 이윽고 햇살 가득한 이른 아침의 맑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못 보았던가! 그는 잃어버린 아름다운 시간을 이제 갑절로 되찾고 다시 한번 아무 거리낌도 걱정도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는 듯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메뚜기 상자와 새 낚싯대를 들고 다리를 건너 뒤쪽 뜰들을 지나 강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말웅덩이로 걸어가는 동안, 남모르는 기쁨과

사냥꾼의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기에는 버드나무 줄기에 기대어 다른 어느 곳보다 편하고 방해받지 않고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는 줄을 풀고 작은 납 봉돌을 달았으며, 통통한 메뚜기를 사정없이 바늘에 꿰어 크게 휘둘러 강 한가운데로 던졌다. 오래되고 익숙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작은 피라미들이 떼를 지어 미끼 둘레로 몰려와 바늘에서 그것을 뜯어내려 했다. 미끼는 곧 다 뜯어 먹혔고, 두 번째 메뚜기 차례가 왔고, 또 하나,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어졌다.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메뚜기를 바늘에 꿰었고, 마침내 봉돌을 하나 더 달아 줄을 무겁게 하자 이제 처음으로 제법 큰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려 보았다. 물고기는 미끼를 조금 당겨 보다가 놓았다가, 다시 건드려 보았다. 이번에는 덥석 물었다. 솜씨 좋은 낚시꾼이라면 줄과 낚싯대를 타고 손가락 끝에 전해 오는 그 떨림을 느낀다! 한스는 일부러 한 번 홱 채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물고기가 걸려 있었다. 물 위로 모습이 드러나자 한스는 그것이 붉은눈황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붉은눈황어는 넓적하고 희누렇게 빛나는 몸통과 세모난 머리, 특히 배지느러미가 붙은 자리의 고운 선홍빛으로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그러나 그가 어림해 보기도 전에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한 번 몸부림치더니 겁에 질려 수면 위에서 맴돌다가 달아나 버렸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서너 번 몸을 뒤집더니 은빛 번개처럼 깊은 데로 사라지는 것이 아직 보였다. 미끼를 제대로 물지 않았던 것이다.

낚시꾼의 몸속에서 이제 사냥의 흥분과 열띤 주의력이 깨어났다. 그의 눈길은 가느다란 갈색 낚싯줄이 물에 닿는 자리에 날카롭게, 꼼짝 않고 매달려 있었고, 두 뺨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몸놀림은 짧고 재빠르고 확실했다. 두 번째 붉은눈황어가 물려 올라왔고, 그다음엔 잡기가 아까울 만큼 작은 잉어가 한 마리, 그다음엔 잇따라 모래무지 세 마리가

올라왔다. 모래무지는 아버지가 즐겨 먹는 것이라 특히 반가웠다. 모래무지는 기껏해야 손바닥만큼 자라고, 비늘이 잘고 살진 몸통에 우스꽝스러운 흰 수염이 달린 굵은 머리와 작은 눈과 날씬한 꼬리 쪽 몸을 하고 있다. 빛깔은 초록과 갈색 사이인데, 물 밖으로 나오면 강철 같은 푸른빛을 띤다.

그사이 해가 높이 솟았다. 위쪽 둑의 물거품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고, 물 위로 더운 공기가 아른거렸으며, 고개를 들면 무크 산 위에 손바닥만 한 눈부신 구름 몇 조각이 떠 있었다. 날이 더워졌다. 맑게 갠 한여름 날의 열기를 드러내는 데는, 파란 하늘 중턱에 고요히 하얗게 떠서 빛을 가득 머금고 흠뻑 빨아들인 나머지 오래 바라볼 수도 없는 그 몇 점의 작고 잔잔한 구름만 한 것이 없다. 그 구름이 없으면 파란 하늘을 보아도, 반짝이는 강물을 보아도 얼마나 더운지 미처 모를 때가 많다. 그러다가 거품처럼 하얗고 단단하게 뭉친 그 한낮의 돛단배 몇 척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문득 햇볕이 따갑게 느껴져서 그늘을 찾고 젖은 이마를 손으로 훔치게 된다.

한스는 차츰 낚싯대에 덜 마음을 썼다. 그는 조금 피곤했고, 어차피 한낮이 가까워지면 거의 아무것도 낚이지 않는 법이다. 황어들은 가장 늙고 큰 것들까지도 이 무렵이면 볕을 쬐러 위로 올라온다. 그것들은 수면 바로 아래에서 크고 검은 무리를 지어 꿈꾸듯 상류로 헤엄쳐 가다가, 이따금 눈에 보이는 까닭도 없이 갑자기 놀라곤 하며, 이 시간에는 어떤 낚시에도 걸려들지 않는다.

그는 낚싯줄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쳐 물에 드리워 두고, 땅바닥에 앉아 초록빛 강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들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고, 검은 등이 하나 또 하나 수면에 떠올랐다. 더위에 이끌려 올라와 홀린 듯 고요히, 느릿느릿 헤엄치는 무리였다. 따뜻한 물속에서 저것들은 참 좋겠다! 한스는 장화를 벗고 두 발을 물에 담갔다. 수면 가까이의 물은

아주 미지근했다. 그는 잡은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들은 커다란 물뿌리개 속에서 꼼짝 않고 떠 있다가 이따금 살짝 물을 철벙거릴 뿐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비늘과 지느러미에서 흰빛, 갈색, 초록, 은빛, 흐린 금빛, 파란빛과 그 밖의 빛깔들이 반짝였다.

무척 고요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수레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방앗간의 덜거덕 소리도 여기서는 아주 희미하게만 들렸다. 다만 하얀 둑의 쉼 없이 부드러운 물소리만이 고요하고 서늘하게, 졸음을 부르며 들려왔고, 뗏목 말뚝 둘레에서는 흘러가는 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는 나직한 소리가 났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법과 작문, 산수와 암기, 그리고 길고 쉴 틈 없이 쫓기던 한 해의 고문 같은 온갖 북새통이 졸음 오는 따뜻한 시간 속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한스는 두통이 조금 났지만 여느 때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이제 다시 물가에 앉아 둑에서 물거품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낚싯줄 쪽으로 눈을 깜박일 수 있었으며, 곁의 물뿌리개 속에서는 잡은 물고기들이 헤엄쳤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주 시험에 붙었고 그것도 2등을 했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맨발로 물을 철벙 차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휘파람으로 가락을 불기 시작했다. 제대로 휘파람을 불 줄은 몰랐다. 그것은 오랜 근심거리였고, 그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에게서 놀림도 꽤 받았다. 그는 이 사이로, 그것도 나직하게만 불 수 있었지만, 집에서 쓰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고, 지금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교실에 앉아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 혼자만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나 있었다. 그는 그들을 앞질렀고, 이제 그들은 그보다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그를 꽤나 괴롭혔다. 그에게는 아우구스트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그들의 싸움질과

놀이를 별로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들은 그의 뒷모습이나 바라보라지, 그 멍청이들, 그 고집불통들. 그는 그들을 어찌나 경멸했던지 입을 삐죽거리느라 잠깐 휘파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낚싯줄을 감아올리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늘에 미끼가 한 오라기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상자에 남은 메뚜기들은 놓아주었고, 메뚜기들은 얼떨떨하고 시들한 채 짧은 풀 속으로 기어들어 갔다. 옆의 무두질 공장에서는 벌써 점심을 먹고 있었다. 밥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

점심 식탁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뭐 좀 잡았냐?" 아버지가 물었다.

"다섯 마리요."

"오, 그래? 그래, 늙은 놈은 잡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 나중에 새끼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너무 더웠다. 그리고 밥을 먹고 곧바로 멱을 감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걸까? 몸에 해롭다나! 해롭기는 무슨. 한스는 더 잘 알았다. 그는 금지를 어기고 숱하게 멱을 감으러 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못된 짓을 하기에는 그는 이미 너무 어른이었다. 세상에, 시험장에서는 그를 "자네"라고 불렀다!

결국 뜰의 가문비나무 아래 한 시간 누워 있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았다. 그늘은 넉넉했고, 책을 읽거나 나비를 구경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 시까지 거기 누워 있었고, 하마터면 잠이 들 뻔했다. 그러나 이제 멱 감으러 가자! 멱 감는 풀밭에는 꼬마들 몇뿐이었고, 큰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앉아 있었으며, 한스는 그것이 진심으로 고소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 그는 따뜻함과 서늘함을 번갈아 즐길 줄 알았다. 한동안 헤엄치고 자맥질하고 첨벙거리다가, 또

한동안은 강가에 엎드려 빠르게 말라 가는 살갗 위로 햇볕이 이글거리는 것을 느꼈다. 꼬마들은 우러러보듯 그의 둘레를 살금살금 맴돌았다. 그렇지,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아이들과 생김새도 아주 달랐다. 가늘고 볕에 그은 목 위에는 지적인 얼굴과 남을 내려다보는 눈을 지닌 고운 머리가 자유롭고 우아하게 얹혀 있었다. 그 밖에는 몹시 마르고 팔다리가 가늘고 연약해서, 가슴과 등에서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고, 장딴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오후 거의 내내 그는 햇볕과 물 사이를 오가며 지냈고, 네 시가 지나자 그의 반 아이들 대부분이 서둘러 떠들썩하게 달려왔다.

"야, 기벤라트! 넌 이제 좋겠다."

그는 느긋하게 기지개를 켰다. "뭐, 그럭저럭."

"신학교에는 언제 가?"

"9월에야 가. 지금은 방학이야."

그는 부러움을 사도록 내버려 두었다. 뒤쪽에서 비웃는 소리가 크게 나고 누군가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조차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촌장 댁 리자베트처럼!
대낮에도 누워 자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지.

그는 그저 웃었다. 그사이 아이들은 옷을 벗었다. 하나는 냉큼 물에 뛰어들었고, 다른 아이들은 먼저 조심스럽게 몸을 식혔으며, 더러는 그 전에 잠깐 풀밭에 눕기도 했다. 자맥질을 잘하는 아이가 감탄을 샀다. 겁쟁이 하나가 뒤에서 떠밀려 물에 빠지며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서로 쫓고 달리고 헤엄쳤으며, 뭍에서 몸을 말리던 아이들에게

물을 끼얹었다. 첨벙거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요란했고, 강폭 전체가 밝고 젖어 번들거리는 몸뚱이들로 반짝였다.

한 시간 뒤 한스는 자리를 떴다. 물고기가 다시 미끼를 무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먹을 때까지 그는 다리 위에서 낚시를 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 물고기들은 미끼를 탐내며 따라왔고 미끼는 번번이 뜯어 먹혔지만, 걸려드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바늘에 버찌를 꿰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크고 물렀던 모양이다. 그는 나중에 한 번 더 해 보기로 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아는 사람들이 잔뜩 축하하러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자 주간지를 보여 주었는데, '관보'란 아래에 이런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하급 신학교 입학시험에 이번에 우리 시는 단 한 명의 응시생, 한스 기벤라트를 보냈다. 방금 들어온 기쁜 소식에 따르면, 이 응시생은 2등으로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랑과 기쁨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 뒤에 그는 다시 낚시하러 갔다. 이번에는 미끼로 치즈 몇 조각을 가져갔다. 치즈는 물고기 입에 맞고, 땅거미 속에서도 물고기 눈에 잘 띈다.

그는 낚싯대는 세워 두고 아주 간단한 손 낚시만 가져갔다. 그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였다. 낚싯대도 찌도 없이 줄을 손에 쥐고 하는 낚시라서, 도구라고 해 봐야 줄과 바늘뿐이었다. 조금 더 힘들었지만 훨씬 재미있었다. 그렇게 하면 미끼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손안에 쥐고 있을 수 있었고, 물고기가 건드려 보고 덥석 무는 것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으며, 줄의 떨림만으로 물고기들을 눈앞에 보듯 살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낚시는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다. 손가락이 재야 하고, 첩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좁고 깊이 파이고 굽이진 강 골짜기에는 땅거미가 일찍 내렸다. 다리 아래 물은 검고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아래쪽 방앗간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다리와 골목 위로 이야기 소리와 노랫소리가 흘러 다녔고, 공기는 조금 후텁지근했으며, 강에서는 시시때때로 검은 물고기가 짧게 꼬리를 치며 뛰어올랐다. 이런 저녁이면 물고기들은 이상하리만큼 들떠서, 지그재그로 이리저리 쏜살같이 오가고, 공중으로 몸을 튕기고, 낚싯줄에 부딪히고, 앞뒤 가리지 않고 미끼에 달려든다. 치즈 마지막 조각을 다 썼을 때 한스는 작은 잉어 네 마리를 낚아 올렸다. 그것은 내일 목사에게 갖다줄 생각이었다.

따뜻한 바람이 골짜기 아래로 불어 내려갔다. 날은 몹시 어두워졌지만 하늘은 아직 밝았다. 어둠에 잠겨 가는 작은 도시 전체에서 교회 탑과 성의 지붕만이 밝은 하늘로 검고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아주 먼 어딘가에서 뇌우가 치는 모양이었다. 이따금 아득히 먼 데서 부드러운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열 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스는 머리와 팔다리가 오랜만에 기분 좋게 피곤하고 졸렸다. 빈둥거리고, 멱 감고, 낚시하고, 꿈꾸며 흘려보낼 아름답고 자유로운 여름날이 길게 줄지어 그의 앞에 놓여, 그의 마음을 놓이게 하며 어서 오라고 그를 꾀었다. 다만 한 가지, 아예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그를 갉아먹었다.

◆

이른 오전에 벌써 한스는 목사관 현관 마루에 서서 물고기를 건넸다. 목사가 서재에서 나왔다.

"아, 한스 기벤라트구나! 잘 잤니!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해. 그런데 그건 뭐냐?"

"그냥 물고기 몇 마리예요. 어제 낚았어요."

"아니, 이것 봐라! 고맙다. 자, 어서 들어오너라."

한스는 잘 아는 서재로 들어갔다. 사실 이곳은 목사의 방처럼 보이지 않았다. 화분 냄새도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꽤 많은 장서는 목사들의 서재에서 흔히 보는, 닳고 비뚤어지고 좀먹고 곰팡이 얼룩이 핀 책들이 아니라, 거의 모두 깔끔하게 칠하고 금박을 입힌 새 책등을 보여 주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의 제목에서도 새로운 정신이 느껴졌다. 사라져 가는 세대의 예스럽게 점잖은 신사들 속에 살던 것과는 다른 정신이었다. 목사 서재의 명예로운 자랑거리인 벵겔, 외팅거, 슈타인호퍼, 그리고 뫼리케가 「탑 위의 늙은 수탉」에서 그토록 아름답고 정답게 노래한 경건한 찬송 시인들[1]은 여기에 없거나, 있더라도 수많은 현대 저작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잡지 철과 서서 쓰는 책상과 종이가 흩어진 커다란 책상까지, 모든 것이 학구적이고 진지해 보였다. 여기서 일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일을 많이 했다. 다만 설교나 교리 문답이나 성경 공부보다는 학술지에 실을 연구와 논문, 그리고 자기 책을 쓰기 위한 예비 연구에 더 힘을 쏟았다. 꿈꾸는 신비주의와 예감에 찬 골똘한 사색은 이곳에서 쫓겨났고, 학문의 깊은 구렁을 넘어 목마른 민중의 영혼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몸을 기울이는 소박한 마음의 신학도 쫓겨났다. 그 대신 이곳에서는 열심히 성서 비평을 했고, 현대 신학자들의 입에서는 물처럼 술술 흘러나오지만 손가락 사이로는 뱀장어처럼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역사적 그리스도"를 뒤쫓았다.

신학도 다른 데와 다를 바 없다. 예술인 신학이 있고, 학문이거나 적어도 학문이 되려고 애쓰는 신학이 있다. 그것은 옛날에도 지금과 같았다. 학문 쪽 사람들은 늘 새 부대에 정신이 팔려 묵은 포도주를 놓쳤고, 예술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저런 오류에 태평하게

머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비판과 창조, 학문과 예술 사이의 오래되고 대등하지 않은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학문은 늘 옳지만 그것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술은 믿음과 사랑과 위로와 아름다움과 영원을 예감하는 마음의 씨앗을 거듭 밖으로 뿌리며 거듭 좋은 땅을 만난다. 삶은 죽음보다 강하고, 믿음은 의심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한스는 처음으로 서서 쓰는 책상과 창문 사이의 작은 가죽 소파에 앉았다. 목사는 더없이 친절했다. 그는 아주 친구처럼 신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거기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하는지 일러 주었다.

"그곳에서 겪게 될 가장 중요한 새 일은" 목사가 끝으로 말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너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공부할 거리도 많고 기쁨도 많은 세계지. 처음에는 그 언어가 애를 먹일 거다. 그건 이제 아티카 그리스어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이 빚어낸 새로운 말이거든."

한스는 귀 기울여 들었고, 참된 학문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이 새로운 세계를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목사가 말을 이었다. "물론 그 매력이 얼마쯤 깎이게 마련이다. 게다가 신학교에서는 처음에 히브리어가 너를 너무 한쪽으로만 붙잡아 둘지도 모르고. 그러니 네가 마음이 있다면 이번 방학에 조금 시작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다른 일에 쓸 시간과 힘이 남아 있어서 기쁠 거다. 누가복음을 몇 장 같이 읽어 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그 언어를 거의 놀이 삼아 곁들여 배우게 될 거다. 사전은 내가 빌려주마. 하루에 한 시간쯤, 많아야 두 시간만 들이면 될 거다. 물론 그 이상은 안 된다. 무엇보다 지금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을 취해야 하니까. 물론 이건 그저 제안일 뿐이다. 그 좋은 방학 기분을 이걸로 망쳐 놓고 싶지는 않구나."

한스는 물론 좋다고 했다. 이 누가복음 시간이 자유라는 즐겁고 파란 하늘에 떠 있는 옅은 구름 한 조각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거절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방학 동안 새 언어를 이렇게 곁들여 배우는 것은 분명히 일이라기보다 즐거움일 터였다. 게다가 신학교에서 배워야 할 수많은 새것, 특히 히브리어 앞에서 그는 가뜩이나 은근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불만스럽지는 않은 마음으로 목사 집을 나와, 낙엽송 길을 따라 숲으로 올라갔다. 작은 언짢음은 벌써 날아가 버렸고, 이 일을 곰곰 생각할수록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신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뒤로 따돌리려면 그곳에서 더욱 공명심에 차서 끈질기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어코 그러고 싶었다. 대체 왜? 그것은 그 자신도 몰랐다. 세 해 전부터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았고, 교사들과 목사와 아버지, 특히 교장이 그를 다그치고 들쑤시며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 긴 세월 내내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는 동안 그는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수석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자신도 맨 꼭대기에 서서 아무도 곁에 두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그 멍청한 시험 걱정은 이제 끝났다.

그래도 방학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었다. 산책하는 사람이라곤 그 하나뿐인 이 아침 시간의 숲은 다시 얼마나 낯설도록 아름다웠던가! 가문비나무가 기둥처럼 줄줄이 서서 끝없는 회당을 청록빛으로 둥글게 덮고 있었다. 덤불은 별로 없었고 여기저기 산딸기 덤불이 무성할 뿐이었으며, 그 대신 몇 시간을 걸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넓고 부드럽고 털가죽 같은 이끼 바닥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 키 작은 월귤 나무와 에리카가 자라 있었다. 이슬은 벌써 말랐고, 화살처럼 곧은 줄기들 사이로는 숲의 아침 특유의 후텁지근함이 일렁였다. 햇볕의 온기와 이슬 기운과 이끼 냄새, 송진과 전나무 잎과 버섯 냄새가 뒤섞인

그 기운은 가벼운 마취처럼 모든 감각에 살랑살랑 감겨 왔다. 한스는 이끼 위에 몸을 던지고, 거무스름하게 촘촘히 열린 월귤 덤불을 훑어 먹으며, 여기저기서 딱따구리가 나무줄기를 쪼는 소리와 질투 많은 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거무스름한 전나무 우듬지 사이로 티 없이 짙푸른 하늘이 들여다보았고, 먼 곳으로는 수천수만의 곧게 선 줄기들이 서로 밀치며 엄숙한 갈색 벽을 이루었으며, 여기저기 노란 햇빛 조각이 따뜻하고 진하게 빛나며 이끼 위에 흩어져 있었다.

사실 한스는 크게 한 바퀴 산책할 생각이었고 적어도 뤼첼러 농장이나 크로커스 풀밭까지는 가 볼 참이었는데, 지금 그는 이끼 위에 누워 월귤을 먹으며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가 이렇게 피곤하다는 것이 그 자신도 이상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서너 시간 걷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기운을 내서 제대로 한참 걸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몇백 걸음을 걸었다. 그런데 어느새,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게, 그는 다시 이끼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누워 있었고, 그의 눈길은 깜박이며 줄기와 우듬지 사이를, 그리고 초록 땅바닥 위를 헤맸다. 이 공기가 이토록 사람을 피곤하게 하다니!

점심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또 두통이 났다. 눈도 아팠다. 숲길에서 햇빛이 지독히도 눈부셨던 것이다. 그는 오후 반나절을 뿌루퉁하게 집 안에서 서성거렸고, 멱을 감고서야 다시 생기가 돌았다. 이제 목사에게 갈 시간이었다.

가는 길에 작업장 창가의 세발 걸상에 앉아 있던 구두장이 플라이크가 그를 보고 안으로 불러들였다.

"어디 가니, 얘야? 요즘은 통 안 보이더구나."

"지금 목사님한테 가야 해요."

"아직도? 시험은 끝났잖니."

"네, 이제는 다른 걸 해요. 신약성경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제가 배운 그리스어하고는 또 아주 다른 그리스어래요. 그걸 이제 배워야 해요."

구두장이는 모자를 뒤통수로 한참 밀어 올리고, 생각 많은 넓은 이마에 굵은 주름을 잔뜩 모았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한스."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일러 줄 게 있다. 지금까지는 시험 때문에 잠자코 있었지만, 이제는 너한테 따끔하게 말해 둬야겠다. 너도 알아 둬야 한다. 목사는 불신자야. 그 사람은 너한테 성경이 틀리고 거짓말투성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게 만들 거다. 그 사람하고 신약성경을 읽고 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믿음을 잃고 말 거다."

"하지만 플라이크 아저씨, 그냥 그리스어 공부일 뿐이에요. 어차피 신학교에 가면 배워야 하는걸요."

"네 말은 그렇지. 하지만 성경을 경건하고 양심 바른 선생들한테 배우는 것하고, 더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래도 그분이 정말 하느님을 안 믿는지는 모르잖아요."

"알지, 한스. 안타깝게도 다들 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벌써 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럼 가야지, 그야 당연하다. 하지만 되도록 자주는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두고,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고 거짓말투성이이며 성령이 일러 주신 게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하거든, 나한테 와라. 같이 이야기해 보자. 그러겠니?"

"네, 플라이크 아저씨.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두고 봐라. 내 말 잊지 마!"

목사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아서 한스는 서재에서 기다려야 했고, 금박 입힌 책 제목들을 바라보는 동안 구두장이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목사와 신식 성직자들 전반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끌려 들어간 것을 긴장과 호기심 속에서 느꼈다. 그에게 이 일은 구두장이에게만큼 중요하고 끔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기서 오래되고 커다란 비밀 뒤로 파고들 수 있겠다는 냄새를 맡았다. 예전 학교 시절에는 하느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악마와 지옥에 관한 물음이 이따금 그를 공상 같은 골똘한 생각으로 들끓게 했지만, 지난 몇 해 엄하고 부지런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이 잠들어 버렸고,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교 신앙은 구두장이와 이야기할 때나 이따금 얼마쯤 자기만의 생기를 띠며 깨어났다. 그 사람을 목사와 견주어 보노라면 그는 웃음이 나왔다. 쓰라린 세월 속에서 얻은 구두장이의 다부진 굳건함을 소년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플라이크는 영리하기는 하지만 소박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었고, 경건주의 타령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놀림을 받았다. 경건회 형제들의 모임에서 그는 엄한 형제 재판관이자 성경을 힘차게 풀이하는 사람으로 나섰고,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경건회도 열었지만, 그 밖에는 그저 작은 수공업자였고 다른 모든 사람처럼 좁은 사람이었다. 그와 달리 목사는 노련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자 설교자일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엄격한 학자이기도 했다. 한스는 경외심을 품고 책장들을 올려다보았다.

목사는 곧 돌아와서 프록코트를 가벼운 검은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학생의 손에 누가복음 그리스어 원문 책을 쥐여 주며 읽어 보라고 했다. 라틴어 수업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몇 문장밖에 읽지 않았는데, 그 문장들을 고지식할 만큼 글자 그대로 옮겼고, 그다음에 선생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문에서 이 언어 특유의 정신을 솜씨 좋게,

막힘없이 풀어냈으며, 이 책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하면서, 단 한 시간 만에 소년에게 배우는 일과 읽는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심어 주었다. 한스는 구절마다 낱말마다 얼마나 많은 수수께끼와 과제가 숨어 있는지, 옛날부터 수천의 학자와 사색가와 연구자들이 그 물음들을 붙들고 얼마나 애써 왔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이 시간에 자기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무리에 받아들여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사전과 문법책을 빌려 와 집에서 저녁 내내 공부를 이어 갔다. 이제 그는 참된 연구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많은 공부와 지식의 산을 넘어가는지 느꼈고, 그 길을 헤쳐 나가며 길가에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구두장이는 당분간 잊혔다.

며칠 동안 이 새로운 일이 그를 온통 사로잡았다. 그는 저녁마다 목사에게 갔고, 참된 학문은 날마다 더 아름답고 더 어렵고 더 애써 얻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침 이른 시간에는 낚시를 하러 가고 오후에는 멱 감는 풀밭에 갔지만, 그 밖에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시험의 두려움과 승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공명심이 다시 깨어나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동시에 지난 몇 달 동안 그토록 자주 느꼈던 그 야릇한 느낌이 다시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빨라진 맥박과 몹시 들뜬 힘들이 의기양양하게 서둘러 몰아치는 것이었고, 거세게 앞으로 내닫고 싶은 조급한 갈망이었다. 물론 나중에는 두통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미세한 열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책 읽기와 공부가 폭풍처럼 나아갔다. 그럴 때면 여느 때 같으면 15분씩 걸리던 크세노폰의 가장 어려운 문장들도 놀이하듯 읽었고, 사전도 거의 들추지 않은 채 날카로워진 이해력으로 어려운 쪽 전체를 재빠르고 즐겁게 날아넘었다. 이렇게 치솟은 공부 열과 앎에 대한 목마름에 오만한 자부심이 함께 겹쳤다. 학교도 교사도 배우던 해들도 이미 오래전에 뒤로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 앎과 능력의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그것이 다시 그를 덮쳤고, 동시에 가볍고 자주 끊기는 잠과 이상하게 또렷한 꿈도 찾아왔다. 밤중에 가벼운 두통과 함께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할 때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조바심이 그를 사로잡았고, 자기가 모든 친구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교사들과 교장이 얼마나 존경을, 아니 감탄까지 담아 자기를 바라보았는지를 생각하면 남을 내려다보는 자부심이 차올랐다.

교장에게는 자기가 일깨운 이 아름다운 공명심을 이끌어 주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더없는 기쁨이었다. 훈장에게는 심장이 없다느니, 훈장이란 뼈만 남고 넋이 빠진 샌님이라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말라! 천만의 말씀이다. 오랫동안 자극해도 꿈쩍 않던 아이의 재능이 마침내 터져 나오고, 소년이 나무칼과 새총과 활 같은 철부지 장난감을 내려놓고 앞을 향해 애쓰기 시작하고, 공부의 진지함이 볼 통통한 개구쟁이를 섬세하고 진지하고 거의 금욕적인 소년으로 바꾸어 놓고, 얼굴은 더 어른스럽고 지적으로, 눈빛은 더 깊고 목표가 뚜렷하게, 손은 더 차분하고 희고 고요하게 변해 가는 것을 볼 때면, 교사의 영혼은 기쁨과 자랑으로 웃는다. 어린 소년 안에 있는 자연의 거친 힘과 욕망을 길들이고 뿌리 뽑아, 그 자리에 고요하고 절도 있으며 국가가 인정한 이상을 심는 일, 그것이 교사의 의무이며 국가가 그에게 맡긴 직분이다. 지금은 만족한 시민이자 부지런한 관리가 된 사람 가운데, 학교의 이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개혁가나 열매 없는 생각에 잠긴 몽상가가 되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이 안에는 무언가가, 거칠고 규칙 없고 교양 없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먼저 부서져야 했다. 위험한 불꽃이 있었으니, 그것은 먼저 꺼지고 짓밟혀야 했다. 자연이 빚어낸 그대로의 인간은 헤아릴 수 없고 속을 알 수 없으며

적대적인 무엇이다. 그것은 이름 모를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급류이고, 길도 질서도 없는 원시림이다. 그리고 원시림을 솎아 내고 치우고 힘으로 가두어야 하듯이, 학교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부수고 굴복시키고 힘으로 가두어야 한다. 학교의 과제는 그를 윗선이 승인한 원칙에 따라 사회의 쓸모 있는 일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 몇 가지 자질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 자질을 완전히 길러 내어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일은 그 뒤 병영의 빈틈없는 규율이 맡는다.

꼬마 기벤라트는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던가! 쏘다니며 노는 버릇은 거의 저절로 버렸고, 수업 시간에 멍청하게 웃는 일도 오래전부터 없었으며, 뜰 가꾸기와 토끼 기르기와 그 성가신 낚시도 그만두라는 대로 순순히 그만두었다.

어느 날 저녁 교장이 몸소 기벤라트네 집에 나타났다. 우쭐해하는 아버지를 정중하게 떼어 낸 뒤, 그는 한스의 방에 들어가 누가복음을 붙들고 앉아 있는 소년을 보았다. 그는 더없이 다정하게 인사했다.

"기특하구나, 기벤라트, 벌써 또 공부하는구나! 그런데 왜 통 얼굴을 안 비치느냐? 날마다 기다렸다."

"찾아뵈려고 했습니다만" 한스가 변명했다. "하다못해 좋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 가져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고기? 무슨 물고기 말이냐?"

"그러니까, 잉어나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아, 그래. 그럼 너 다시 낚시를 하는 게냐?"

"네, 조금만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흠. 그래. 아주 재미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방학은 네가 훌륭히 얻어 낸 거니까. 그러니 지금은 곁들여 공부까지 할 마음은 별로 없겠구나?"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킬 생각은 없다."

"그럼요, 하고 싶습니다."

교장은 숨을 몇 번 깊이 쉬고 성긴 수염을 쓰다듬더니 의자에 앉았다.

"자, 한스, 사정은 이렇다." 그가 말했다. "아주 좋은 시험 바로 뒤에 갑자기 뒷걸음질이 오는 일이 많다는 건 오래된 경험이다. 신학교에서는 여러 새 과목을 익혀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늘 방학 동안 미리 공부해 온 학생들이 얼마쯤 있게 마련이다. 시험을 덜 잘 본 아이들인 경우도 많지. 그런 아이들이 방학 내내 월계관을 베고 쉰 아이들을 밀어내고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온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여기 학교에서는 늘 1등을 하는 게 쉬웠지. 하지만 신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같이 재능이 있거나 아주 부지런한 아이들이라, 그렇게 손쉽게 앞지를 수 없을 거다. 알아듣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조금 미리 공부해 두라고 권하고 싶었다. 물론 적당히 말이다! 너는 지금 실컷 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하루에 한두 시간쯤이면 알맞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궤도에서 벗어나고, 다시 제대로 굴러가기까지 몇 주가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꺼이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다.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 다음으로 특히 호메로스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줄 거다. 지금 단단한 바탕을 깔아 두면 호메로스를 갑절로 즐기고 깊이 이해하며 읽게 될 게다. 호메로스의 언어, 옛 이오니아 방언과 호메로스의 운율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별스러운

것이라서, 이 서사시들을 제대로 즐기려면 부지런함과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물론 한스는 이 새로운 세계에도 기꺼이 뛰어들 마음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약한 꼬리는 뒤에 따라왔다. 교장은 헛기침을 하고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수학에도 몇 시간 들여 주면 좋겠다. 셈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학이 네 강점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신학교에 가면 대수와 기하를 시작해야 하니, 준비 수업을 몇 번 받아 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네, 교장 선생님."

"내 집에는 언제든 와도 좋다. 그건 너도 알 거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런데 수학은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교수님한테 개인 교습을 받게 해 달라고 해야겠다. 일주일에 서너 번쯤."

"네, 교장 선생님."

◆

이제 공부는 다시 더없이 반갑게 활짝 꽃피었고, 한스는 이따금 한 시간쯤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헌신적인 수학 교사는 늘 멱을 감던 그 시간을 자기 수업 시간으로 골랐다.

한스는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이 대수 시간만큼은 즐겁게 여길 수가 없었다. 무더운 오후 한복판에 멱 감는 풀밭 대신 교수의 더운 방으로 가서, 먼지 끼고 모기가 윙윙대는 공기 속에서 지친 머리와 마른 목소리로 a 더하기 b, a 빼기 b를 외는 것은 아무래도 쓰라린 일이었다. 그럴 때면 공기 속에 무언가 사람을 마비시키고 몹시 짓누르는 것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그것이 막막함과 절망으로 바뀌기도 했다. 수학과 그의 사이는 대체로 묘했다. 그는 수학이라면 꽉 막혀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 축에 들지는 않았다. 이따금 훌륭한, 아니 멋들어진 풀이를 찾아내고는 기뻐하기도 했다. 그가 수학에서 마음에 들어 한 것은, 거기에는 헷갈림도 속임수도 없고, 주제에서 벗어나 엉뚱한 곁가지를 기웃거릴 여지도 없다는 점이었다. 같은 까닭으로 그는 라틴어를 무척 좋아했다. 이 언어는 명료하고 확실하며 뜻이 하나뿐이고, 의심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셈을 해서 답이 다 맞아도 거기서 제대로 된 무엇이 나오지는 않았다. 수학 과제와 수업은 평평한 큰길을 걷는 것 같았다. 늘 앞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어제는 몰랐던 무언가를 알게 되지만, 갑자기 넓은 전망이 열리는 산 위에는 끝내 오르지 못했다.

교장의 수업은 조금 더 생기가 있었다. 물론 목사는 신약성경의 타락한 그리스어로도, 교장이 젊음이 싱그러운 호메로스의 언어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훨씬 매혹적이고 화려한 무언가를 여전히 만들어 낼 줄 알았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호메로스였다. 처음의 어려움 바로 뒤에서 놀라움과 즐거움이 튀어나와 거스를 수 없이 앞으로 꾀어 가는 호메로스였다. 한스는 신비롭도록 아름답게 울리면서도 알아듣기 어려운 시구 앞에서 떨리는 조바심과 긴장에 차서 앉아 있곤 했고, 그 고요하고 밝은 정원을 열어 줄 열쇠를 사전에서 찾느라 서두르고 또 서둘렀다.

이제 숙제도 다시 넉넉해졌고, 그는 많은 저녁을 어떤 과제를 물고 늘어진 채 다시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기벤라트 씨는 이 부지런함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둔한 머릿속에는 좁고 하찮은 수많은 사람이 품는 이상이 어렴풋이 살아 있었다. 제 줄기에서 가지

하나가 자기를 넘어 뻗어 나가, 그가 멍하니 우러러보는 높은 곳까지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방학 마지막 주에 교장과 목사는 갑자기 다시 눈에 띄게 너그러워지고 걱정스러워했다. 그들은 소년을 산책하라고 내보내고 수업을 멈추었으며, 그가 생기 있고 기운찬 몸으로 새 길에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말했다.

한스는 몇 번 더 낚시를 하러 갔다. 두통이 잦아서 그는 이제 연푸른 초가을 하늘을 비추는 강가에 건성으로 앉아 있었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여름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그는 수수께끼 같았다. 이제는 오히려 방학이 끝나고, 전혀 다른 생활과 공부가 시작될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 기뻤다. 마음이 없었으므로 물고기도 거의 낚지 못했고, 한번은 아버지가 그것을 두고 농담을 하자 그는 더는 낚시를 하지 않고 낚싯줄을 다시 지붕 밑 방 벽장에 올려 두었다.

마지막 며칠이 되어서야 그는 몇 주 동안 구두장이 플라이크에게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이번에도 그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아야 그를 찾아갈 수 있었다. 저녁이었고, 구두장이는 무릎마다 어린아이를 하나씩 앉힌 채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을 열어 두었는데도 가죽과 구두약 냄새가 온 집 안에 배어 있었다. 한스는 주눅이 든 채 구두장이의 단단하고 넓적한 오른손에 제 손을 얹었다.

"그래, 어떻게 지내니?" 구두장이가 물었다. "목사한테는 부지런히 다녔니?"

"네, 날마다 가서 많이 배웠어요."

"뭘 말이냐?"

"주로 그리스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이것저것요."

"그런데 나한테는 한 번도 오고 싶지 않았니?"

"오고 싶기야 했죠, 플라이크 아저씨. 그런데 도무지 짬이 안 났어요. 목사님한테 날마다 한 시간, 교장 선생님한테 날마다 두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네 번은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 했거든요."

"지금 방학인데? 그건 터무니없는 짓이다!"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는 저한테 힘들지 않아요."

"그럴 테지." 플라이크가 그렇게 말하며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공부야 괜찮다 치자. 그런데 이 팔뚝은 이게 뭐냐? 얼굴도 이렇게 야위었고. 아직도 두통이 나니?"

"가끔요."

"그건 터무니없는 짓이다, 한스. 죄이기도 하고. 네 나이에는 바깥바람도 제대로 쐬고 몸도 움직이고 제대로 쉬어야 하는 법이다. 방학은 뭐 하라고 주는 거냐?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만 더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니. 너는 아주 뼈와 가죽만 남았다."

한스는 웃었다.

"그래, 그래도 너는 이겨 내겠지. 하지만 지나친 건 지나친 거다. 그래, 목사한테 배운 공부는 어땠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지만, 나쁜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엄청나게 많이 아세요."

"성경을 깔보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니?"

"아뇨, 한 번도요."

"그거 다행이다. 내 너한테 일러두마. 영혼을 다치느니 차라리 몸을 열 번 망치는 게 낫다!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지. 그건 귀하고도 무거운 직분이고, 그 일을 하려면 너희 젊은 사람들 대부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서, 언젠가

영혼들을 돕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나는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는 일어서더니 두 손을 소년의 어깨에 꽉 얹었다.

"잘 가거라, 한스. 늘 선한 길에 머물러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기를. 아멘."

그 엄숙함이며 기도며, 평소의 사투리를 버리고 또박또박 표준말로 하는 말투가 소년에게는 숨 막히고 거북했다. 목사는 작별할 때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채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다니느라 며칠이 빠르고 어수선하게 지나갔다. 침구와 옷가지, 속옷과 책을 담은 궤짝은 벌써 부쳤고, 이제는 여행 가방만 꾸리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서늘한 아침, 아버지와 아들은 마울브론으로 떠났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나와 낯선 학교로 옮겨 가는 것은 아무래도 묘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었다.

---

1. 벵겔·외팅거·슈타인호퍼는 18세기 슈바벤 경건주의 신학자다.

제3장

이 나라의 북서쪽 끝, 숲이 우거진 언덕과 작고 고요한 호수들 사이에 커다란 시토회 수도원 마울브론이 있다.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들은 널찍하고 튼튼하며 잘 보존된 채 서 있어서 눌러살고 싶어질 만큼 탐나는 거처가 될 만하다. 안팎이 다 화려한 데다, 수백 년을 지나는 동안 고요하고 아름다운 초록빛 둘레와 기품 있게, 깊숙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수도원을 찾아가는 사람은 높은 담을 터서 낸 그림 같은 문을 지나 넓고 아주 고요한 광장으로 들어선다. 거기에는 샘물이 흐르고, 늙고 엄숙한 나무들이 서 있으며, 양옆으로는 오래되고 튼튼한 돌집들이, 안쪽으로는 웅장한 본당의 정면이 서 있다. 그 정면에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현관이 붙어 있는데, 우아하고 매혹적인 그 아름다움은 견줄 데가 없다. 교회의 육중한 지붕 위에는 바늘처럼 뾰족하고 우스꽝스러운 작은 탑 하나가 올라타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종을 매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고스란히 남은 회랑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작품이며, 보석처럼 귀한 샘 예배당을 품고 있다. 힘차고 기품 있는 교차 궁륭을 얹은 경이로운 방인 수사 식당, 그리고 기도실과 면회실, 평수사 식당, 수도원장 거처와 교회 두 채가 묵직하게 맞붙어 늘어서 있다. 그림 같은 담장과 돌출창, 문과 작은 뜰, 방앗간 하나와 살림집들이 이 육중하고 오래된 건물들을 아늑하고 명랑하게 둘러싸고 있다. 넓은 앞마당은 고요히 비어 있고, 잠결에 제 나무들의 그림자와 장난을 친다. 다만 점심 뒤 한 시간 동안만

덧없는 가짜 생기가 그 위에 감돈다. 그때면 젊은이 한 무리가 수도원에서 나와 넓은 마당에 흩어지고, 약간의 움직임과 외침과 이야기와 웃음소리를 몰고 와서 이따금 공놀이도 하다가, 한 시간이 지나면 재빨리, 흔적도 없이 담 뒤로 사라진다. 이 마당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 본 사람이 적지 않다. 여기야말로 알찬 삶과 기쁨이 있을 자리다, 여기서는 무언가 살아 있고 행복을 주는 것이 자라야 한다, 여기서는 성숙하고 선한 사람들이 기쁜 생각을 품고 아름답고 명랑한 작품을 지어내야 한다.

정부는 사랑 어린 배려로, 언덕과 숲 뒤에 숨어 세상과 멀리 떨어진 이 훌륭한 수도원을 개신교 신학교 학생들에게 내주었다. 아름다움과 고요가 감수성 예민한 어린 마음들을 감싸 주도록 하려는 뜻이다. 동시에 그곳의 젊은이들은 도시와 가정생활이 끼치는 마음을 흩뜨리는 영향에서 떨어져 있고, 바삐 일하며 돌아가는 삶이라는 해로운 광경을 보지 않고 지낸다. 그 덕분에 젊은이들에게 몇 해 동안이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공부를, 딸린 과목들까지 합쳐, 아주 진지하게 삶의 목표로 여기게 할 수 있고, 젊은 영혼들의 목마름을 송두리째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부와 즐거움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 기숙 생활이 더해진다. 스스로를 길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압박과, 한 식구라는 소속감이 그것이다. 신학생들을 제 돈으로 먹이고 공부시켜 주는 정부는 이렇게 하여, 제 학생들이 남다른 정신의 자식이 되도록, 그래서 훗날 언제 어디서든 그 정신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도록 손을 써 두었다. 세련되고 확실하게 낙인을 찍는 법이요, 스스로 원해서 매인 농노 신분을 뜻깊게 보여 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따금 고삐를 끊고 뛰쳐나가는 야생아들을 빼면, 슈바벤의 신학생은 누구든 평생 신학생 출신으로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은 얼마나 저마다 다르며, 그들이 자라는 환경과 형편은 또 얼마나 저마다 다른가! 정부는 제가 돌보는

아이들에게서 그 다름을 일종의 정신의 제복, 혹은 하인의 제복으로 공평하고 철저하게 고르게 맞춘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아직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은 평생 그 무렵을 고마움과 미소 어린 감동으로 떠올린다. 한스 기벤라트는 그렇지 못해서 아무 감동 없이 그 시절을 넘겼지만, 그래도 낯선 어머니들을 아주 많이 지켜볼 수 있었고, 그 광경은 그에게 묘한 인상을 남겼다.

벽장을 죽 둘러 세운 큰 복도들, 도르멘트라고 부르는 그곳에는 궤짝과 바구니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부모를 따라온 소년들은 자잘한 살림살이를 풀어 정리하느라 바빴다. 저마다 번호가 매겨진 벽장 하나와, 공부방에 번호가 매겨진 책꽂이 하나를 배정받았다. 아들과 부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을 풀었고, 사환은 그 사이를 군주처럼 거닐며 이따금 친절한 충고를 건넸다. 꺼낸 옷을 펼치고, 셔츠를 개고, 책을 쌓고, 장화와 실내화를 줄지어 늘어놓았다. 준비물은 큰 것들이 누구나 똑같았다. 가져와야 할 속옷의 최소 가짓수와 그 밖의 살림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을 긁어 새긴 양철 세숫대야들이 나와 세면실에 놓였고, 그 옆에 해면과 비누 그릇, 빗과 칫솔이 자리를 잡았다. 그 밖에도 저마다 등잔 하나와 석유 통 하나, 식기 한 벌을 가져왔다.

소년들은 하나같이 몹시 분주하고 들떠 있었다. 아버지들은 웃음을 띠고 거들어 보려 했고, 자꾸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며 꽤 따분해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영혼은 어머니들이었다. 어머니들은 옷과 속옷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주름을 펴고 끈을 바로잡은 다음, 이리저리 꼼꼼히 맞춰 보며 되도록 깔끔하고 쓰기 편하게 벽장 안에 나누어 넣었다. 그 사이사이로 타이르는 말과 충고와 다정한 말이 함께 흘러들었다.

"새 셔츠는 특히 아껴 입어야 한다. 3마르크 50페니히나 들었어."

"빨랫감은 네 주마다 기차 편으로 부쳐라. 급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검은 모자는 일요일에만 쓰는 거야."

뚱뚱하고 푸근해 보이는 아주머니 하나가 높직한 궤짝 위에 앉아서 아들에게 단추 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집 생각이 나거든 언제든 편지만 하렴. 성탄절까지 그렇게 무섭게 오래 남은 것도 아니잖니."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이 들렸다.

예쁘고 아직 꽤 젊은 어머니 하나는 꽉 찬 아들의 벽장을 훑어보고는, 쌓아 둔 속옷 더미와 웃옷과 바지를 어루만지듯 손으로 쓸었다. 그 일을 마치자 이번에는 제 아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볼이 통통한 사내아이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아들은 부끄러워서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밀어냈고, 행여 다정해 보일세라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기까지 했다. 작별은 아들보다 어머니에게 더 힘들어 보였다.

다른 아이들은 그 반대였다. 그 아이들은 바삐 움직이는 어머니를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바라보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따라서 집으로 가고 싶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나 작별이 두려운 마음과 한껏 북받친 정과 그리움이, 남들이 보는 앞이라는 부끄러움 그리고 갓 사내가 된 아이의 고집스러운 체면과 힘겹게 다투고 있었다. 실컷 울고 싶은 아이들도 일부러 태평한 얼굴을 지어 보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거의 모두가 궤짝에서 꼭 필요한 것 말고도 사치품을 몇 가지 꺼냈다. 사과 한 자루, 훈제 소시지 하나, 구운 과자 한 바구니 같은 것들이었다. 스케이트를 가져온 아이도 많았다. 영악해 보이는 자그마한 젊은이 하나는 햄을 통째로 하나 가져와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숨기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어느 아이가 집에서 곧장 왔고, 어느 아이가 이미 다른 학교나 기숙사에서 지내 보았는지는 쉽게 가려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서도 흥분과 긴장이 엿보였다.

기벤라트 씨는 아들의 짐 푸는 일을 거들었는데, 그 솜씨가 영리하고 실속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끝냈고, 한동안 한스와 함께 따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도르멘트에 서 있었다. 사방에서 아버지들은 타이르고 가르치고, 어머니들은 달래고 충고하고, 아들들은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이자, 그도 제 한스에게 인생길에 가져갈 황금 같은 말 몇 마디쯤은 들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는 한참을 궁리하며 말 없는 아들 곁을 괴로운 얼굴로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말문을 터뜨려 엄숙한 상투어들을 골라 엮은 작은 명구집 하나를 쏟아 놓았다. 한스는 의아해하며 잠자코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옆에 서 있던 어느 목사가 이 아버지다운 연설을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지켜보는 것을 보자 부끄러워져서 연설하는 사람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집안 이름을 빛내 줄 테지? 윗사람들 말도 잘 듣고?"

"네, 그럼요." 한스가 말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독하게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한스도 꽤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때로는 가슴 졸이는 호기심으로 창 너머 고요한 회랑을 내려다보았는데, 예스럽고 은자다운 회랑의 위엄과 고요는 위층에서 떠들썩한 젊은 삶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때로는 바삐 움직이는 동급생들을 수줍게 바라보았는데, 그 가운데 아는 얼굴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슈투트가르트 시험장에서 함께 시험을 친 그 아이는 괴핑겐에서 갈고닦은 그 능란한 라틴어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모양이었다. 적어도 한스 눈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별생각 없이 그는 앞으로 함께 공부할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소년의 준비물이 종류와 수가 그렇게 비슷한데도, 도시 아이와 농부의 아들을, 넉넉한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가려내기는 쉬웠다. 부잣집 아들이 신학교에 오는 일은 물론 드문데, 이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자존심이나 더 깊은 통찰을,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재능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도 교수나 고위 관리 가운데에는 제 수도원 시절을 떠올리며 아들을 마울브론으로 보내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래서 검은 웃옷을 입은 마흔 명의 꼬마들 사이에서도 옷감과 재단이 이것저것 달랐고, 몸가짐과 사투리와 태도는 그보다 더 달랐다. 팔다리가 뻣뻣하고 깡마른 슈바르츠발트 아이들, 짚단처럼 노란 머리에 입이 큼직하고 혈색 좋은 알프 고원 아들들, 거침없고 명랑한 몸가짐에 날랜 저지대 아이들, 그리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망가진, 아니 세련되었다고 해야 할 사투리를 쓰는 말쑥한 슈투트가르트 아이들이 있었다. 이 젊은 꽃봉오리들 가운데 거의 다섯에 하나는 안경을 썼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냘프고 우아하기까지 한, 어머니 품만 알던 슈투트가르트 도련님 하나는 빳빳한 고급 펠트 모자를 쓰고 점잔을 빼고 있었는데, 그 낯선 치장이 벌써 첫날부터 동급생 가운데 짓궂은 아이들의 입맛을 다시게 해, 나중에 놀려 대고 혼내 줄 마음을 먹게 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눈이 더 밝은 구경꾼이라면 이 겁먹은 작은 무리가 이 나라의 젊은이 가운데서 결코 허투루 고른 것이 아님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멀리서 보아도 깔때기로 부어 넣은 듯한 티가 나는 평범한 머리들 곁에, 섬세한 아이들도, 고집스럽고 단단한 아이들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 아이들의 매끈한 이마 뒤에는 더 높은 삶이 아직 반쯤 꿈속에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는 영리하고 끈질긴 슈바벤의 머리도 한둘 끼어 있었을지 모른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따금 넓은 세상 한복판으로 비집고 들어가, 늘 조금은 메마르고 고집스러운 제 생각을 새롭고 강력한 체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온 그런 머리들 말이다. 슈바벤은 세상에서 가장 잘 길든 신학자들로 저 자신과 세상을 채워 줄

뿐 아니라, 철학적 사변이라는 오래된 재능도 자랑스럽게 지니고 있으며, 그 재능에서 이미 여러 번 이름난 예언자나 이단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위대한 전통은 까마득한 옛일이 되고 이제는 부리가 날카로운 북쪽의 독수리에게 순한 병아리처럼 몸을 기대고 있는 이 기름진 땅도, 적어도 신학과 철학이라는 정신의 영역에서만은 아직도 세상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도 이 백성 안에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형식과 꿈꾸는 시를 즐기는 마음이 살아 있어서, 때때로 시를 짓는 사람과 시인이 자라 나오는데, 그들은 결코 나쁜 축에 들지 않는다. 물론 요즘 들어서는 그들도 별로 대접받지 못한다. 시에서도 북쪽에 사는 우리의 형님들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쪽 말을 촌스럽다 여기고 더 날카로운 혀로 가락을 정하는데, 그 가락은 때로는 흙냄새를, 때로는 베를린의 세련미를 좇으며, 날렵한 기세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닥다리 리라보다 훨씬 낫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나 다른 데서나 거기에 대들어, 저 자랑스러운 베를린 사람들이 갓 입은 아직 새파란 고색을 벗겨 내려 들 수는 없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제 몫을 기꺼이 허락한다. 우리 슈바벤 사람에게는 고요한 숲 위로 아득한 옛 영광의 몇 조각이 잠들어 꿈꾸는 우리의 옛 슈타우펜을, 다른 이들에게는 매끈하고 깔끔하기 짝이 없는 찻길이 번쩍이는 대포 곁을 지나가는 그들의 촐레른을.[1] 둘 다 나름대로 좋은 데가 있지 않은가.

마울브론 신학교의 시설과 관습에는 겉으로 보아서는 슈바벤다운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원 시절부터 남은 라틴어 이름들 곁에 고전풍 상표가 새로 몇 개 더 붙어 있었다. 학생들이 나뉘어 든 방들은 포룸, 헬라스, 아테네, 스파르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렸고, 가장 작은 마지막 방 이름이 게르마니아라는 것은 게르만의 현재를 될 수 있는 대로 로마와 그리스의 꿈결 같은 그림으로 바꾸어 놓을 까닭이 있다는 뜻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겉치레일 뿐이었고,

실은 히브리어 이름이 더 잘 어울렸을 것이다. 그래서 즐거운 우연의 장난으로, 아테네 방에는 마음 넓고 말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고지식하고 따분한 아이 몇이 들었고, 스파르타 방에는 전사나 금욕가가 아니라 한 줌의 쾌활하고 흥청거리는 청강생들이 살게 되었다. 한스 기벤라트는 동급생 아홉 명과 함께 헬라스 방에 배정되었다.

그래도 저녁에 처음으로 아홉 아이와 함께 서늘하고 썰렁한 침실에 들어가 좁은 학생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마음이 묘했다. 천장에는 커다란 석유등이 매달려 있었다. 그 불그레한 불빛 아래서 옷을 벗었고, 열 시 15분이 되면 사환이 그 불을 껐다. 이제 아이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침대 둘 사이마다 옷을 얹은 작은 의자가 하나씩 놓였고, 기둥에는 아침 종을 당기는 줄이 늘어져 있었다. 아이들 가운데 두셋은 서로 아는 사이라 조심스럽게 몇 마디 속삭였지만 곧 잠잠해졌다. 나머지는 서로 낯설어서 저마다 조금 짓눌린 채 죽은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잠든 아이들에게서는 깊은 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자면서 팔을 움직이면 아마포 이불이 바스락거렸다. 아직 깨어 있는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한스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옆 아이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얼마 뒤 한 칸 건너 침대에서 묘하게 겁에 질린 소리를 들었다. 거기 누운 아이 하나가 담요를 머리 위까지 끌어 덮고 울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 나직한 그 흐느낌에 한스는 이상하게 마음이 술렁였다. 그 자신은 집이 그립지 않았지만, 집에 있던 조용하고 작은 제 방이 아쉬웠다. 거기다 알 수 없는 새것과 수많은 동급생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겹쳤다. 아직 자정이 되기도 전에 침실에서 깨어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슬픈 아이와 고집스러운 아이, 쾌활한 아이와 겁 많은 아이 할 것 없이, 어린 잠꾸러기들은 줄무늬 베개에 뺨을 묻은 채 나란히 누워 똑같이 달콤하고 깊은 휴식과 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래된 뾰족한 지붕과 탑, 돌출창, 첨탑 장식,

성가퀴, 뾰족아치 회랑 위로 창백한 반달이 떠올랐다. 그 빛은 처마 돌림띠와 문턱에 내려앉고, 고딕 창과 로마네스크 문 위로 흘러, 회랑 샘의 크고 기품 있는 수반 속에서 파리한 금빛으로 떨렸다. 노르스름한 빛줄기와 빛 조각 몇이 세 개의 창으로 헬라스 방 침실에도 들어와, 옛날 대대로 이 집에 살던 수도사들의 꿈 곁에 그랬던 것처럼, 잠든 소년들의 꿈 곁에 다정한 이웃으로 머물렀다.

이튿날 기도실에서 엄숙한 입학식이 열렸다. 교사들은 프록코트를 입고 서 있었고, 원장(Ephorus)이 연설을 했으며, 학생들은 생각에 잠겨 몸을 구부린 채 의자에 앉아 이따금 뒤쪽에 앉은 부모를 곁눈질하려 애썼다. 어머니들은 생각에 잠겨 웃음 띤 얼굴로 아들들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들은 꼿꼿이 앉아 연설을 따라가며 진지하고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랑스럽고 갸륵한 감정과 아름다운 희망으로 그들의 가슴은 부풀었고, 오늘 자기가 금전상의 이득을 받고 제 아이를 국가에 팔아넘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하나씩 이름이 불려 대열 앞으로 나갔고, 원장과 악수를 하며 입학이 허락되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써 그 아이는 처신만 잘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국가가 먹여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몸이 되었다. 그것을 어쩌면 아주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친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보다 훨씬 엄숙하고 가슴 뭉클하게 느껴진 것은 아버지 어머니와 작별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부모들은 걸어서, 또는 우편 마차를 타고, 또는 서둘러 잡아탄 온갖 탈것에 실려 남겨진 아들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갔다. 손수건들이 온화한 9월의 공기 속에 오래도록 나부꼈고, 마침내 숲이 떠나는 사람들을 품어 버리자, 아들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자, 이제 부모님들은 떠나셨네." 사환이 말했다.

이제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알아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방마다 저희끼리였다. 잉크병에 잉크를,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책과 공책을 정리하며 새 방에 정을 붙여 보려 했다. 그러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을 걸고, 고향이 어디인지, 그동안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묻고, 함께 진땀을 흘린 주 시험을 떠올렸다. 이 책상 저 책상 둘레에 수다 떠는 무리가 생겨났고, 여기저기서 소년다운 맑은 웃음소리가 조심스레 터져 나왔으며, 저녁이 되자 같은 방 친구들은 긴 바닷길 끝에 이른 배의 승객들보다 훨씬 더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

한스와 함께 헬라스 방에 사는 동급생 아홉 가운데 넷은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이었고, 나머지는 대체로 괜찮은 보통 아이들이었다. 먼저 오토 하르트너가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교수의 아들로, 재능 있고 차분하며 자신만만하고 몸가짐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 몸집이 크고 당당하게 자랐으며 옷을 잘 입었고, 확고하고 다부진 태도로 방 아이들을 압도했다.

그다음은 카를 하멜, 알프 고원 작은 마을 촌장의 아들이었다. 그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모순투성이였고, 겉보기에 굼뜬 성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벗어나면 격정적이고 날뛰며 난폭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 다시 제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러면 그가 말 없는 관찰자인지, 아니면 그저 음흉한 겁쟁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보다 눈에 띄지만 덜 복잡한 인물은 헤르만 하일너였다. 슈바르츠발트의 좋은 집안 아들이었다. 첫날부터 벌써 그가 시인이자 멋쟁이 문사라는 것이 알려졌고, 주 시험의 작문을 육보격으로 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말이 많고 활발했으며, 좋은 바이올린을 하나 지녔고, 제 됨됨이를 겉에 드러내 놓고 다니는 듯했는데, 그 됨됨이는 주로 감상과 경솔함이 아직 덜 익은 채 젊게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눈에

덜 띄게나마 더 깊은 것도 속에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나이보다 앞서 자라서, 벌써 시험 삼아 저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헬라스 방에서 가장 별난 아이는 에밀 루치우스였다. 속을 알 수 없고 머리칼이 희끄무레한 금발의 작달막한 아이로, 늙은 농부처럼 질기고 부지런하고 메말랐다. 몸집과 생김새는 아직 덜 자랐는데도 소년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았고, 어디로 보나 어른 같은 데가 있었다. 이제 더는 고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았다. 첫날부터 다른 아이들이 따분해하고, 수다를 떨고, 낯선 곳에 정을 붙이려 애쓰는 동안, 그는 조용하고 태연하게 문법책 앞에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는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처럼 줄기차게 공부했다.

이 조용한 괴짜의 속셈은 차츰차츰 드러났고, 그는 지독하게 영악한 구두쇠이자 이기주의자로 밝혀졌다. 그런데 바로 그 악덕들에서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존경, 적어도 너그러운 묵인을 얻었다. 그에게는 교묘한 절약과 이익의 체계가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묘수는 아주 천천히 드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 체계는 아침 일찍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다. 루치우스는 세면실에 맨 먼저 들어가거나 맨 나중에 들어갔다. 남의 수건과, 될 수 있으면 남의 비누까지 써서 제 것을 아끼려고. 그렇게 해서 그의 수건은 늘 두 주, 아니 그보다 더 오래 버텼다. 그런데 수건은 일주일마다 갈아야 했고, 월요일 오전마다 사환장이 그것을 검사했다. 그래서 루치우스도 월요일 아침마다 번호가 붙은 제 못에 새 수건을 걸었지만, 점심시간이면 다시 걷어 깔끔하게 개어 함에 도로 넣고 그 대신 아껴 둔 헌 수건을 걸어 두었다. 그의 비누는 단단해서 거품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몇 달이고 갔다. 그렇다고 에밀 루치우스가 겉모습을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늘 말쑥해 보였고, 가느다란 금발을 꼼꼼히 빗어 가르마를 탔으며, 속옷과 옷을 더없이 아껴 입었다.

세면실에서 나오면 아침을 먹으러 갔다. 아침으로는 커피 한 잔과 각설탕 한 개, 그리고 작은 빵 하나가 나왔다. 대부분은 그것을 넉넉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여덟 시간을 자고 나면 대개 아침 배가 몹시 고프기 때문이다. 루치우스는 만족했다. 날마다 나오는 각설탕을 먹지 않고 아껴 두었다가 언제나 살 사람을 찾아냈다. 두 개에 1페니히, 혹은 스물다섯 개에 공책 한 권이었다. 저녁이면 비싼 기름을 아끼려고 곧잘 남의 등잔 불빛 아래서 공부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그가 가난한 집 아이였던 것도 아니었다. 꽤 넉넉한 집 출신이었다. 대개 아주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살림을 꾸리고 아낄 줄을 모르고, 오히려 가진 만큼 늘 써 버리며, 모아 둔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에밀 루치우스는 제 체계를 물건과 손에 잡히는 재물에만 넓힌 것이 아니라, 정신의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제 이익을 짜내려 했다. 이 점에서 그는 영리하게도 모든 정신적 재산은 상대적인 값어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노력은 나중에 시험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목을 가꾸는 데만 쏟았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그럭저럭 보통 성적에 겸손하게 만족했다. 그는 제가 배우고 해낸 것을 언제나 동급생들의 성적에만 견주어 재었다. 두 배를 알고 2등을 하느니 절반만 알고 1등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저녁에 동급생들이 온갖 소일거리와 놀이와 책 읽기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조용히 앉아 공부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그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이따금 시샘 없이 즐거운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공부했다면 그의 수고는 남는 장사가 아니었을 테니까.

이 모든 꾀와 잔재주를 두고 이 부지런한 공부벌레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게 하고 너무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도 곧 어리석은 짓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수도원의 수업은 모두 공짜였으므로, 그는 이것을 이용해 바이올린

수업을 받아 보자는 생각을 해냈다. 그에게 미리 배운 것이 좀 있었다거나, 귀가 조금 밝거나 재능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음악을 조금이라도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는 결국 바이올린도 라틴어나 산수처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들은 바로는 음악은 나중에 살아가는 데 쓸모가 있고 사람을 인기 있고 호감 가게 만든다고 했으며, 어쨌든 이 일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았다. 학생용 바이올린도 신학교에서 내주었기 때문이다.

루치우스가 찾아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음악 교사 하스는 머리털이 곤두섰다. 노래 시간에 그를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루치우스가 내놓는 솜씨는 동급생들을 모두 몹시 즐겁게 했지만, 교사인 그는 절망에 빠뜨렸다. 교사는 아이를 말려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만났다. 루치우스는 섬세하고 겸손하게 웃으며 제 정당한 권리를 내세웠고, 음악을 향한 열망을 누를 길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연습용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을 받아 들고, 한 주에 두 번 수업을 받으며 날마다 반 시간씩 연습했다. 그러나 첫 연습 시간이 끝나자 같은 방 친구들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 지독한 신음 소리는 사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로 루치우스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할 조용한 구석을 찾아 쉴 새 없이 수도원 안을 헤매고 다녔고, 그런 구석에서는 긁고 끽끽거리고 낑낑대는 기묘한 소리가 새어 나와 이웃을 불안하게 했다. 시인 하일너의 말로는, 고문당하는 늙은 바이올린이 벌레 먹은 구멍마다에서 살려 달라고 절망적으로 애원하는 것 같았다. 아무런 진전이 없자 시달리던 교사는 신경이 곤두서고 거칠어졌으며, 루치우스는 점점 더 필사적으로 연습했고, 지금껏 자기만족에 차 있던 장사꾼 같은 얼굴에 쓰라린 근심의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비극이었다. 마침내 교사가 그는 전혀 가망이 없다며 수업을 계속하기를 거절하자, 이 홀린 배움의 열성가는 피아노를

골라 그것으로도 길고 열매 없는 몇 달 동안 애를 쓰다가,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조용히 그만두었다. 그러나 훗날 몇 해가 지나 음악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자기도 예전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둘 다 배웠으나 사정이 사정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예술과 차츰 멀어졌을 뿐이라고 넌지시 내비치곤 했다.

그리하여 헬라스 방은 우스꽝스러운 식구들 덕에 자주 즐거울 수 있었다. 멋쟁이 문사 하일너도 우스운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기 때문이다. 카를 하멜은 비꼬기 잘하는 재치 있는 관찰자 노릇을 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 살 위여서 얼마간 우위에 섰지만,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그는 변덕스러웠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몸싸움으로 제 힘을 시험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면 사납고 거의 잔인하기까지 했다.

한스 기벤라트는 그런 일들을 놀라며 지켜보았고, 착하지만 조용한 친구로서 묵묵히 제 길을 갔다. 그는 부지런했다. 루치우스 못지않게 부지런해서 같은 방 친구들에게서 존중을 받았다. 다만 하일너만은 예외였다. 하일너는 천재다운 경솔함을 제 깃발에 써 붙인 아이라, 이따금 한스를 공부벌레라고 비웃었다. 대체로 한창 빠르게 자라는 나이의 이 많은 소년들은 서로 잘 어울렸다. 물론 저녁마다 도르멘트에서 벌어지는 주먹다짐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려고 열심히 애썼고, 선생들이 아직은 낯설게 "자네"라고 불러 주는 것에 걸맞게 학문적인 진지함과 바른 몸가짐을 보이려 했으며, 방금 떠나온 라틴어 학교를 갓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김나지움을 돌아보듯 적어도 그만큼은 거만하고 딱하다는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따금 그 꾸며 낸 위엄을 뚫고 꾸밈없는 개구쟁이 기질이 터져 나와 제 권리를 내세웠다. 그러면 도르멘트에는 허공을 가르는 시원한 주먹질과 소년들의 짭짤한 욕지거리가 메아리쳤다.

◆

이런 학교의 장이나 교사라면, 함께 지낸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소년들의 무리가 가라앉는 화학 혼합물처럼 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배울 것 많고 더없이 즐거울 것이다. 그 혼합물 속에서는 흔들리는 구름과 덩어리가 뭉쳤다가 다시 풀리고 다른 모양을 이루다가, 마침내 단단한 결정 몇 개가 생겨난다. 처음의 수줍음을 이겨 내고 모두가 서로 넉넉히 알게 되자, 출렁이며 서로를 찾아 헤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무리가 생기고, 우정과 반감이 드러났다. 같은 고향 사람이나 예전 학교 친구끼리 뭉치는 일은 드물었다. 대부분은 새로 알게 된 아이들에게 마음을 돌렸다. 도시 아이는 농부 아들에게, 알프 고원 사람은 저지대 사람에게로, 다양함과 서로 채워 줌을 향한 은밀한 충동을 따라서였다. 어린 존재들은 망설이며 서로를 더듬어 찾았고, 같다는 의식 곁에 따로 서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며, 이렇게 하여 소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싹트는 인격의 모습이 어린 시절의 잠에서 깨어났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정과 질투의 작은 장면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우정의 동맹과 공공연한 고집스러운 적대로 자라났으며, 경우에 따라 다정한 사이와 친구끼리의 산책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매서운 씨름과 주먹다짐으로 끝났다.

한스는 겉으로는 이런 법석에 끼지 않았다. 카를 하멜이 대놓고 거세게 우정을 청해 왔을 때, 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하멜은 곧바로 스파르타 방의 아이 하나와 친구가 되었고, 한스는 혼자 남았다. 그는 강한 감정에 이끌려, 우정의 나라가 그리움의 빛깔로 지평선 위에 복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 나라는 그를 고요한 충동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수줍음이 그를 붙잡았다. 어머니 없이 엄하게 자란 소년 시절 동안 그에게서는 남에게 다가가 기대는 재주가 시들어

버렸고, 겉으로 열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름이 끼쳤다. 거기다 소년의 자존심과, 마지막으로 그 몹쓸 공명심이 더해졌다. 그는 루치우스와 달리 참된 앎을 구했지만, 루치우스처럼 공부에서 자기를 떼어 놓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책상 앞에 붙어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우정을 즐기는 것을 보면 시샘과 그리움에 시달렸다. 카를 하멜은 맞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를 힘껏 끌어당기려 했다면 그는 기꺼이 따라갔을 것이다. 수줍은 처녀처럼 그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다. 자기보다 더 강하고 용감해서, 자기를 끌고 가 억지로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누군가를.

이런 일들 말고도 수업이, 특히 히브리어가 할 일을 많이 주었으므로, 처음 얼마 동안의 시간은 젊은이들에게 무척 빨리 지나갔다. 마울브론을 둘러싼 숱한 작은 호수와 못들은 창백한 늦가을 하늘과, 시들어 가는 물푸레나무와 자작나무와 참나무, 그리고 긴 땅거미를 비추었다. 아름다운 숲에는 겨울을 앞둔 마지막 춤판이 신음하며 환호하며 휘몰아쳤고, 벌써 여러 번 엷은 서리가 내렸다.

서정적인 헤르만 하일너는 마음 맞는 친구를 얻으려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이제 그는 날마다 외출 시간이면 홀로 숲속을 헤매었고, 특히 숲 속 못을 좋아했다. 갈대에 둘러싸이고 늙어 시들어 가는 활엽수 우듬지가 드리운, 우울한 갈색 못이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 숲 구석이 이 몽상가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여기서 그는 꿈꾸듯 회초리로 고요한 물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레나우의 「갈대의 노래」를 읽고, 물가의 낮은 골풀 속에 누워 죽음과 사라짐이라는 가을의 주제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동안 떨어지는 나뭇잎과 헐벗은 우듬지의 웅성거림이 거기에 쓸쓸한 화음을 보태 주었다. 그러다 그는 곧잘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공책을 꺼내 연필로 시 한두 줄을 적어 넣었다.

10월도 다 저물어 가는 어느 어스레한 한낮, 홀로 산책하던 한스 기벤라트가 같은 곳에 들어섰을 때에도 하일너는 그러고 있었다. 한스는 이 젊은 시인이 작은 수문의 널빤지 다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공책을 무릎에 얹고,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생각에 잠겨 입에 물고 있었다. 그 옆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한스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 하일너. 뭐 해?"

"호메로스 읽는 중. 넌, 기벤라트 꼬마?"

"못 믿겠는걸. 너 뭐 하는지 난 벌써 알아."

"그래?"

"그럼. 시 썼지."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지."

"여기 앉아!"

기벤라트는 하일너 곁 널빤지에 앉아 물 위로 다리를 늘어뜨리고, 여기저기서 갈색 나뭇잎이 하나 또 하나 고요하고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빙글빙글 떨어져 내려 소리 없이 갈색빛 수면에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긴 쓸쓸하다." 한스가 말했다.

"그래, 그래."

둘은 어느새 등을 대고 길게 누워 있었다. 그러자 가을빛 둘레에서는 드리운 우듬지 몇 개만 겨우 보일 뿐, 그 대신 섬 같은 구름이 고요히 떠가는 연푸른 하늘이 눈앞에 드러났다.

"구름 참 예쁘다!" 한스가 느긋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기벤라트 꼬마." 하일너가 한숨을 쉬었다. "저런 구름이라도 됐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우린 저 위에서 돛을 달고 가는 거야. 숲이며 마을이며 고을이며 나라를 넘어서, 멋진 배처럼. 너 배 본 적 없어?"

"없어, 하일너. 넌?"

"있지. 그런데 세상에, 넌 그런 건 하나도 모르잖아. 공부하고 애쓰고 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날 바보로 아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

"네 생각만큼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그건 그렇고 배 얘기 더 해 봐."

하일너는 몸을 돌리다가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다. 이제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턱을 받쳤다.

"라인강에서 그런 배를 봤어. 방학 때." 그가 말을 이었다. "한번은 일요일이었는데, 밤에 배 위에서 음악을 하고 색색 등불을 달았지. 불빛이 물에 비치고,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강을 따라 내려갔어. 사람들은 라인 포도주를 마셨고, 처녀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한스는 귀를 기울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그 배가 음악과 붉은 등불과 하얀 옷의 처녀들을 싣고 여름밤을 가르며 가는 것을 보았다. 하일너는 말을 이었다. "그래, 지금하고는 달랐지. 여기서 그런 걸 아는 놈이 누가 있어? 죄다 따분한 놈들, 죄다 음흉한 겁쟁이들뿐이야! 죽어라 일하고 제 몸을 들볶으면서, 히브리어 자모보다 높은 건 아무것도 몰라. 너도 다를 거 없어."

한스는 입을 다물었다. 이 하일너라는 아이는 아무래도 별난 사람이었다. 몽상가, 시인. 한스는 벌써 여러 번 그를 두고 의아해한 적이 있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하일너는 공부를 지독히도 적게 했는데도

아는 것이 많았고, 대답도 잘할 줄 알았으며, 그러면서도 또 그런 지식을 업신여겼다.

"여기서는 호메로스를 그렇게 읽는단 말이야." 하일너는 계속 비웃었다. "『오디세이아』가 무슨 요리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시간에 두 줄, 그러고 나서 낱말 하나하나를 되새김질하고 뜯어보지. 구역질이 날 때까지. 그런데 수업이 끝날 때면 꼭 이렇게 말해. '자네들도 보다시피 시인이 이 대목을 얼마나 멋지게 굴렸나. 자네들은 방금 시 짓기의 비밀을 엿본 걸세!' 그저 불변화사와 부정과거 둘레에 뿌리는 소스 같은 거지. 그래야 아주 숨이 막혀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꼴이라면 호메로스 같은 건 몽땅 갖다 버려도 좋아. 도대체 그 옛날 그리스 나부랭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운데 누가 한번 조금이라도 그리스 사람처럼 살아 보려고 들면 당장 쫓겨날걸. 그러면서 우리 방 이름은 헬라스야! 순 웃기는 얘기지! 왜 '휴지통'이나 '노예 우리'나 '겁쟁이 굴'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고전이라는 건 죄다 사기야."

그는 허공에 침을 뱉었다.

"그런데, 너 아까 시 쓰고 있었지?" 이번에는 한스가 물었다.

"응."

"뭐에 대해서?"

"여기, 이 못하고 가을에 대해서."

"보여 줘!"

"안 돼. 아직 다 못 썼어."

"다 쓰면?"

"그래, 그러지 뭐."

두 아이는 일어나 천천히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봐,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제대로 본 적 있어?" '낙원' 앞을 지나갈 때 하일너가 말했다. "홀이며 아치 창이며 회랑이며 식당이며, 고딕이고 로마네스크고, 죄다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가의 솜씨야. 그런데 이 요술이 다 누굴 위한 거지? 목사가 되려는 가난한 꼬마 서른여섯 명을 위해서야. 국가는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지."

한스는 오후 내내 하일너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스가 아는 걱정과 바람이 그 아이에게는 아예 없었다. 하일너에게는 저만의 생각과 말이 있었고, 그는 더 뜨겁고 자유롭게 살았으며, 기이한 괴로움을 앓았고, 둘레의 모든 것을 업신여기는 듯했다. 그는 오래된 기둥과 담장의 아름다움을 알았다. 그리고 제 영혼을 시에 비추어 내고 상상으로 저만의, 살아 있는 듯한 삶을 지어내는 신비롭고 기이한 재주를 부렸다. 그는 날래고 고삐가 풀려 있었으며, 한스가 한 해 동안 할 농담보다 더 많은 농담을 하루에 했다. 그는 우울했고, 제 슬픔을 낯설고 드물고 귀한 물건처럼 즐기는 것 같았다.

바로 그날 저녁에 하일너는 방 아이들 모두에게 제 얼룩덜룩하고 눈에 띄는 기질을 한 번 보여 주었다. 동급생 하나, 오토 벵거라는 허풍선이 소인배가 그에게 시비를 걸었다. 한동안 하일너는 침착하고 재치 있게 굴며 여유를 보였지만, 그러다 욱해서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고, 그러자 곧 두 맞수는 사납게 뒤엉켜 떨어질 줄 모르고 서로 물고 늘어진 채, 키를 잃은 배처럼 들이받고 반원을 그리고 경련하듯 꿈틀대며 헬라스 방 안을 휩쓸고 다녔다. 벽을 따라, 의자를 넘어, 바닥에서, 둘 다 말없이 헐떡이고 씩씩대며 거품을 물었다. 동급생들은 비평가 같은 얼굴로 곁에 서서 지켜보며, 엉켜 굴러오는 덩어리를 피하고 제 다리와 책상과 등잔을 건지면서 즐거운 긴장 속에 결판을 기다렸다. 몇 분 뒤 하일너가 간신히 일어나 몸을 빼내고는 숨을 몰아쉬며 섰다. 꼴이 엉망이었다.

눈은 벌겋고 셔츠 깃은 찢어졌으며 바지 무릎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맞수가 또 덤벼들려 했지만 하일너는 팔짱을 끼고 서서 거만하게 말했다. "난 더 안 해. 치고 싶으면 쳐." 오토 벵거는 욕을 하며 가 버렸다. 하일너는 제 책상에 기대어 스탠드 등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점점 더 많이. 그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우는 것은 신학생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틀림없이 가장 창피한 짓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 조금도 애쓰지 않았다. 방을 나가지도 않고, 하얗게 질린 얼굴을 등잔 쪽으로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눈물을 닦지도 않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조차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둘러싸고 호기심과 심술이 섞인 눈으로 구경했는데, 마침내 하르트너가 그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야, 하일너, 창피하지도 않냐?"

우는 아이는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창피해하라고? 너희 앞에서?" 이윽고 그가 큰 소리로 경멸하듯 말했다. "천만에, 이 친구야."

그는 얼굴을 닦고 짜증스럽게 웃더니, 제 등잔을 불어 끄고 방을 나갔다.

한스 기벤라트는 그 장면 내내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저 놀라고 겁먹은 눈으로 하일너 쪽을 곁눈질했을 뿐이었다. 15분 뒤에 그는 용기를 내어 사라진 아이를 따라가 보았다. 하일너는 어둡고 싸늘한 도르멘트에서 깊숙한 창턱 하나에 꼼짝 않고 앉아 회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뒤에서 보니 그의 어깨와 가느다랗고 날카로운 머리가 묘하게 진지하고 소년답지 않아 보였다. 한스가 다가가 창가에 멈춰 섰을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지도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야." 한스가 수줍게 말했다.

"무슨 볼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도로 가도 되겠네."

한스는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돌아서려 했다. 그때 하일너가 그를 붙잡았다.

"가지 마." 그가 일부러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제 두 아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마 둘 다 이 순간 처음으로 상대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소년다운 그 매끈한 얼굴 뒤에 저만의 별난 구석을 지닌 남다른 한 사람의 삶이, 저 나름의 무늬가 새겨진 남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그려 보려 했을 것이다.

헤르만 하일너가 천천히 팔을 뻗어 한스의 어깨를 잡고, 두 얼굴이 바짝 맞닿을 때까지 그를 끌어당겼다. 그러자 한스는 갑자기 묘하게 화들짝 놀라며, 상대의 입술이 제 입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혀 낯선 답답함으로 가슴이 뛰었다. 어두운 도르멘트에 둘이 함께 있는 것과 이 갑작스러운 입맞춤은 무언가 모험 같고 새롭고, 어쩌면 위험한 일이었다. 이러다 들키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입맞춤이 아까 운 일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훨씬 더 우습고 창피하게 보이리라는 것을 어떤 확실한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피가 머리로 세차게 솟구쳤고, 할 수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었다.

이 작은 장면을 본 어른이 있었다면, 그는 어쩌면 남몰래 흐뭇해했을지도 모른다. 수줍은 우정 고백에 담긴 서툴고 겁먹은

다정함과, 두 아이의 진지하고 갸름한 얼굴이 흐뭇했을 것이다. 두 얼굴은 다 예쁘고 앞날이 기대되었으며, 반은 아직 아이다운 귀여움을 지니고 반은 벌써 젊은 시절의 수줍고 아름다운 반항기가 스쳐 가고 있었다.

차츰 어린 무리는 함께 사는 데 익숙해졌다. 서로를 알게 되었고, 누구나 누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짐작하는 바가 생겼으며, 우정도 숱하게 맺어졌다. 함께 히브리어 낱말을 외우는 친구 짝이 있었고,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실러를 읽는 친구 짝이 있었다. 라틴어는 잘하고 산수는 못하는 아이들이, 라틴어는 못하고 산수는 잘하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공동 작업의 열매를 함께 누리기도 했다. 다른 종류의 계약과 재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우정도 있었다. 이를테면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햄 주인은 제 짝이 될 반쪽을 슈탐하임에서 온 원예사의 아들에게서 찾아냈는데, 그 아이는 함 바닥에 근사한 사과를 그득 깔아 두고 있었다. 햄 주인은 언젠가 햄을 먹다가 목이 말라 그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청하고 그 대가로 햄을 권했다. 둘은 마주 앉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 끝에 햄이 떨어지면 곧바로 새 햄이 올 것이며, 사과 주인도 봄이 한참 깊을 때까지 아버지가 쌓아 둔 사과로 버틸 수 있으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탄탄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관계는 더 이상적이고 더 뜨겁게 맺어진 여러 동맹보다 훨씬 오래갔다.

외톨이로 남은 아이는 몇 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루치우스가 있었는데, 예술을 향한 그의 욕심 사나운 사랑은 그때 아직 한창 꽃피어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짝도 있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짝으로 꼽힌 것은 헤르만 하일너와 한스 기벤라트, 경솔한 아이와 성실한 아이, 시인과 공부벌레였다. 둘 다 영리하고 재능 있는 축에 들기는 했지만, 하일너는 반쯤은 비꼬는 뜻으로 천재라는 평판을 누렸고, 한스에게서는 모범생

냄새가 풍겼다. 그래도 아이들은 둘을 꽤 내버려 두었다. 저마다 제 우정에 매여 있었고, 저희끼리 지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저마다의 관심과 일에 빠져 있었다고 해서 학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니었다. 학업은 오히려 큰 악장이자 장단이었고, 그 곁에서 루치우스의 음악과 하일너의 시 짓기는 온갖 동맹과 다툼과 이따금의 주먹다짐과 함께 그저 하찮은 변주와 자잘한 곁다리 놀이로 흘러갔을 뿐이다. 무엇보다 히브리어가 일거리를 주었다. 여호와의 낯설고 아득히 오래된 언어는, 딱딱하고 메마른데도 아직 신비롭게 살아 있는 나무처럼 젊은이들의 눈앞에서 낯설고 울퉁불퉁하고 수수께끼같이 자라 올랐다. 기묘하게 뻗은 가지들은 눈길을 끌었고, 이상한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들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 가지와 구멍과 뿌리에는 천 년 묵은 정령들이 섬뜩하게, 또는 다정하게 깃들어 살았다. 환상적이고 무시무시한 용들, 순박하고 사랑스러운 옛이야기들, 주름지고 엄숙하고 메마른 노인의 머리들이 아름다운 소년과 눈길 고요한 처녀나 싸움에 능한 여인들 곁에 있었다. 아늑한 루터 성경에서는 아득하고 꿈결같이 울렸고 구약의 안개에 부드럽게 싸여 있던 것이, 이제 거칠고 진짜인 그 언어 속에서 피와 목소리를 얻고, 낡고 굼뜨지만 질기고 으스스한 생명을 얻었다. 적어도 하일너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하일너는 날마다, 때마다 모세 오경 전체를 저주하면서도, 낱말을 모두 알고 읽기에서 더는 틀리지 않는 참을성 많은 숱한 학생들보다 그 안에서 더 많은 생명과 영혼을 찾아내고 빨아들였다.

그 곁에는 신약성경이 있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더 부드럽고 밝고 내면적이었으며, 그 언어는 덜 오래되고 덜 깊고 덜 풍부하지만 더 섬세했고, 젊고 열렬하며 꿈꾸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오디세이아』가 있었다. 힘차고 듣기 좋게, 굳세고 고르게 흘러가는 그 시행들에서는 하얗고 둥근 물의 요정의 팔처럼, 가라앉아

버린 삶, 형식이 맑고 행복했던 삶의 소식과 예감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때로는 힘차게 윤곽을 그은 투박한 한 획 속에서 단단히 손에 잡혔고, 때로는 몇몇 낱말과 시행에서 그저 꿈과 아름다운 예감으로 어렴풋이 비쳐 나왔다.

그 곁에서 역사가 크세노폰과 리비우스는 사라져 버리거나, 적어도 덜 빛나는 별로서 거의 빛도 없이 겸손하게 한쪽에 비켜서 있었다.

한스는 친구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놀라며 알아차렸다. 하일너에게는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머릿속에 그려 보고 상상의 빛깔로 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모두 내키지 않아 하며 내버려 두었다. 그에게 수학은 음흉한 수수께끼를 잔뜩 짊어진 스핑크스였다. 그 차갑고 사악한 눈길은 제물을 꼼짝 못 하게 했고, 그는 그 괴물을 멀찍이 돌아서 피해 다녔다.

두 아이의 우정은 묘한 관계였다. 하일너에게 그것은 즐거움이자 사치, 편안함이거나 변덕이기도 했지만, 한스에게는 때로는 자랑스럽게 지키는 보물이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다. 그때까지 한스는 저녁 시간을 언제나 공부에 썼다. 그런데 이제는 헤르만이 달달 외우기에 싫증이 나면 거의 날마다 건너와서 책을 빼앗고 그를 붙들어 두었다. 마침내 한스는 친구가 그토록 좋으면서도 저녁마다 그가 올까 봐 떨었고, 아무것도 빼먹지 않으려고 의무로 정해진 자습 시간에 두 배로 열심히, 서둘러 공부했다. 하일너가 이론으로까지 그의 부지런함과 싸우기 시작하자 한스는 더욱 괴로웠다.

"그건 날품팔이 노릇이야." 이런 말이 나왔다. "너는 그 공부를 다 좋아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저 선생들이 무섭거나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는 거지. 1등이나 2등을 하면 너한테 무슨 득이 있는데? 나는 20등이지만 그렇다고 너희 공부벌레들보다 멍청하지는 않아."

하일너가 교과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처음 보았을 때도 한스는 기겁을 했다. 한번은 한스가 강의실에 책을 두고 와서, 다음 지리 시간 준비를 하려고 하일너의 지도책을 빌렸다. 그런데 하일너가 지면을 통째로 연필로 칠해 놓은 것을 보고 그는 소름이 끼쳤다. 피레네반도의 서해안은 기괴한 옆얼굴로 그려져 있었는데, 코는 포르투에서 리스본까지 뻗어 있었고, 피니스테레곶 언저리는 곱슬곱슬한 머리 장식으로 꾸며졌으며, 상비센테곶은 멋지게 꼬아 올린 텁수룩한 턱수염의 끝이 되어 있었다. 장마다 그 꼴이었다. 지도 뒷면의 하얀 바탕에는 풍자 그림이 그려지고 뻔뻔한 장난 시가 적혀 있었으며, 잉크 얼룩도 빠지지 않았다. 한스는 제 책을 성물이나 보물처럼 다루는 데 익숙했으므로, 이런 대담한 짓들을 반은 신전 모독으로, 반은 범죄이기는 하나 그래도 영웅다운 위업으로 느꼈다.

착한 기벤라트는 친구에게 그저 기분 좋은 장난감, 말하자면 집고양이 같은 것일 뿐이라고 보일 수도 있었고, 한스 자신도 이따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일너는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렸다. 그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제 말을 들어 주고, 저를 우러러보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 학교와 삶을 두고 혁명적인 연설을 늘어놓을 때 조용히, 귀가 솔깃해서 들어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우울한 때가 찾아오면 위로해 주고, 그 무릎에 머리를 묻을 수 있는 누군가도 필요했다.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이 젊은 시인도 까닭 없는, 조금은 교태 섞인 우울의 발작을 앓았다. 그런 우울의 원인은 한편으로는 어린 영혼이 소리 없이 작별을 고하는 데, 한편으로는 아직 갈 곳 없이 넘쳐흐르는 힘과 예감과 욕망에, 또 한편으로는 사내가 되어 가는 몸의, 아직 깨닫지 못한 어두운 충동에 있다. 그럴 때면 그는 동정받고 귀여움받고 싶은 병적인 욕구에 사로잡혔다. 예전에 그는

어머니의 귀염둥이였고, 아직 여자를 사랑할 만큼 무르익지 않은 지금은 고분고분한 친구가 그의 위로자 노릇을 했다.

그는 곧잘 저녁이면 죽을 만큼 불행한 얼굴로 한스를 찾아와 공부하던 그를 데려가서는, 함께 도르멘트로 나가자고 졸랐다. 거기 차가운 복도에서, 또는 높고 어스레한 기도실에서 둘은 나란히 이리저리 걷거나, 오들오들 떨며 창가에 앉았다. 그러면 하일너는 서정에 젖어 하이네를 읽는 젊은이들처럼 온갖 처량한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조금은 유치한 슬픔의 구름에 휩싸였다. 한스는 그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에게 인상을 남겼고 이따금 그에게 옮아오기까지 했다. 예민한 멋쟁이 문사는 특히 날이 흐리면 발작에 시달렸고, 하소연과 신음은 대개 늦가을의 비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덮고, 그 뒤에서 흐린 베일과 틈새로 내다보며 감상적인 달이 제 길을 그려 가는 저녁에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는 오시안풍의 기분[2]에 흠뻑 빠져 안개 같은 비애 속으로 녹아들었고, 그 비애는 한숨과 말과 시가 되어 아무 죄 없는 한스에게 쏟아졌다.

이런 처량한 수난 장면에 짓눌리고 시달린 한스는 남은 시간이면 서두르듯 공부에 뛰어들었지만, 공부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예전의 두통이 다시 찾아온 것은 그리 놀랍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피곤한 시간이 점점 잦아지고, 꼭 해야 할 것만 하려 해도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는 것이 그를 몹시 걱정스럽게 했다. 그 별난 아이와의 우정이 자기 진을 빼고, 지금껏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제 안의 어떤 부분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다. 그러나 하일너가 어둡고 울적해질수록 한스는 그가 더 안쓰러웠고, 친구에게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의식은 그를 더 다정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 병든 비애의 버릇이 그저 넘쳐 나는 건강하지 못한 충동을 내뿜는 것일 뿐, 본디 하일너의 됨됨이에 속한 것이 아님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하일너를 충실하고 진심으로 우러렀다. 친구가 제 시를 읽어 주거나, 시인으로서 품은 이상을 이야기하거나, 실러와 셰익스피어의 독백을 열정적으로, 큰 몸짓을 섞어 낭송할 때면, 한스에게는 그가 자기에게는 없는 마법의 재주 덕분에 하늘을 거닐고, 신 같은 자유와 불 같은 열정 속에서 움직이며, 호메로스의 하늘 사자처럼 날개 달린 신을 신고 자기와 자기 같은 아이들에게서 멀리 날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때까지 시인들의 세계는 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대수롭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처음으로, 아름답게 흐르는 말과 속이는 그림과 아첨하는 운율의 기만적인 힘을 아무 저항 없이 느꼈고, 새로 열린 이 세계를 향한 경외는 친구를 향한 감탄과 어우러져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감정으로 자라났다.

◆

그사이 등잔 없이는 몇 시간밖에 공부할 수 없는, 폭풍 치는 어두운 11월의 날들이 왔고, 폭풍이 굴러가는 거대한 구름 산들을 캄캄한 하늘 높이 몰아가며 신음하거나 다투듯이 오래되고 튼튼한 수도원 건물에 부딪치는 새카만 밤들이 왔다. 나무들은 이제 잎을 다 떨구었다. 다만 나무 많은 그 고장의 왕인, 우람하고 가지가 울퉁불퉁한 참나무들만은 시든 잎을 단 우듬지로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시끄럽고 퉁명스럽게 웅성거렸다. 하일너는 아주 침울해져서, 요즘은 한스 곁에 앉아 있기보다 외딴 연습실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사납게 켜거나 동급생들과 시비를 붙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저녁 그 방을 찾아가 보니 열성가 루치우스가 악보대 앞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하일너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가 반 시간 뒤에 다시 왔다. 루치우스는 아직도 연습하고 있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하일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연습하려는 사람이 너만 있는 줄 알아? 네 깽깽이질은 그러잖아도 온 동네 골칫거리라고."

루치우스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하일너는 거칠어졌다. 그래도 루치우스가 태연히 다시 긁어 대기 시작하자, 하일너는 악보대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다. 악보가 방 안으로 흩날렸고 악보대가 연주자의 얼굴을 쳤다. 루치우스는 몸을 굽혀 악보를 주웠다.

"원장님한테 이를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하일너가 사납게 소리쳤다. "그럼 내가 덤으로 개 걷어차듯 한 방 공짜로 먹였다는 것도 같이 일러." 그러고는 당장 그 말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루치우스는 옆으로 펄쩍 비켜 달아나 문에 이르렀다. 쫓는 아이가 뒤를 따랐고, 복도와 넓은 방을 지나, 계단과 마루를 넘어, 수도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날개 건물까지 뜨겁고 요란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곳에는 원장 관사가 조용하고 점잖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일너는 원장의 서재 문 바로 앞에서야 겨우 도망자를 따라잡았다. 루치우스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열린 문간에 서 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약속한 발길질을 마저 먹었고,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폭탄처럼 지배자의 지성소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원장은 젊은이들의 타락을 두고 화려한 연설을 했고, 루치우스는 깊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으며, 하일너에게는 무거운 감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처벌은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한 번도 없었네." 원장이 하일너에게 호통쳤다. "자네가 십 년 뒤에도 잊지 못하게 해 주겠네. 나머지 너희에게는 이 하일너를 본보기로 세운다."

학년 전체가 하일너를 겁먹은 눈으로 곁눈질했다. 그는 창백하고 고집스러운 얼굴로 서서 원장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속으로 그를 우러르는 아이가 많았는데도,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떠들썩하게 복도를 메웠을 때 그는 나병 환자처럼 따돌림을 받으며 혼자 남았다. 이제 그의 편에 서려면 용기가 필요했다.

한스 기벤라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제 의무였으리라는 것을 그는 똑똑히 느꼈고, 자신이 비겁하다는 느낌에 괴로웠다. 불행하고 부끄러워서 그는 창가 구석에 몸을 붙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친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고,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거운 감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도원에서 꽤 오랫동안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이제부터 특별히 감시를 받는다는 것, 그와 어울리면 위험하고 평판이 나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국가가 학생들에게 베푸는 은혜에는 날카롭고 엄한 규율이 걸맞아야 한다는 것은 입학식 날의 그 거창한 연설에도 벌써 나왔던 말이다. 한스도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친구에 대한 의무와 공명심 사이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그의 이상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이름난 시험들을 치르고, 한몫하는 데 있었다. 다만 낭만적이고 위험한 몫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겁에 질려 제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아직은 앞으로 나서서 용감해질 수 있었지만, 순간순간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의 배신은 이미 행동이 되어 있었다. 하일너는 그것을 똑똑히 알아차렸다. 이 정열적인 소년은 다들 자기를 피하는 것을 느꼈고 그 까닭도 알았지만, 한스만은 믿고 있었다. 지금 느끼는 아픔과 분노 곁에서는

지금껏 품어 온 알맹이 없는 하소연이 그 자신에게도 공허하고 우습게 보였다. 그는 잠시 기벤라트 곁에 멈춰 섰다. 창백하고 거만한 얼굴로 그는 나직이 말했다. "넌 비열한 겁쟁이야, 기벤라트. 퉤!" 그러고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며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가 버렸다.

다른 생각과 일거리가 젊은이들을 붙들어 둔 것은 다행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갑자기 눈이 내리더니, 이어서 서리가 맑게 내린 겨울 날씨가 찾아왔다. 눈싸움도 하고 스케이트도 탈 수 있었고, 모두가 이제 문득 성탄절과 방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했다. 하일너에게는 눈길이 덜 갔다.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거만한 얼굴로 조용히, 고집스럽게 돌아다니며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고, 검은 방수포 표지에 「한 수도사의 노래」라는 제목을 단 공책에 자주 시를 적었다.

참나무와 오리나무, 너도밤나무와 버드나무에는 서리와 얼어붙은 눈이 섬세하고 환상적인 모양으로 매달렸다. 못마다 맑은 얼음이 추위 속에서 바스락거렸다. 회랑 안뜰은 고요한 대리석 정원처럼 보였다. 즐겁고 들뜬 명절 기분이 방마다 번졌고, 성탄을 앞둔 설렘은 흠잡을 데 없이 점잖은 두 교수에게조차 너그러움과 명랑한 들뜸의 엷은 빛을 입혔다. 교사와 학생 가운데 성탄절에 무덤덤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일너도 덜 이를 악물고 덜 비참해 보이기 시작했고, 루치우스는 방학 때 어떤 책과 어떤 신발 한 켤레를 가져갈지 궁리했다. 집에서 오는 편지에는 아름답고 무언가를 예감하게 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 빵 굽는 날 이야기, 곧 닥칠 깜짝 선물에 대한 귀띔, 그리고 다시 만날 기쁨.

방학을 맞아 떠나기 전에 학년 전체, 특히 헬라스 방은 작고 유쾌한 일을 하나 더 겪었다. 교사들을 저녁 성탄 잔치에 초대하기로 했는데, 잔치는 가장 큰 방인 헬라스 방에서 열기로 했다. 축사 하나, 낭송 둘,

플루트 독주 하나, 바이올린 이중주 하나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우스운 순서도 하나 꼭 넣어야 했다. 아이들은 의논하고 흥정하고, 제안했다가 물리기를 거듭했지만 뜻이 모이지 않았다. 그때 카를 하멜이 지나가는 말로, 가장 웃기는 건 사실 에밀 루치우스의 바이올린 독주일 거라고 했다. 그 말이 먹혔다. 부탁하고 약속하고 으름장을 놓아서, 아이들은 이 불운한 악사가 나서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정중한 초대장과 함께 교사들에게 보낸 프로그램에는 특별 순서로 "「고요한 밤」, 바이올린을 위한 노래, 궁정 연주가 에밀 루치우스 연주"라고 적혔다. 그 칭호는 그가 외딴 음악실에서 부지런히 연습한 덕에 얻은 것이었다.

원장과 교수들, 조교들, 음악 교사와 사환장이 초대를 받아 잔치에 나왔다. 루치우스가 하르트너에게서 빌린 검은 연미복을 입고, 머리를 빗고 옷을 다려 입은 채, 그 부드럽고 겸손한 웃음을 띠고 나서자 음악 교사의 이마에 진땀이 솟았다. 그가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부터가 벌써 웃어 달라는 청 같았다. 「고요한 밤」은 그의 손가락 아래서 가슴을 에는 탄식,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수난의 노래가 되었다. 그는 두 번이나 다시 시작했고, 가락을 찢고 토막 냈으며, 발로 박자를 구르며 서리 내린 날의 나무꾼처럼 일했다.

원장은 즐겁게 음악 교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 교사는 분개해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루치우스는 노래를 세 번째 시작했다가 이번에도 막히자, 바이올린을 내리고 청중 쪽으로 돌아서서 변명했다. "안 되겠습니다. 바이올린 켜 본 게 겨우 지난가을부터라서요."

"됐네, 루치우스." 원장이 외쳤다. "애써 줘서 고맙네. 계속 그렇게 배우게. 고난을 넘어 별로!"

12월 24일에는 새벽 세 시부터 모든 침실이 북적이고 떠들썩했다. 창마다 결이 고운 성에꽃이 두툼하게 피어 있었고, 세숫물은 얼어붙었으며, 수도원 마당에는 살을 에는 엷은 찬바람이 스쳐 갔지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커다란 커피 통들이 김을 올렸고, 곧이어 외투와 목도리로 몸을 감싼 학생들이 어두운 무리를 지어,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들판을 지나고 말없는 숲을 지나 멀리 떨어진 기차역으로 걸어갔다. 모두 수다를 떨고 농담을 하고 큰 소리로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마다 남모를 바람과 기쁨과 기다림으로 가득했다. 온 나라 곳곳, 도시와 마을과 외딴 농가의 따뜻하고 명절답게 꾸민 방에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저희를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대부분에게는 먼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첫 성탄절이었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랑으로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

눈 덮인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역에서 아이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기차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한마음으로 사이좋고 즐겁게 모여 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일너만 말없이 혼자 있었고, 기차가 오자 동급생들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혼자 다른 칸으로 갔다. 다음 역에서 갈아탈 때 한스는 그를 한 번 더 보았지만, 부끄러움과 뉘우침은 잠깐 스쳤을 뿐 집으로 가는 흥분과 기쁨 속에 금세 다시 가라앉았다.

집에 와 보니 아버지는 싱글벙글 흡족해했고, 선물을 그득 차린 탁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벤라트 씨네 집에 제대로 된 성탄절이란 없었다. 노래도, 명절의 들뜬 기쁨도 없었고, 어머니가 없었고, 성탄 나무가 없었다. 기벤라트 씨는 명절을 쇨 줄 몰랐다. 그래도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이번에는 선물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한스는 다른 성탄절을 겪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빛이 좋지 않다고, 너무 마르고 너무 창백하다고 하면서, 수도원에서는 밥을 그렇게 조금 주느냐고 물었다. 그는 극구 아니라고 하면서 잘 지낸다고, 다만 두통이 자주 날 뿐이라고 했다. 이 일로 목사가 그를 위로했는데, 목사도 젊은 시절에 두통을 앓았다고 했다. 그것으로 만사가 해결되었다.

강은 매끈하게 얼어붙어 명절 내내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스는 새 옷을 입고 초록색 신학생 모자를 쓴 채 거의 온종일 밖에서 지냈다. 옛 학교 친구들보다 훌쩍 자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층 높은 세계로 올라가 버린 사람이었다.

---

1. 슈타우펜은 슈바벤 옛 황제 가문의 성터, 촐레른은 프로이센 왕가의 본성, 북쪽의 독수리는 프로이센이다.

2. 오시안은 18세기 스코틀랜드 시인 맥퍼슨이 지어낸 켈트의 옛 음유시인이다.

제4장

겪어 보면 신학생 학년마다 수도원에서 지내는 네 해 동안 동급생 한둘, 혹은 여럿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따금 누군가 죽어서 노랫소리 속에 땅에 묻히거나,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고향으로 옮겨진다. 이따금 누군가 억지로 뛰쳐나가거나, 남다른 죄 때문에 쫓겨난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급반에서만, 어쩔 줄 모르는 어떤 소년이 젊은 날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짧고 어두운 출구를 총 한 방이나 물속으로 뛰어드는 데서 찾는 일도 더러 있다.

한스 기벤라트의 학년에서도 동급생 몇이 사라지게 되어 있었는데, 묘한 우연으로 그들은 모두 헬라스 방 아이들이었다.

헬라스 방 식구 가운데 힌딩거라는 얌전한 금발의 작달막한 아이가 있었다. 별명은 힌두였고, 알고이 땅의 신교도 외톨이 마을 어딘가에 사는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조용한 시민이었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때도 그리 많이는 아니었다. 아끼기 잘하는 궁정 연주가 루치우스와 책상을 나란히 쓰는 짝이었으므로 그 아이와 다정하고 수수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울렸을 뿐, 그 밖에는 친구가 없었다. 그가 없어진 뒤에야 헬라스 방 아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 없는 착한 이웃으로, 툭하면 들끓는 방 생활 속의 한 쉼터로 그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았다.

1월의 어느 날 그는 말 연못으로 나가는 스케이트 패를 따라갔다. 스케이트는 없었고, 그저 한번 구경이나 하려 했다. 그러나 곧 추워져서

몸을 녹이려고 연못가를 쿵쿵 밟으며 돌아다니다가 그만 달리기 시작했고, 들판을 지나 한참 멀리 가다가, 더 따뜻하고 센 샘물 때문에 얼음이 얇게만 언 다른 작은 호수에 이르렀다. 그는 갈대를 헤치고 그쪽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작고 가벼운데도 물가 가까이에서 얼음이 깨져 빠졌고, 잠깐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도 모르게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오후 첫 수업이 두 시에 시작되고서야 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힌딩거는 어디 있나?" 조교가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헬라스 방에 가 보게!"

그러나 거기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늦는 모양이군. 그 아이 없이 시작하세. 74쪽 7절일세.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게. 자네들은 시간을 지켜야 하네."

세 시를 쳤는데도 힌딩거가 여전히 보이지 않자 교사는 겁이 나서 원장에게 사람을 보냈다. 원장은 곧 몸소 교실에 나타나 이것저것 캐묻더니, 학생 열 명을 사환과 조교 한 명에게 딸려 찾으러 보냈다. 남은 학생들에게는 받아쓰기 과제가 주어졌다.

네 시에 조교가 노크도 없이 강의실로 들어와 원장에게 귓속말로 보고했다.

"조용히!" 원장이 명령하자, 학생들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들 동급생 힌딩거가 못에 빠져 죽은 것 같네." 원장이 나직이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이제 그를 찾는 일을 도와야 하네. 마이어 교수가 자네들을 이끌 걸세. 교수가 시키는 대로 어김없이, 한 치도 틀림없이 따라야 하고, 멋대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네."

아이들은 놀라서 속삭이며 길을 나섰고, 교수가 앞장섰다. 작은 도시에서 사내 몇이 밧줄과 널빤지와 장대를 들고 이 서두르는 행렬에 합류했는데, 날은 지독하게 추웠고 해는 벌써 숲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다.

마침내 소년의 작고 뻣뻣한 몸을 찾아내 눈 덮인 골풀 위에서 들것에 올렸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내려 있었다. 신학생들은 겁먹은 새들처럼 불안하게 둘러서서 시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파랗게 곱은 손가락을 비볐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동급생이 그들 앞에서 들려 가고 그들이 말없이 눈 덮인 들판을 지나 그 뒤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졸아든 그들의 영혼에 갑자기 소름이 스쳤고, 노루가 적의 냄새를 맡듯 그들은 무서운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처량하게 떨며 가는 그 작은 무리 속에서 한스 기벤라트는 우연히 예전 친구 하일너 곁을 걷게 되었다. 둘은 들판의 같은 둔덕에 걸려 비틀거린 바로 그 순간에 서로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죽음을 본 것이 그를 압도해서 잠시나마 모든 이기심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스는 뜻밖에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자, 까닭 모를 깊은 아픔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충동에 친구의 손을 잡았다. 하일너는 마뜩잖게 손을 빼고 언짢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곧바로 다른 자리를 찾아 행렬의 맨 뒷줄로 사라졌다.

그러자 모범생 한스는 아픔과 부끄러움으로 가슴이 미어졌고, 얼어붙은 들판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동안 서리에 파래진 뺨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잊을 수 없고 어떤 뉘우침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앞쪽 높이 들린 들것에 누운 것이 재단사의 어린 아들이 아니라 제 친구 하일너이고, 그 친구가 자기의 배신에 대한 아픔과 분노를 멀리 다른 세상으로 가지고 건너가는 것만 같았다.

성적표와 시험과 성공으로 셈하지 않고, 오직 양심이 깨끗한지 더럽혀졌는지로만 셈하는 세상으로.

그사이 행렬은 큰길에 이르렀고, 서둘러 수도원까지 다 왔다. 수도원에서는 원장을 앞세운 교사들이 모두 나와 죽은 힌딩거를 맞았다. 살아서였다면 그런 영광을 생각만 해도 달아났을 아이였다. 교사들은 죽은 학생을 언제나 살아 있는 학생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그럴 때면 그들은 잠시나마 모든 생명과 모든 젊음이 얼마나 값지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지를 깨닫는다. 평소에는 그토록 자주 아무렇지 않게 그 생명과 젊음에 죄를 짓는 그들이.

저녁에도, 이튿날 하루 내내도, 볼품없는 그 주검이 거기 있다는 것이 마법처럼 모든 행동과 말을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고 베일로 감쌌다. 그래서 그 짧은 동안 다툼과 성냄과 소란과 웃음은 숨어 버렸다. 잠시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수면을 꼼짝 않고 죽은 듯 고요하게 남겨 두는 물의 요정들 같았다. 둘이 모여 물에 빠져 죽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별명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죽은 아이 앞에서는 힌두라는 별명이 점잖지 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느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불리지도 않은 채 무리 속에 묻혀 있던 조용한 힌두가, 이제는 그 크나큰 수도원을 온통 제 이름과 제 죽음으로 채웠다.

이틀째 되는 날 힌딩거의 아버지가 와서 아들이 누워 있는 작은 방에 몇 시간 동안 혼자 머물렀고, 그러고 나서 원장에게 차 초대를 받았으며, '사슴' 여관에서 묵었다.

그다음은 장례식이었다. 관은 도르멘트에 놓여 있었고, 알고이의 재단사는 그 곁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독하게 마르고 뾰족한 영락없는 재단사 꼴로,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검은 나들이 연미복에 몸에 꼭 끼는 초라한 바지를 입고, 손에는 옛 민병대 시절의 낡은 예모를 들고 있었다. 작고 여윈 그의 얼굴은 바람 앞의 한 푼짜리

양초처럼 근심스럽고 슬프고 허약해 보였고, 그는 원장과 교수 나리들 앞에서 줄곧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러렀다.

관을 멘 사람들이 관을 들어 올리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슬픈 그 작은 사내는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쑥스럽고 수줍은 다정한 손길로 관 뚜껑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참으며 어쩔 줄 모르고, 크고 고요한 방 한가운데 겨울날의 메마른 어린나무처럼 너무도 버림받고 희망 없이 내던져진 채 서 있어서 차마 보기 딱했다. 목사가 그의 손을 잡고 곁에 있어 주자, 그는 기묘하게 휘어진 실크해트를 쓰고 맨 앞에 서서 관을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가, 수도원 마당을 지나, 오래된 문을 지나, 하얀 들판을 건너 나지막한 묘지 담장 쪽으로. 무덤가에서 신학생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지휘하던 음악 교사에게는 언짢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박자를 젓는 그의 손이 아니라 작달막한 재단사의 외롭고 바람에 날릴 듯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슬프고 얼어붙은 채 눈 속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목사와 원장과 수석 학생의 추도사를 들으며, 노래하는 학생들에게 넋 나간 듯 고개를 끄덕이고, 이따금 왼손으로 웃옷 자락 속에 감춘 손수건을 더듬어 찾았지만 끝내 꺼내지는 않았다.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서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 나중에 오토 하르트너가 말했다. 그러자 모두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나중에 원장이 힌딩거의 아버지를 데리고 헬라스 방에 왔다. "자네들 가운데 고인과 특히 가까웠던 사람이 있나?" 원장이 방 안에 대고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힌두의 아버지는 겁먹고 비참한 눈으로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루치우스가 앞으로 나오자, 힌딩거의 아버지는 그 손을 잡고 잠깐 꼭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곧 공손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났다. 집에 닿아 아내에게 그들의 카를이 이제 어떤

작은 곳에 누워 있는지 이야기해 주기까지, 그는 꼬박 하루 긴 날을 환한 겨울 땅을 가로질러 가야 했다.

◆

수도원에서는 곧 그 마법이 다시 풀렸다. 교사들은 다시 꾸짖었고, 문은 다시 쾅쾅 닫혔으며, 사라진 헬라스 방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몇몇은 그 슬픈 못가에 오래 서 있다가 감기에 걸려 병실에 누워 있거나, 펠트 실내화를 신고 목에 붕대를 감고 돌아다녔다. 한스 기벤라트는 목도 발도 멀쩡했지만, 그 불행한 날 이후로 더 진지하고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소년이 젊은이가 되었고, 그의 영혼은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불안하게, 낯설게 이리저리 날갯짓을 하며 아직 쉴 곳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죽음의 공포도, 착한 힌두를 잃은 슬픔도 아니었다. 오로지 하일너에게 지은 잘못을 갑자기 깨달은 탓이었다.

하일너는 다른 두 아이와 함께 병실에 누워 뜨거운 차를 삼켜야 했고, 힌딩거의 죽음에서 받은 인상들을 정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시를 지을 때 쓰려고 갈무리할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비참하고 괴로워 보였고, 함께 앓는 아이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다시피 했다. 감금 처분 이후 억지로 떠안은 외로움은, 예민하고 남과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잦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를 쓰라리게 만들었다. 교사들은 그를 불만에 찬 혁명가 머리로 여기고 엄하게 감시했고, 학생들은 그를 피했으며, 사환은 빈정거리는 선량함으로 그를 대했고, 그의 친구 셰익스피어와 실러와 레나우는 그를 짓누르고 모욕하며 둘러싼 세상보다 더 힘차고 더 웅대한 다른 세상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처음에는 은자의 우울한 가락에만 맞춰져 있던

「 수도사의 노래 」 는 차츰 수도원과 교사들과 동급생들을 겨냥한 쓰라리고 심술궂은 시의 모음이 되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시큼한 순교자의 즐거움을 맛보았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흡족해했으며, 사정없이 불경스러운 수도사 시를 쓰면서 자기가 작은 유베날리스[1]가 된 것 같았다.

장례식이 있고 일주일 뒤, 두 동급생은 나아서 나가고 하일너 혼자 병실에 남아 있을 때 한스가 그를 찾아갔다. 그는 수줍게 인사하고 의자를 침대 곁으로 가져와 앉더니 환자의 손을 잡았지만, 하일너는 마뜩잖게 벽 쪽으로 돌아누워 도무지 곁을 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예전 친구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하일너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비죽였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한스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말 좀 들어." 한스가 말했다. "그때 나는 비겁했고 너를 내버려 뒀어. 하지만 넌 내가 어떤지 알잖아. 신학교에서 늘 앞자리에 있고, 될 수 있으면 아예 1등이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었어. 넌 그걸 공부벌레 노릇이라고 했지.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그냥 내 나름의 이상이었어. 그보다 나은 걸 몰랐으니까."

하일너는 눈을 감고 있었고, 한스는 아주 나직이 말을 이었다. "있지, 미안해. 네가 다시 내 친구가 되어 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날 용서는 해 줘야 해."

하일너는 입을 다문 채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안에 있는 선하고 기쁜 것은 모두 친구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퉁명스럽고 외로운 사람 역할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분간은 적어도 그 가면만은 얼굴에 쓰고 있었다. 한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야 해, 하일너! 차라리 꼴찌가 될래. 이렇게 언제까지나 네 둘레를 맴도느니. 네가 좋다면 우린 다시 친구야. 다른 애들한테 우린 걔들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 주자."

그러자 하일너가 그의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떴다.

며칠 뒤 하일너도 침대를 털고 병실을 나왔고, 새로 구워 낸 이 우정을 두고 수도원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두 아이에게는 이제 묘한 몇 주가 찾아왔다. 이렇다 할 사건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한 한 식구라는 느낌과 말 없는 남모를 마음의 일치로 가득한 나날이었다. 예전과는 무언가 달랐다. 몇 주 동안 떨어져 지낸 것이 둘을 바꾸어 놓았다. 한스는 더 다정하고 따뜻하고 열에 들뜨게 되었고, 하일너는 더 힘차고 사내다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둘 다 그동안 서로를 너무나 그리워했던 터라, 다시 하나가 된 것이 큰 사건이자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일찍 여문 두 소년은 우정 속에서, 예감 어린 수줍음으로, 첫사랑의 섬세한 비밀을 저도 모르게 조금 미리 맛보았다. 거기에 더해 그들의 동맹에는 무르익어 가는 사내다움의 떫은 매력이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떫은 양념으로 동급생 전체에 맞서는 반항심이 있었다. 동급생들에게 하일너는 여전히 밉살스러웠고 한스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아이였으며, 그들이 맺은 숱한 우정은 그때만 해도 모두 아직 해롭지 않은 소년들의 장난이었다.

한스가 우정에 더 깊이, 더 행복하게 매달릴수록 학교는 그에게 낯설어졌다. 새로운 행복감이 햇포도주처럼 그의 핏속과 생각 속을 끓어오르며 지나갔고, 그 곁에서 리비우스도 호메로스도 중요성과 빛을 잃었다. 그런데 교사들은 지금까지 흠잡을 데 없던 학생 기벤라트가 문제 많은 아이로 바뀌어, 수상쩍은 하일너의 나쁜 영향에 넘어간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교사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잖아도

위태로운 나이, 젊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나이에 일찍 자란 소년들의 기질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다. 하일너는 예전부터 어떤 천재 기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들에게 섬뜩한 아이였다. 천재와 교사 동업 조합 사이에는 예로부터 깊은 골이 굳게 패어 있고, 학교에서 그런 사람의 낌새가 보이면 교수들에게는 처음부터 질색할 일이다. 그들에게 천재란 그들을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 못된 아이들, 열네 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열다섯에 사랑에 빠지고, 열여섯에 술집에 드나들며, 금서를 읽고 건방진 작문을 쓰고 이따금 선생을 빈정대며 노려보고, 학적부에 반항아이자 감금실 후보로 오르는 아이들이다. 훈장은 제 반에 천재 하나를 두느니 소문난 당나귀 열을 두고 싶어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말도 옳다. 그의 과제는 엉뚱한 정신을 길러 내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 잘하고 셈 잘하는 착실한 사람들을 길러 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상대에게서 더 많이, 더 무겁게 괴로움을 당하는지, 교사가 소년에게서인지 그 반대인지, 둘 가운데 누가 더 폭군이고 누가 더 사람을 들볶는 귀신인지, 둘 가운데 누가 상대의 영혼과 삶의 한 부분을 망치고 더럽히는지, 그것은 쓰라려지지 않고서는, 분노와 부끄러움 없이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따져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위안이 있다. 참된 천재들은 거의 언제나 상처가 잘 아물고, 학교에 아랑곳없이 훌륭한 작품을 지어내는 사람이 되며, 훗날 죽어서 아득한 거리가 주는 기분 좋은 후광에 둘러싸이면, 다른 세대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훈장들이 자랑거리이자 고귀한 본보기로 내보이는 사람이 된다. 그리하여 학교마다 법과 정신이 싸우는 연극이 되풀이되고, 우리는 거듭거듭 국가와 학교가 해마다 나타나는, 더 깊고 더 값진 몇 안 되는 정신을 때려죽이고 뿌리째 꺾으려고 숨 가쁘게 애쓰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거듭거듭 나중에 우리 민족의 보물을 늘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훈장들에게 미움받던 아이들, 자주 벌받고 달아나고 쫓겨난 아이들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그 수가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는가?) 말없는 반항 속에 스스로를 태우다가 스러진다.

좋고 오래된 학교의 원칙에 따라, 이 두 별난 젊은이에게도 무언가 수상한 냄새가 나자마자 사랑이 아니라 엄격함이 곱절이 되었다. 다만 한스를 가장 부지런한 히브리어 학생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원장만은 서투르게나마 그를 건져 보려 했다. 원장은 그를 집무실로 불렀다. 옛 수도원장 거처의, 돌출창이 달린 그림 같은 아름다운 방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가까운 크니틀링겐에서 태어난 파우스트 박사[2]가 그곳에서 엘핑거 포도주를 여러 잔 즐겼다고 한다. 원장은 모난 사람이 아니었다. 통찰력과 실제적인 지혜도 모자라지 않았고, 즐겨 말을 놓던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선량한 호의까지 품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결점은 지독한 허영심이었다. 그 허영심은 그를 교단에서 자주 허풍스러운 재주 부리기로 이끌었고, 제 권력과 권위가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꼴을 참지 못하게 했다. 그는 어떤 반론도 견디지 못했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줏대 없거나 정직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와 아주 잘 지냈지만, 바로 굳세고 정직한 아이들은 힘들었다. 아주 살짝 내비친 반대에도 그는 사나워지고 부당해졌기 때문이다. 격려하는 눈길과 감동한 목소리로 아버지 같은 친구 노릇을 하는 데는 그가 거장이었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리에 앉게, 기벤라트." 쭈뼛거리며 들어온 소년의 손을 힘주어 잡아 흔든 뒤 원장이 다정하게 말했다.

"자네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 그런데 말을 놓아도 되겠나?"

"네, 그러십시오, 원장님."

"기벤라트, 너도 느꼈겠지만 요즘 네 성적이 좀 떨어졌다. 적어도 히브리어는 그래. 너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갑자기 처지는 것을 보니 안타깝구나. 혹시 히브리어에 더는 별 재미를 못 느끼는 거냐?"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원장님."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일도 있는 법이다. 혹시 다른 과목에 유난히 마음을 쏟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원장님."

"정말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까닭을 찾아봐야겠구나. 실마리를 좀 줄 수 있겠니?"

"모르겠습니다… 숙제는 늘 다 해 왔습니다…"

"물론이지, 얘야, 물론이지. 하지만 같아 보여도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 법이야. 숙제야 당연히 했겠지. 그건 네 의무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전에는 더 많이 해냈다. 아마 더 부지런했을 테고, 어쨌든 더 큰 관심을 기울여 공부했지. 그래서 네 열성이 이렇게 갑자기 식은 까닭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구나. 설마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니면 두통이 나느냐? 하기야 혈색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네, 이따금 두통이 납니다."

"날마다 하는 공부가 너무 많으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따로 책을 많이 읽느냐? 솔직하게 말해 봐라!"

"아닙니다. 거의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잘 모르겠구나, 젊은 친구. 어딘가 탈이 났을 텐데. 앞으로 제대로 애써 보겠다고 약속하겠니?"

한스는 엄숙하고도 온화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권력자가 내민 오른손에 제 손을 얹었다.

"그래, 그래야지, 얘야. 그저 지치지만 마라. 지치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고 만다."

원장은 한스의 손을 꼭 쥐었고, 한스는 한숨을 돌리며 문 쪽으로 갔다. 그때 원장이 그를 다시 불렀다.

"하나 더 있다, 기벤라트. 너 하일너하고 많이 어울리지?"

"네, 꽤 많이 어울립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너희 둘은 사실 성질이 아주 딴판이잖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친구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네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불만 많고 들뜬 정신이야. 재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내는 것이 없고 너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네가 그 아이를 좀 더 멀리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어떠냐?"

"그럴 수 없습니다, 원장님."

"그럴 수 없다고? 아니, 대체 왜?"

"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를 그냥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흠. 하지만 다른 아이들하고도 좀 더 어울릴 수 있지 않느냐? 이 하일너의 나쁜 영향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건 너 하나뿐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벌써 보고 있다. 대체 그 아이의 무엇이 그렇게 너를 붙잡는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좋아하고, 그 애를 버리는 건 비겁한 짓일 겁니다."

"그래, 그래. 뭐,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마. 하지만 차츰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구나. 정말 좋겠어."

마지막 말에는 아까의 온화함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제 한스는 가도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 공부에 매달려 애를 썼다. 물론 예전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무 뒤처지지 않으려고 힘겹게 따라가는 정도였다. 그것이 얼마간 우정 탓이라는 것은 그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우정을 손실이나 걸림돌로 보지 않고, 오히려 놓친 모든 것을 메우고도 남는 보물로 보았다. 예전의 메마른 의무의 나날과는 견줄 수도 없는, 더 높고 더 따뜻한 삶이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과 같았다. 위대한 영웅의 행동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날마다 되풀이되는 따분하고 자잘한 공부는 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거듭 멍에를 졌다. 대충대충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빠르게, 거의 억지로 서둘러 머리에 넣는 하일너를 따라 할 줄은 몰랐다. 친구가 거의 저녁마다 쉬는 시간에 그를 붙들어 두었으므로, 그는 아침에 억지로 한 시간 일찍 일어났고, 특히 히브리어 문법과는 원수와 싸우듯 씨름했다. 그가 아직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호메로스와 역사 시간뿐이었다. 그는 어렴풋이 더듬는 느낌으로 호메로스의 세계를 알아 가기 시작했고, 역사 시간에는 영웅들이 차츰 이름과 숫자이기를 그치고, 가까이에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 있는 붉은 입술을 지니고, 저마다 제 얼굴과 제 손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이는 붉고 두툼하고 거친 손을, 어떤 이는 고요하고 차갑고 돌 같은 손을, 또 어떤 이는 가늘고 뜨겁고 핏줄이 섬세하게 비치는 손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는 이따금 인물들이 또렷하고 가깝게 다가오는 데 놀라고, 아니 압도당하곤 했다. 특히 한번은 마가복음 6장을 읽을 때였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대목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에우튀스 에피그논테스

아우톤 페리에드라몬(εὐθυς ἐπιγνόντες αὐτον περιεδραμον). "그들은 곧 그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그러자 그도 인자(人子)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곧 그를 알아보았다. 모습이나 얼굴로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눈의 크고 빛나는 깊이와, 섬세하면서도 강한 영혼이 빚고 깃든 듯한 가늘고 아름다운 갈색 손이 나직이 손짓하는, 아니 오라고 부르며 반기는 몸짓으로 알아보았다. 물결이 이는 물가와 무거운 거룻배의 뱃머리가 잠깐 함께 떠올랐다가, 그 광경 전체가 겨울날 피어오르는 입김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따금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 책 속에서 어떤 인물이나 역사의 한 토막이 말하자면 걸신들린 듯 튀어나와, 한 번 더 살고 싶어 하고 살아 있는 눈에 제 눈길을 비추고 싶어 했다. 한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의아해했다. 언제나 벌써 다시 달아나고 있는 그 재빠른 환영들 앞에서 그는 자기가 깊고 기이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다. 검은 땅을 유리처럼 꿰뚫어 본 것 같기도 했고, 하느님이 자기를 바라본 것 같기도 했다. 이 귀한 순간들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왔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사이에 사라졌다. 순례자나 다정한 손님처럼. 둘레에 무언가 낯설고 신성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감히 말을 걸지도 머물러 달라고 붙잡지도 못하는 그런 손님들처럼.

그는 이런 체험을 혼자 간직했고 하일너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일너에게서는 예전의 우울이 들뜨고 날카로운 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정신은 수도원과 교사와 동급생, 날씨와 인생과 하느님의 존재를 두고 비판을 늘어놓았고, 이따금 싸움 거는 버릇이나 갑작스럽고 멍청한 장난으로 번지기도 했다. 어차피 따로 떨어져 다른 아이들과 맞서 있는 처지였으므로, 그는 앞뒤 가리지 않는 자존심으로 이 맞섬을 고집스럽고 적대적인 관계로 아예 날카롭게 벼리려 했다. 기벤라트도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은 채 그 관계에 함께 휘말려 들었고, 그리하여 두

친구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눈에 띄고 미움 섞인 눈총을 받는 섬처럼 놓이게 되었다. 한스는 그러는 동안 차츰 덜 불편해졌다. 원장만 없었으면 좋으련만. 원장 앞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원장이 가장 아끼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차갑게 대접받고 뚜렷한 의도로 무시당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원장의 전공 과목인 히브리어에 그는 차츰 흥미를 몽땅 잃었다.

몇 안 되는 제자리걸음을 빼면, 신학생 마흔 명이 불과 몇 달 만에 몸도 마음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는 것은 재미있었다. 많은 아이가 옆으로는 살이 붙지 못한 채 위로만 부쩍 자랐고, 따라 자라지 못한 옷 밖으로 팔목과 발목을 희망차게 내밀었다. 얼굴들은 사그라지는 어린티와 머뭇머뭇 뽐내기 시작한 사내다움 사이의 온갖 빛깔을 다 보여주었다. 아직 몸에 성장기의 모난 꼴이 없는 아이도, 모세의 책들을 공부한 덕에 적어도 매끈한 이마에는 임시로나마 사내다운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볼 통통한 아이는 그야말로 희귀해졌다.

한스도 달라졌다. 키와 여윈 정도는 이제 하일너와 맞먹었고, 아니 오히려 하일너보다 나이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예전에는 여리게 비쳐 보이던 이마의 모서리가 두드러졌고, 눈은 더 깊이 들어갔으며, 얼굴빛은 건강하지 못했고, 팔다리와 어깨는 뼈가 앙상하게 말랐다.

학교 성적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수록, 그는 하일너의 영향을 받아 더 모질게 동급생들과 담을 쌓았다. 모범생이자 앞날의 수석으로서 그들을 내려다볼 까닭이 이제 없었으므로, 그 거만함은 그에게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들 그것을 그에게 내비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도 속으로 그것을 아프게 느낀다는 것을 그는 그들에게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흠잡을 데 없는 하르트너와 건방진 오토 벵거와는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 벵거가 어느 날 또 그를 비웃고 약을 올리자, 한스는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대꾸했다. 심한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벵거는

겁쟁이였지만 허약한 상대쯤은 쉽게 해치울 수 있었으므로 사정없이 두들겼다. 하일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아이들은 한가하게 구경하며 한스가 혼나는 것을 고소해했다. 한스는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맞아 코피가 나고 갈비뼈가 모조리 아팠다. 그는 부끄럽고 아프고 분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 일을 친구에게 숨겼지만, 이제부터 엄하게 담을 쌓고 같은 방 친구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다시피 했다.

봄이 가까워지자, 비 오는 한낮과 비 오는 일요일과 긴 땅거미의 영향으로 수도원 생활에 새로운 모임과 움직임이 나타났다. 솜씨 좋은 피아노 연주자 하나와 플루트 부는 아이 둘이 사는 아크로폴리스 방은 정기 음악의 밤을 두 가지 열었고, 게르마니아 방에서는 희곡 낭독회가 문을 열었으며, 젊은 경건주의자 몇은 성경 모임을 차려 저녁마다 성경 한 장을 칼프 성경의 주해와 함께 읽었다.

하일너는 게르마니아 방의 낭독회에 회원으로 들겠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분해서 펄펄 끓었다. 앙갚음으로 그는 이번에는 성경 모임에 들어갔다. 거기서도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억지로 끼어들었고, 대담한 말과 불경한 빗댐으로 그 수수한 작은 형제단의 경건한 대화에 다툼과 불화를 몰고 왔다. 그는 곧 이 장난에도 싫증이 났지만, 성경을 비꼬는 말투만은 한동안 더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학년 전체가 이제 일을 벌이고 무언가를 세우려는 기운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입에 오르내린 것은 재능 있고 재치 있는 스파르타 방 아이 하나였다. 그 아이에게는 제 이름을 날리는 것 다음으로는 오로지 이 소굴에 생기를 좀 불어넣고, 갖가지 재치 있는 장난으로 단조로운 공부 생활에서 자주 숨을 돌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의 별명은 둔스탄이었고, 그는 소동을 일으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는 기발한 길을 찾아냈다.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침실에서 나오다가 세면실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스파르타에서 온 경구시 여섯 편」이라는 제목 아래, 눈에 띄는 동급생 몇을 골라 그들의 어리석은 짓과 장난과 우정을 이행시로 재치 있게 비웃은 글이었다. 기벤라트와 하일너 짝도 한 방 먹었다. 이 작은 나라에 엄청난 소동이 일었다. 아이들은 극장 입구에 몰리듯 그 문 앞에 몰려들었고, 온 무리가 여왕벌이 날아오를 채비를 하는 벌 떼처럼 웅웅거리고 밀치고 수군거렸다.

이튿날 아침에는 문 전체가 경구시와 풍자 이행시로 뒤덮여 있었다. 응수하는 시, 맞장구치는 시, 새로 공격하는 시였다. 그러나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거기에 다시 끼어들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헛간에 불씨를 던져 넣겠다는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는 손을 비비며 흐뭇해했다. 이제 며칠 동안 거의 모든 학생이 풍자시 싸움에 뛰어들었다. 저마다 이행시 한 수를 궁리하며 생각에 잠겨 돌아다녔고, 아마 루치우스만이 여느 때처럼 아랑곳없이 제 공부를 했을 것이다. 마침내 한 교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 들뜬 놀이를 더는 하지 못하게 막았다.

꾀 많은 둔스탄은 얻은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사이에 그는 큰 한 방을 준비해 두었다. 이제 그는 신문 창간호를 냈다. 초안 용지에 아주 작은 판형으로 등사한 것으로, 몇 주 전부터 거기에 실을 거리를 모아 두었다. 제목은 『호저』였고, 주로 우스개 신문이었다.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과 마울브론 신학생이 주고받는 유쾌한 대화가 창간호의 백미였다. 신문은 방마다 두 부씩 공짜로 돌렸고, 앞으로는 한 주에 두 번 나오며 값은 5페니히라고 했다. 수익금은 놀이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성공은 대단했다. 이제 바쁜 편집자이자 발행인의 표정과 몸가짐을 갖춘 둔스탄은, 수도원에서 한때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저 이름난 아레티노[3]가 누렸던 것과 거의 같은 아슬아슬한 평판을 누렸다.

헤르만 하일너가 열정적으로 편집에 끼어들어 둔스탄과 함께 날카로운 풍자 검열관 노릇을 하자 모두가 놀랐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재치도 독기도 모자라지 않았다. 네 주쯤 이 작은 신문은 온 수도원을 숨죽이게 했다.

기벤라트는 친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자신은 거기 끼어들 마음도 재주도 없었다. 처음에는 하일너가 요즘 들어 저녁을 그렇게 자주 스파르타 방에서 보낸다는 것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 다른 일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낮이면 그는 굼뜨고 멍하니 돌아다녔고, 느릿느릿 마지못해 공부했으며, 한번은 리비우스 시간에 묘한 일을 겪었다.

교수가 그를 불러 번역을 시켰다. 그는 앉은 채로 있었다.

"무슨 짓인가? 왜 일어서지 않나?" 교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한스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고개를 조금 숙이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부르는 소리에 꿈에서 반쯤 깨어나기는 했지만, 교사의 목소리는 아주 먼 데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옆자리 아이가 그를 세게 쿡쿡 찌르는 것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다른 손들이 그를 만지고 다른 목소리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가깝고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들이었는데, 그 목소리들은 낱말을 말하지 않고 샘물 소리처럼 깊고 부드럽게 웅얼거리기만 했다. 그리고 많은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낯설고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크고 빛나는 눈들이었다. 어쩌면 방금 리비우스에서 읽은 로마 군중의 눈일지도 몰랐고, 어쩌면 꿈에서 보았거나 언젠가 그림에서 본 낯모르는 사람들의 눈일지도 몰랐다.

"기벤라트!" 교수가 소리를 질렀다. "자고 있는 건가?"

학생은 천천히 눈을 뜨고 놀란 듯 교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자고 있었군! 아니면 우리가 어느 문장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겠나? 어서?"

한스는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켰다.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이제 일어서 주시기라도 하겠나?" 교수가 비웃듯 물었다. 그러자 한스는 일어섰다.

"대체 무슨 짓인가? 나를 보게!"

한스는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교수는 그 눈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의아한 듯 고개를 저었다.

"어디 몸이 안 좋은가, 기벤라트?"

"아닙니다, 교수님."

"도로 앉게.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오게."

한스는 앉아서 리비우스 책 위로 몸을 구부렸다. 그는 완전히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알아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눈은 그 많은 낯선 형상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형상들은 천천히 아득한 곳으로 멀어지면서도 빛나는 눈을 줄곧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가, 마침내 저 멀리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와 함께 교사의 목소리와 번역하는 학생의 목소리, 교실의 온갖 자잘한 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마침내 여느 때처럼 다시 생생하게 눈앞에 있었다. 의자와 교단과 칠판이 늘 그렇듯 거기 있었고, 벽에는 커다란 나무 컴퍼스와 삼각자가 걸려 있었으며, 둘레에는 동급생들이 모두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아이가 호기심 어린 뻔뻔한 눈으로 그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오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업이 끝나자 교수는 그에게 손짓을 하고, 눈을 휘둥그레 뜬 동급생들 사이로 그를 데리고 나갔다.

"자, 말해 보게. 대체 무슨 일이었나? 그러니까 잔 건 아니라는 건가?"

"아닙니다."

"내가 불렀을 때 왜 일어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 말을 못 들었나? 귀가 어두운가?"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서지 않았다? 그 뒤에도 눈빛이 아주 이상하더군. 대체 무슨 생각을 했나?"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일어서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서지 않았나? 그러니까 역시 몸이 안 좋았던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통이 났나?"

"아닙니다."

"됐네. 가 보게."

점심 전에 그는 다시 불려 나가 침실로 끌려갔다. 거기서 원장이 군청 의사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찰을 받고 이것저것 질문을 받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는 사람 좋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경이 좀 탈이 난 겁니다, 원장님." 의사가 부드럽게 킬킬거렸다. "잠깐 기력이 떨어진 상태지요. 가벼운 어지럼증 같은 겁니다. 이 젊은이가 날마다 바깥바람을 쐬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두통에는 물약을 몇 방울 처방해 드리지요."

그때부터 한스는 날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한 시간씩 바깥에 나가야 했다. 그는 싫지 않았다. 더 고약하게도 원장은 이 산책에 하일너가 따라가는 것을 딱 잘라 금했다. 하일너는 펄펄 뛰며 욕을 했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스는 늘 혼자 산책을 나갔고, 거기서 얼마간 즐거움을 찾았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둥글고 아름답게 솟은 언덕들 위로 움트는 초록이 엷고 밝은 물결처럼 번져 갔고, 나무들은 날카로운 윤곽의 갈색 그물 같은 겨울 모습을 벗어 버리고, 어린잎의 아롱거림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풍경의 빛깔 속으로 녹아들어, 끝없이 흘러가는 살아 있는 초록의 큰 물결이 되었다.

예전 라틴어 학교 시절에 한스는 봄을 이번과 다르게 바라보았다. 더 생기 있고 더 호기심에 차서, 더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돌아오는 새들을 한 종류 한 종류 지켜보았고, 나무에 꽃이 피는 차례를 보았으며, 그러다 5월이 되자마자 낚시를 시작했다. 이제 그는 새의 종류를 가려내거나 꽃눈으로 덤불을 알아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온통 피어나는 움직임과 곳곳에서 돋아나는 빛깔을 보고, 어린잎의 냄새를 들이마시고, 더 부드럽고 들끓는 공기를 느끼며, 의아한 마음으로 들판을 걸어갈 뿐이었다. 그는 곧 피곤해졌고, 늘 눕고 싶고 잠들고 싶었으며, 거의 끊임없이 실제로 자기를 둘러싼 것과는 다른 온갖 것들을 보았다.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고, 그것을 곰곰이 따져 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밝고 여리고 낯선 꿈들이었다. 그 꿈들은 초상화처럼, 혹은 낯선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 길처럼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순수한 그림들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하나의 체험이었다. 그것은 다른 고장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데려가지는 일이었다. 낯선 땅, 부드럽고 밟기 좋은 땅 위를 거니는 일이었고, 낯선 공기, 가볍고 섬세한 꿈의 향신료가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이었다. 그 그림들 대신

이따금 어떤 느낌이 찾아오기도 했다. 어둡고 따뜻하고 설레는 느낌, 가벼운 손 하나가 부드럽게 그의 몸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책을 읽고 공부할 때 한스는 정신을 모으기가 몹시 힘들었다. 관심 없는 것은 그림자처럼 그의 손 밑에서 빠져나갔고, 히브리어 낱말은 수업 시간에 기억하고 있으려면 마지막 반 시간에야 외워야 했다. 그러나 읽는 동안 묘사된 모든 것이 갑자기 눈앞에 서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몸으로 만져질 듯한 그 환영의 순간들은 자주 찾아왔다. 그 환영은 바로 곁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실제 같았다. 그리고 기억력이 더는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의 날마다 더 굼뜨고 불안해진다는 것을 절망 속에 알아차리는 동안, 이따금 오래된 기억들이 섬뜩할 만큼 또렷하게 그를 덮쳤고, 그것이 그에게는 기묘하고 두려웠다. 수업 도중이나 책을 읽다가 이따금 아버지나 늙은 안나, 또는 예전 선생이나 옛 동급생 가운데 누군가가 떠올라, 눈앞에 보이듯 서서 한동안 그의 주의를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슈투트가르트에 머물던 때와 주 시험과 방학의 장면들도 몇 번이고 다시 겪었고,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앉아 햇볕 받은 물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를 맡는 자기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꿈꾸는 그 시절이 까마득히 긴 세월 저편에 있는 것만 같았다.

미지근하고 축축하고 캄캄한 어느 저녁, 그는 하일너와 함께 도르멘트를 이리저리 거닐며 집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낚시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눈에 띄게 말이 없었다. 그는 한스가 말하게 내버려 두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루 온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던 작은 자로 생각에 잠겨 허공을 몇 번 내리쳤다. 차츰 한스도 말이 없어졌다. 밤이 되었고, 둘은 창턱에 걸터앉았다.

"있지, 한스?" 마침내 하일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들떠 있었다.

"왜?"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말해 봐!"

"그냥 생각했는데… 네가 이것저것 얘기하길래…"

"뭘?"

"말해 봐, 한스. 너 여자애 꽁무니 따라다녀 본 적 한 번도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한스는 그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 수수께끼 같은 땅은 동화 속 정원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고, 손가락이 떨렸다.

"딱 한 번." 그가 속삭였다. "그땐 아직 멍청한 꼬마였어."

다시 침묵.

"…그럼 너는, 하일너?"

하일너는 한숨을 쉬었다.

"아, 그만둬! 있지, 그런 얘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해 봤자 아무 소용없거든."

"아니야, 해 봐."

"…나, 애인 있어."

"네가? 정말이야?"

"고향에. 이웃집 애야. 그리고 이번 겨울에 그 애한테 입맞춤을 해 줬어."

"입맞춤을…?"

"응. 있지, 벌써 어두웠어. 저녁에, 얼음판에서 말이야. 그 애가 스케이트 벗는 걸 내가 도와줘도 됐거든. 그때 입맞춤을 해 줬어."

"그 애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말은 안 했어. 그냥 달아나 버렸지."

"그래서?"

"그래서라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고, 한스는 금지된 정원에서 돌아온 영웅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종이 울렸다. 잘 시간이었다. 등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잠해진 뒤에도 한스는 침대에 누워 한 시간 넘게 잠들지 못하고, 하일너가 애인에게 해 준 입맞춤을 생각했다.

이튿날 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끄러웠고, 하일너는 한스가 묻지 않으니 제 쪽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쑥스러웠다.

학교에서 한스의 처지는 점점 나빠졌다. 교사들은 언짢은 얼굴을 짓고 이상한 눈길을 쏘아 보내기 시작했고, 원장은 어둡고 성난 얼굴이었으며, 동급생들도 기벤라트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앉아 수석을 노리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진작 알아차렸다. 하일너만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자신에게 학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스 자신은 모든 것이 일어나고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사이 하일너는 신문 편집에 싫증이 나서 온전히 친구에게로 돌아왔다. 금지령에도 아랑곳없이 그는 몇 번이나 한스의 날마다의 산책에 따라나서서, 함께 햇볕 아래 누워 꿈꾸고, 시를 읽어 주거나 원장을 두고 농담을 했다. 한스는 하일너가 연애 모험담을 계속 털어놓아 주기를 날마다 바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동급생들 사이에서 둘은 여느 때 못지않게 인기가 없었다. 하일너가 『호저』에 실은 심술궂은 우스개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어차피 이 무렵 문을 닫았다. 한물간 데다, 애초에 겨울과 봄 사이의 따분한 몇 주만 내다보고 꾸린 신문이었다. 이제는 시작된 좋은

계절이 식물 채집과 산책과 바깥 놀이로 즐길 거리를 넉넉히 주었다. 날마다 점심때면 체조하는 아이, 씨름하는 아이, 달리기 하는 아이, 공치는 아이들이 수도원 앞마당을 고함과 생기로 채웠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큰 소동이 더해졌는데, 그 장본인이자 한복판에 선 것은 이번에도 모두의 눈엣가시인 헤르만 하일너였다.

원장은 사랑 많은 동급생들에게서, 하일너가 자기 금지령을 비웃으며 거의 날마다 산책하는 기벤라트를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는 한스를 내버려 두고 주범이자 오랜 적수인 하일너만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원장은 그에게 말을 놓았고, 하일너는 그러지 말라고 당장 잘라 말했다. 원장은 그의 불복종을 나무랐다. 하일너는 자기는 기벤라트의 친구이며, 아무도 둘이 어울리는 것을 금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고약한 장면이 벌어졌고, 그 결과 하일너는 몇 시간 감금과 함께 당분간 기벤라트와 함께 외출하지 말라는 엄한 금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튿날 한스는 공식 산책을 다시 혼자 나갔다. 그는 두 시에 돌아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갔는데, 수업이 시작되자 하일너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힌두가 사라졌을 때와 똑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아무도 늦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세 시에 학년 전체가 교사 셋과 함께 사라진 아이를 찾아 나섰다. 아이들은 흩어져 숲속을 뛰어다니며 소리쳐 불렀고, 몇몇은, 교사 둘까지도, 그가 제 몸을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섯 시에 그 일대의 모든 경찰서에 전보가 갔고, 저녁에는 하일너의 아버지에게 속달 편지가 부쳐졌다. 밤늦도록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고, 밤이 깊도록 모든 침실에서 소곤소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가 물에 뛰어들었으리라는 짐작을 가장 많이 믿었다. 그냥 집으로 가 버렸을 거라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달아난 아이가 돈을 거의 지니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었다.

다들 한스가 그 일을 알고 있을 거라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누구보다 놀라고 근심했다. 밤에 침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묻고 짐작하고 지어내고 농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불 속 깊숙이 파고들어 친구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오랫동안 고약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졸아든 그의 가슴을 사로잡아 겁먹은 아픔으로 그를 채웠고, 그러다 그는 지치고 근심에 싸인 채 잠이 들었다.

같은 시각, 하일너는 몇 마일 떨어진 어느 덤불숲에 누워 있었다.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깊은 해방감 속에 크게 숨을 들이쉬고 팔다리를 쭉 폈다. 좁은 우리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다. 그는 한낮부터 걸었고, 크니틀링겐에서 빵을 샀으며, 이제 이따금 한 입씩 뜯어 먹으며, 아직 봄빛으로 성긴 나뭇가지 사이로 새카만 밤과 별과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결국 어디에 닿든 그는 상관없었다. 적어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수도원에서 빠져나왔고, 원장에게 제 의지가 명령과 금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튿날 하루 내내 사람들은 그를 찾았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두 번째 밤을 어느 마을 근처 들판의 짚단 사이에서 보내고, 아침에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가 저녁 무렵 다시 마을에 들르려다가 순경에게 붙잡혔다. 순경은 다정하게 놀리며 그를 맞아 시청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는 재치와 아첨으로 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촌장은 그를 제 집으로 데려가 재워 주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햄과 달걀을 배불리 먹였다. 이튿날 그사이 달려온 아버지가 그를 데려갔다.

달아났던 아이가 끌려오자 수도원은 크게 술렁였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고, 저의 작은 천재 여행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교사 회의라는 비밀 재판 앞에서도 결코 머뭇거리거나 공손하지 않았다. 그를 붙들어 두려고들 했지만, 이제는 더 참아 줄 수 없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퇴학당했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다. 친구 기벤라트와는 악수 한 번으로밖에 작별하지 못했다.

이 유례없는 반항과 타락의 사태를 두고 원장이 한 거창한 연설은 아름답고 힘찼다. 슈투트가르트의 상급 관청에 보낸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얌전하고 사무적이고 맥이 없었다. 신학생들에게는 떠나간 괴물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한스 기벤라트는 물론 그 말에 그저 웃기만 했다. 몇 주 동안이나 하일너와 그의 도주만큼 많이 입에 오르내린 이야기는 없었다.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흘러가자 모두의 평가가 바뀌었고, 그때는 겁을 내며 피했던 그 도망자를 나중에는 날아가 버린 독수리를 바라보듯 바라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헬라스 방에는 이제 빈 책상이 둘이었다. 나중에 잃은 친구는 앞의 친구처럼 빨리 잊히지 않았다. 원장만은 두 번째 아이 역시 조용히, 뒤탈 없이 정리되었다고 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일너는 수도원의 평화를 어지럽힐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친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에게서는 편지 한 장 오지 않았다. 그는 떠났고 소식이 끊겼다. 그의 모습과 그의 도주는 차츰 옛이야기가 되었고, 마침내 전설이 되었다. 이 열정적인 소년은 그 뒤로도 천재다운 장난과 방황을 여러 번 더 겪은 끝에 삶의 고통 속에서 엄한 단련을 받았고,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꼿꼿하고 당당한 사내가 되었다.

남은 한스에게는 하일너의 도주를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따라붙었고, 그 의심 때문에 그는 교사들의 호의를 남김없이 잃었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에 그가 여러 물음에 연달아 대답을 못 하자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어째서 그 잘난 친구 하일너를 따라가지 않았나?"

원장은 그를 본체만체했고,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듯 경멸 섞인 연민을 담아 그를 곁눈질했다. 이 기벤라트는 이제 셈에 들지 않았다. 그는 나병 환자 축에 들었다.

---

1. 유베날리스는 로마 제정기에 세태를 꾸짖는 풍자시를 쓴 시인이다.
2. 파우스트 박사는 크니틀링겐 출신이라고 전하는 전설의 마술사다.
3. 아레티노는 16세기 베네치아에서 독설 글로 권력자들을 떨게 한 작가다.

제5장

햄스터가 모아 둔 양식으로 버티듯이, 한스는 예전에 쌓아 둔 학식으로 얼마 동안은 더 목숨을 이어 갔다. 그다음에는 괴로운 굶주림이 시작되었다. 이따금 짧고 힘없는 새 출발이 그것을 끊어 놓기는 했으나, 그 출발이 하도 가망이 없어서 그 자신도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이제 그는 쓸데없이 애쓰기를 그만두고, 모세 오경 뒤를 따라 호메로스를, 크세노폰 뒤를 따라 대수를 내던졌으며, 교사들 사이에서 자기 평판이 좋음에서 그런대로로, 그런대로에서 보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0점으로 한 계단씩 떨어져 가는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보았다. 두통이 다시 예사가 된 요즈음, 두통이 없을 때면 그는 헤르만 하일너를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뜬 채 가벼운 꿈을 꾸고, 몇 시간이고 반쯤 생각에 잠긴 채 멍하니 지냈다. 갈수록 늘어나는 모든 교사의 꾸지람에 그는 요즘 들어 사람 좋은, 순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젊고 친절한 교사인 조교 비드리히만이 이 힘없는 웃음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길에서 벗어난 소년을 가엾이 여겨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 나머지 교사들은 그에게 분개해서, 경멸하며 본체만체하는 것으로 벌을 주거나, 이따금 빈정거림으로 간질여 그의 잠든 공명심을 깨워 보려 했다.

"혹시 주무시는 중이 아니시라면, 이 문장을 좀 읽어 주십사 부탁드려도 되겠나?"

원장은 점잖게 분개했다. 이 허영심 많은 사내는 제 눈빛의 힘을 대단하게 여겼기에, 위엄 있게 을러대며 눈알을 굴릴 때마다 기벤라트가

번번이 순하고 고분고분한 웃음으로 맞서면 제정신을 잃을 만큼 화가 났고, 그 웃음 때문에 차츰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다.

"그렇게 한심하게 웃지 말게. 자네는 오히려 울어야 할 처지야."

그보다 마음을 더 움직인 것은 아버지의 편지였다. 아버지는 질겁해서 제발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애원했다. 원장이 기벤라트 씨에게 편지를 썼고, 기벤라트 씨는 혼비백산했다. 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는 이 착실한 사람이 쓸 줄 아는, 기운을 북돋우고 도덕적으로 분개하는 온갖 상투어를 모아 놓은 것이었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울먹이는 듯한 처량함이 배어 나와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원장에서부터 기벤라트 씨에 이르기까지, 교수들과 조교들까지, 제 의무에 충실한 이 청소년의 인도자들은 모두 한스에게서 나쁜 요소를, 자기들 소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억지로라도 힘을 써서 좋은 길로 되돌려 놓아야 할 고집 세고 게으른 무엇을 보았다. 아마 그 동정심 많은 조교 말고는, 야윈 소년의 얼굴에 떠오른 힘없는 웃음 뒤에서 가라앉아 가는 영혼 하나가 괴로워하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겁에 질려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학교와, 한 아버지와 몇몇 교사의 야만스러운 공명심이 그들 앞에 순진하게 활짝 열려 있던 여린 아이의 영혼 속에서 거리낌 없이 날뛰어, 이 연약하고 섬세한 존재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다. 왜 그 아이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위험한 소년 시절에 날마다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던가? 왜 사람들은 그에게서 토끼를 빼앗고, 라틴어 학교 친구들과 일부러 멀어지게 하고, 낚시와 어슬렁거리기를 금하고, 초라하고 사람을 닮아 없어지게 하는 공명심이라는 텅 비고 천박한 이상을 그에게 주입했던가? 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마땅히 누려야 할 방학조차 허락하지 않았던가?

이제 너무 몰아친 망아지는 길가에 쓰러져 더는 쓸모가 없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군청 의사는 다시 한 번, 이것은 그저 신경이 쇠약해진 상태일 뿐이고 주로 몸이 자라느라 생긴 것이라고 했다. 한스가 방학 동안 실컷 몸조리를 하고, 넉넉히 먹고, 숲으로 많이 쏘다니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일은 그렇게까지 가지도 못했다. 방학을 아직 세 주 앞둔 어느 날 오후 수업에서 한스는 교수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교사가 아직 야단을 치고 있는 사이 한스는 걸상에 털썩 주저앉더니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고, 이윽고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울음 발작을 터뜨려 수업이 통째로 중단되었다. 그 뒤로 그는 반나절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

이튿날 수학 시간에 그는 칠판에 기하 도형을 하나 그리고 증명을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나갔으나 칠판 앞에서 어지러워졌다. 분필과 자를 쥔 채 칠판 위를 아무 뜻 없이 이리저리 휘젓다가 둘 다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을 때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군청 의사는 제 환자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 꽤 못마땅했다.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 하면서 당장 요양 휴가를 명하고, 신경과 의사에게 보이라고 권했다.

"저 애는 이러다 무도병까지 걸리겠습니다." 의사가 원장에게 속삭였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언짢고 못마땅한 얼굴 표정을 아버지처럼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 일은 그에게 쉬웠고 또 썩 잘 어울렸다.

원장과 의사는 저마다 한스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통씩 써서 소년의 주머니에 넣어 주고 그를 집으로 보냈다. 원장의 언짢음은 깊은

근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일너 사건으로 이제 막 술렁인 학무 당국이 이 새로운 불행을 두고 무어라 생각하겠는가? 모두가 놀랍게 여겼지만 그는 이 일에 걸맞은 연설마저 하지 않았고,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은 한스에게 섬뜩할 만큼 상냥했다. 이 아이가 요양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 몸이 낫는다 해도, 지금 벌써 한참 뒤처진 이 학생이 놓친 몇 달은커녕 몇 주도 따라잡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기운을 북돋우듯 다정하게 "또 보세" 하며 그를 떠나보내기는 했다. 그러나 그 뒤로 헬라스 방에 들어가 빈 책상 셋을 볼 때마다 마음이 거북해졌고, 재주 있는 학생 둘이 사라진 데에는 어쩌면 자기에게도 얼마쯤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속으로 억누르느라 애를 먹었다. 그러나 용감하고 도덕적으로 굳센 사람답게 그는 이 쓸데없고 음울한 의심을 제 영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는 신학생 뒤로 교회와 문과 박공과 탑을 거느린 수도원이 가라앉았고, 숲과 겹겹이 달아나는 언덕들이 가라앉았으며, 그 자리에 바덴 접경 지대의 기름진 과수 풀밭이 떠올랐다. 이어 포르츠하임이 나왔고, 그 바로 뒤에서 슈바르츠발트의 검푸른 전나무 산이 시작되었다. 숱한 개울 골짜기에 갈라진 산들은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여느 때보다 더 파랗고 서늘했으며 더 짙은 그늘을 약속하는 듯했다. 소년은 바뀌어 가며 점점 더 고향다워지는 풍경을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나, 고향 도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아버지가 떠오르자 맞이할 일이 괴롭고 두려워서 작은 여행의 즐거움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말았다. 슈투트가르트로 시험을 보러 가던 길과 마울브론에 입학하러 가던 여행이 그때의 긴장과 겁먹은 기쁨과 함께 다시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는 원장만큼이나 잘 알았다. 자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제 신학교도 공부도 공명심에 찬 모든 희망도 끝장이 났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희망을 저버린 아버지, 실망한 아버지가 두려워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지금 바라는 것은 쉬고, 실컷 자고, 실컷 울고, 실컷 꿈꾸고, 그 모든 시달림 끝에 한 번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채 가만히 놓여 있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고 두려워했다. 기차 여행이 끝나 갈 무렵 그는 두통이 심하게 났고, 이제 기차가 그가 가장 좋아하던 고장, 예전에 열정을 다해 산마루와 숲을 쏘다니던 곳을 지나가는데도 더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겁이 나 있었는데도 하마터면 눈에 익은 고향 역에서 내리는 것을 놓칠 뻔했다.

이제 그는 우산과 여행 가방을 든 채 거기 서서 아버지의 눈길을 받았다. 원장이 보낸 마지막 보고를 받고 나서, 잘못되어 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실망과 분개는 넋이 나갈 듯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한스가 폭삭 망가져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으리라 상상했는데, 막상 보니 야위고 허약하기는 해도 아직 멀쩡하게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그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 의사와 원장이 편지에 쓴 신경병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였다. 그의 집안에서는 지금껏 신경병을 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집안사람들은 그런 환자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이해할 생각도 없이 비웃거나, 정신 병원 사람들을 두고 말하듯 경멸 섞인 동정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 한스가 그런 탈을 달고 집에 돌아왔다.

첫날 소년은 꾸지람을 듣지 않고 맞아들여진 것이 기뻤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조심스럽고 겁먹은 배려가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보기에도 억지로 애를 써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아버지가 묘하게 살피는 눈길로, 섬뜩한 호기심을 품고 자기를 바라보고, 목소리를 죽인 거짓된 말투로 말을 걸며,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지켜본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그는 더욱 주눅이 들었고, 자기 상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으면 그는 몇 시간이고 바깥 숲 속에 누워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좋았다. 거기서는 이따금 옛날 소년 시절의 행복이 희미하게 되비쳐 상처 입은 그의 영혼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꽃이나 딱정벌레를 보는 기쁨, 새소리를 엿듣거나 짐승 발자국을 쫓는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잠깐뿐이었다. 대개 그는 이끼 위에 맥없이 누워 무거운 머리로 무엇이든 생각해 보려고 헛되이 애쓰다가, 꿈이 다시 찾아와 그를 먼 다른 곳으로 데려가곤 했다. 그는 거의 늘 두통을 앓았고, 수도원이나 라틴어 학교를 떠올리면 그 많은 책과 과목과 의무가 사나운 가위눌림처럼 그를 덮쳤으며, 지끈거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리비우스와 카이사르, 크세노폰과 산수 문제들이 어지럽고 괴로운 춤을 추었다.

한번은 이런 꿈을 꾸었다. 친구 헤르만 하일너가 죽어서 들것에 누워 있었고, 그는 그리로 가려 했으나 원장과 교사들이 그를 떠밀었고, 그가 다시 다가설 때마다 아프게 쥐어박았다. 신학교 교수들과 조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장과 슈투트가르트 시험관들까지 모두 성난 얼굴로 거기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들것 위에는 물에 빠져 죽은 힌두가 누워 있었고, 높은 실크해트를 쓴 그 우스꽝스러운 아버지가 굽은 다리로 서글프게 그 곁에 서 있었다.

또 이런 꿈도 꾸었다. 그는 달아난 하일너를 찾아 숲 속을 달렸고, 나무줄기들 사이로 저 멀리 하일너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았지만, 부르려고 하면 번번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하일너는 사라져 버렸다. 마침내 하일너가 멈춰 서서 그를 다가오게 하더니 말했다. "있지, 나 애인 있어." 그러고는 지나치게 큰 소리로 웃으며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아름답고 야윈 사내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고요하고 신성한 눈과 아름답고 평화로운 손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모든 것이 다시 흩어져 버렸고,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복음서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에우튀스 에피그논테스 아우톤 페리에드라몬." 그러자 이번에는 페리에드라몬이 무슨 활용형인지, 그 동사의 현재와 부정사와 완료와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내야 했고, 단수와 양수와 복수로 끝까지 활용해 보아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막히면 겁에 질려 땀을 흘렸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머릿속이 온통 헐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체념과 죄책감에 찬 그 졸린 웃음으로 일그러지면 곧바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멍청한 웃음은 뭔가? 자네가 웃기까지 할 처지인가!"

이따금 나은 날이 있기는 했으나 전체로 보면 한스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듯했다. 예전에 어머니를 치료하다가 사망 진단을 내렸고 가끔 가벼운 통풍을 앓는 아버지를 보러 오던 집안 주치의는 떨떠름한 얼굴을 한 채, 날마다 자기 소견을 말하기를 미루었다.

그 몇 주 동안에야 한스는 라틴어 학교의 마지막 두 해 동안 자기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의 동급생들은 더러는 떠났고, 더러는 견습공이 되어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 누구와도 그를 잇는 것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그가 찾아갈 일이 없었으며, 누구도 그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늙은 교장이 두 번 그에게 다정한 말을 몇 마디 건넸고, 라틴어 교사와 목사도 길에서 그에게 호의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한스는 이제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더는 이것저것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고, 갖가지

씨앗을 뿌릴 밭도 아니었다. 그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은 이제 보람 없는 일이었다.

목사가 그를 조금이라도 돌봐 주었더라면 좋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줄 수 있었던 것, 곧 학문이나 적어도 학문을 찾는 일은 예전에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었고, 그 이상은 그에게 없었다. 세상에는 라틴어 실력은 의심받아 마땅하고 설교도 뻔한 샘에서 길어 온 것이지만, 온갖 고통에 따뜻한 눈길과 다정한 말을 지녔기에 힘든 때면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가는 목사들이 있다. 그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 기벤라트 씨 역시 친구나 위로자가 되어 주지 못했다. 한스에게 실망한 언짢음을 감추려고 온갖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스는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작은 뜰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숲에 누워 몽상이나 저를 괴롭히는 생각에 빠져 지냈다.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읽다 보면 이내 머리와 눈이 아팠고, 어느 책이든 펼치기만 하면 곧바로 수도원 시절의 유령과 거기서 느낀 불안이 되살아나, 그를 숨 막히고 겁나는 꿈의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 자리에 꼼짝 못 하게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

이렇게 곤궁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병든 소년에게 또 다른 유령이 거짓 위로자로 다가와, 차츰 낯익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다. 총 한 자루를 구하거나 숲 속 어딘가에 올가미를 매다는 일쯤은 쉬웠다. 거의 날마다 이런 생각이 산책길을 따라다녔고, 그는 조용히 외떨어진 곳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다가 마침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찾아내어 그곳을 자기가 죽을 자리로 아주 정해 두었다. 그는 몇 번이고 그곳을 찾아가 앉아서, 머지않아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자기를 발견하리라고 상상하며 묘한 기쁨을 맛보았다. 밧줄을 맬 나뭇가지도 정해 두었고 튼튼한지도 시험해 보았다. 이제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다. 띄엄띄엄 오래 쉬어 가며, 아버지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와 헤르만 하일너에게 보내는 아주 긴 편지도 차츰 써 두었다. 시신 곁에서 발견되도록.

준비를 해 두고 이제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자 그의 마음은 한결 나아졌다. 그 운명의 나뭇가지 아래 앉아 있노라면 짓누르던 것이 물러가고 거의 즐겁기까지 한 편안함이 찾아드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다. 아버지도 아들의 상태가 나아진 것을 알아차렸고, 한스는 아버지가 그 기분을 기뻐하는 모습을 빈정거리는 재미로 지켜보았다. 그 기분의 까닭은 그저 머지않아 끝장이 나리라는 확신일 뿐인데도.

왜 자기가 벌써 오래전에 그 아름다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지 않은지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 생각은 굳었고 죽음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기분이 좋았고,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흔히 그러듯이 이 마지막 날들에 아름다운 햇빛과 외로운 몽상을 한껏 맛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떠나는 것이야 언제든 할 수 있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 뜻으로 조금 더 옛 터전에 머물면서, 자기의 위험한 결심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에게는 각별히 쓰디쓴 기쁨이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고 보라지!"

운명은 그가 제 어두운 계획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가 날마다 죽음의 잔에서 쾌락과 생명력 몇 방울을 맛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망가진 어린 존재야 대단할 것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제 원을 다 그려야 했고, 삶의 쓰디쓴 단맛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기 전에는 판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었다.

벗어날 수 없이 괴롭히던 상상은 드물어졌고, 그 자리를 피곤한 채 될 대로 되라는 마음, 아프지 않은 나른한 기분이 차지했다. 그런 기분 속에서 한스는 시간과 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무심히 허공을 쳐다보았으며, 이따금 몽유병자 같거나 어린애 같아 보였다. 한번은 나른하고 어스름한 기분으로 작은 뜰의 전나무 아래 앉아, 저도 모르게 오래된 노래 한 구절을 거듭거듭 흥얼거렸다. 라틴어 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가 마침 떠오른 참이었다.

아, 나는 너무 피곤해,
아, 나는 너무 지쳤어,
지갑에도 돈 한 푼 없고
주머니에도 한 푼 없네.

그는 옛 가락에 맞추어 흥얼거렸고, 스무 번째로 다시 부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창가 가까이 서서 그것을 듣고는 크게 놀랐다. 메마른 성품의 아버지로서는 이 생각 없고 기분 좋게 멍한 흥얼거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것을 가망 없는 정신 박약의 징후로 풀이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지켜보았고, 소년은 물론 그것을 알아채고 괴로워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밧줄을 들고 가서 그 튼튼한 나뭇가지를 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사이 더운 계절이 왔고, 주 시험과 그때의 여름 방학 뒤로 벌써 한 해가 지났다. 한스는 이따금 그 일을 떠올렸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는 꽤 무디어져 있었다. 다시 낚시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물가에 설 때마다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이따금 아무도 보지 않는 강가에 오래 머물며 소리 없이 헤엄치는 어두운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뜨거운 눈으로 좇았다. 저녁 무렵이면

날마다 강을 따라 조금 올라가 멱을 감았는데, 그 길에 늘 게슬러 감독관의 작은 집 앞을 지나야 했으므로, 세 해 전에 그가 홀딱 빠졌던 에마 게슬러가 다시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궁금해서 몇 번 뒤를 따라 바라보았지만 그 아이는 예전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 에마 게슬러는 팔다리가 가녀린 아주 고운 계집아이였는데, 이제는 키가 자랐고 몸짓이 모가 났으며, 아이답지 않은 유행 머리를 하고 있어 그것이 모습을 아예 망쳐 놓았다. 긴 치마도 어울리지 않았고, 숙녀처럼 보이려는 애씀도 영락없이 딱했다. 한스는 그 아이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무렵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묘하게 달콤하고 어둡고 따뜻한 마음이 되었던가를 생각하면 서글펐다. 아무튼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생기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가 아는 것이라곤 라틴어, 역사, 그리스어, 시험, 신학교, 그리고 두통뿐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옛날이야기 책과 도둑 이야기 책이 있었고, 작은 뜰에서는 손수 만든 망치 방아가 돌아갔으며, 저녁이면 나숄트네 대문간에서 리제가 들려주는 모험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 한동안은 이웃의 늙은 그로스요한, 별명 가리발디를 강도 살인범으로 여기고 꿈에까지 보았고, 한 해 내내 달마다 무엇인가를 고대했다. 건초 말리기를, 클로버 베기를, 또 첫 낚시나 가재잡이를, 홉 따기와 자두 털기를, 감자 줄기 태우는 불을, 타작이 시작되는 날을 기다렸고, 그 사이사이 정다운 일요일과 명절마다 따로 또 들떴다. 그때는 신비로운 마법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직 많이 있었다. 집과 골목, 계단과 헛간 다락, 우물과 울타리, 온갖 사람과 짐승이 그에게는 정답고 낯익거나, 수수께끼처럼 마음을 끌었다. 홉을 딸 때는 일손을 거들며 큰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노래에서 몇 구절을 외워 두었다. 대개는 우스워서 웃음이 나는 것이었으나 몇몇은 묘하게 구슬퍼서, 듣고 있으면 목이 메었다.

그 모든 것이 가라앉아 끝나 버렸는데, 그때 그는 곧바로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처음에는 리제 곁에서 보내던 저녁들이 끝났고, 다음에는 일요일 오전의 금빛 피라미 잡이가, 그다음에는 옛날이야기 책 읽기가 끝났으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홉 따기와 뜰의 망치 방아까지 끝나 버렸다. 아, 그 모든 것은 어디로 가 버렸을까?

그리하여 일찍 철든 이 젊은이는 병든 나날 속에서 현실이 아닌 두 번째 어린 시절을 겪게 되었다. 학교 선생들에게 어린 시절을 도둑맞은 그의 마음은 이제 갑자기 터져 나온 그리움에 이끌려 그 아름답고 어슴푸레한 세월로 달아났고, 추억의 숲 속을 홀린 듯 헤매었다. 그 추억들의 힘과 선명함은 어쩌면 병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예전에 실제로 겪을 때 못지않은 따뜻함과 열정으로 다시 겪었다. 속고 짓밟힌 어린 시절이 오래 막혀 있던 샘처럼 그의 안에서 터져 나왔다.

나무는 꼭대기를 잘리면 흔히 뿌리 가까이에서 새싹을 틔운다. 그처럼 꽃필 무렵에 병들어 시든 영혼도 흔히 시작의 봄 같은 시절, 예감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마치 거기서 새 희망을 찾아내고 끊어진 삶의 실을 다시 이을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뿌리에서 난 싹은 물이 올라 서둘러 무성하게 자라지만, 그것은 겉보기 삶일 뿐이고 거기서 다시 나무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한스 기벤라트도 그러했다. 그러니 꿈길을 따라 어린 시절의 나라를 헤매는 그를 잠시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기벤라트 씨네 집은 옛 돌다리 가까이 서서,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골목이 만나는 모퉁이를 이루었다. 그 집이 속한다고 쳐 주고 실제로도 속해 있던 한쪽 골목은 이 도시에서 가장 길고 넓고 점잖은 거리로, 무두장이 거리라 불렸다. 다른 한쪽은 가파르게 비탈을 올라가는 짧고

좁고 초라한 골목으로, '매' 골목이라 불렸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아주 오래된 여관의 간판이 매였던 데서 온 이름이었다.

무두장이 거리에는 집집마다 착실하고 견실한 토박이 시민들만 살았다. 제집과 교회의 제 좌석과 제 뜰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뜰들은 뒤쪽으로 층층이 가파르게 비탈을 타고 올라가, 1870년에 쌓아 노란 금작화가 우거진 철둑에 울타리가 닿아 있었다. 점잖기로 무두장이 거리와 겨룰 수 있는 곳은 장터 광장뿐이었다. 그곳에는 교회와 군청, 법원과 시청과 교구장 관저가 서 있었고, 그 깔끔한 위엄이 영락없이 도시다운 고상한 인상을 주었다. 무두장이 거리에는 관청 건물이야 하나도 없었지만, 당당한 현관문을 단 옛 시민 집과 새 시민 집, 예쁘고 고풍스러운 목골조 집들, 산뜻하고 밝은 박공들이 있었다. 그리고 집이 한 줄로만 늘어서 있다는 것이 이 거리를 한결 다정하고 아늑하고 환하게 만들었다. 길 건너편에는 들보 난간을 두른 담장 아래로 강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무두장이 거리가 길고 넓고 환하고 널찍하고 점잖았다면, '매' 골목은 그 정반대였다. 여기에는 얼룩지고 부스러지는 회벽에, 눌러 찌그러뜨린 모자를 떠올리게 하는 박공이 앞으로 늘어지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기운 문과 창, 굽은 굴뚝과 망가진 빗물 홈통을 단 기울고 어두운 집들이 서 있었다. 집들은 서로 자리와 빛을 빼앗았고, 골목은 좁고 괴상하게 휘었으며 늘 어스름에 싸여 있었는데, 그 어스름은 비 오는 날이나 해가 진 뒤면 축축하고 고약한 어둠으로 바뀌었다. 창마다 장대와 줄에 빨래가 언제나 잔뜩 널려 있었다. 골목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 북적이는 가족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셋방살이하는 사람들과 잠자리만 빌려 쓰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기울고 늙어 가는 집들의 구석구석에 사람이 빽빽이 살았고, 가난과 악덕과 질병이 그곳에 눌러살았다. 경찰과 병원은 나머지 도시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이 몇 채 안

되는 매 골목 집들 때문에 더 바빴다. 장티푸스가 돌면 거기서 돌았고, 살인이 한 번 났다 하면 그것도 거기서 났으며, 도시에 도둑질이 생기면 사람들은 맨 먼저 매 골목부터 뒤졌다. 떠돌이 행상들이 거기에 묵어가는 집을 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스꽝스러운 광택 가루 장수 호테호테와, 온갖 범죄와 악덕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칼 가는 사람 아담 히텔도 있었다.

◆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처음 몇 해 동안 한스는 매 골목에 자주 드나들었다. 짚빛 머리에 옷이 해진, 수상쩍은 사내아이 패거리와 어울려 그 이름난 로테 프로뮐러가 들려주는 살인 이야기를 듣곤 했다. 로테 프로뮐러는 작은 술집 주인과 이혼한 여자로 감옥에서 다섯 해를 살고 나왔다. 한때는 이름난 미인이어서 공장 일꾼들 사이에 애인을 수두룩하게 두었고, 여러 번 추문과 칼부림의 빌미가 되었다. 이제 로테는 혼자 살면서, 공장이 파한 뒤 저녁마다 커피를 끓이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냈다. 그럴 때면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낙네들과 젊은 일꾼들 말고도 늘 이웃 아이들 한 무리가 문지방에 서서 넋을 잃고 오싹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검은 돌 화덕 위에서는 주전자의 물이 끓었고, 그 곁에서 타는 수지 양초가 파란 숯불과 함께 사람으로 꽉 찬 어두운 방을 기묘하게 일렁이며 비추었으며, 그 빛은 듣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벽과 천장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던져 방 안을 유령 같은 움직임으로 가득 채웠다.

그곳에서 여덟 살 소년은 핑켄바인 형제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엄한 금지를 무릅쓰고 한 해쯤 그들과 우정을 나누었다. 형제의 이름은 돌프와 에밀로, 이 도시에서 가장 약삭빠른 골목 개구쟁이였다. 과일

서리와 자잘한 숲 도둑질로 이름이 났고, 숱한 재주와 장난에 도가 튼 아이들이었다. 둘은 부업으로 새알과 납 탄알, 새끼 까마귀와 찌르레기와 토끼를 사고팔았고, 금지된 밤낚시를 놓았으며, 도시의 어느 뜰에서나 제집처럼 굴었다. 아무리 뾰족한 울타리도, 유리 조각을 아무리 빽빽하게 꽂은 담장도 그들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스가 따른 것은 '매' 골목에 사는 헤르만 레히텐하일이었다. 그는 고아였고, 병약하고 조숙하고 남다른 아이였다. 한쪽 다리가 너무 짧아서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고, 골목 놀이에 끼지 못했다. 몸은 야위었고, 핏기 없이 고통이 밴 얼굴에 일찍부터 쓴맛을 아는 입매와 지나치게 뾰족한 턱을 하고 있었다. 온갖 손재주에 놀랄 만큼 능했고, 특히 낚시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을 한스에게 옮겨 주었다. 한스는 그때 아직 낚시 허가증이 없었지만 둘은 그래도 남몰래 숨은 곳에서 낚시를 했다. 사냥이 즐거움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밀렵은 더없는 쾌락이다. 다리를 저는 레히텐하일은 한스에게 낚싯대로 쓸 가지를 제대로 자르는 법, 말총을 땋는 법, 낚싯줄을 물들이는 법, 실 올가미를 꼬는 법, 낚싯바늘을 벼리는 법을 가르쳤다. 날씨를 살피는 법, 물을 지켜보고 밀기울을 풀어 흐리게 하는 법, 알맞은 미끼를 고르고 제대로 꿰는 법도 가르쳤고, 물고기 종류를 가려보는 법, 낚시하는 동안 물고기의 기척을 엿듣는 법, 낚싯줄을 알맞은 깊이에 두는 법도 가르쳤다. 말없이, 오직 본보기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는 한스에게 손놀림과, 당겨야 할 순간과 늦춰야 할 순간을 아는 섬세한 감각과, 그것 없이는 섬세한 낚시가 있을 수 없는 손의 그 묘한 예민함을 전해 주었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근사한 낚싯대와 코르크와 유리 낚싯줄과 그 밖의 온갖 공들여 만들어 파는 낚시 도구를 그는

열심히 경멸하고 비웃었으며, 부분 부분을 다 손수 만들어 맞추지 않은 낚싯대로는 도저히 고기를 낚을 수 없다고 한스에게 믿게 했다.

핑켄바인 형제와는 화를 내며 갈라섰지만, 조용하고 다리를 저는 레히텐하일은 다툼 없이 한스를 떠났다. 어느 2월 날 그는 초라한 작은 침대에 몸을 누이고,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의자에 놓인 옷가지 위에 얹어 두고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빠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매 골목은 그를 곧바로 잊었고, 한스만이 오래도록 그를 좋게 기억했다.

그러나 매 골목의 별난 주민이 그로써 다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술버릇 때문에 쫓겨난 우편배달부 뢰텔러를 누가 몰랐겠는가? 그는 두 주마다 곤드레만드레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밤중에 소동을 벌였지만, 그 밖에는 어린아이처럼 착했고 늘 호의에 차서 웃었다. 그는 한스에게 타원형 담뱃갑의 코담배를 맡게 해 주었고, 이따금 한스에게서 물고기를 얻어 버터에 구운 다음 한스를 불러 같이 먹었다. 그에게는 유리 눈알을 박은 말똥가리 박제와, 가늘고 고운 소리로 낡은 춤곡을 연주하는 오래된 오르골이 있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닐 때조차 늘 소매 끝동을 단 아주 늙은 기계공 포르슈를 누가 몰랐겠는가? 옛 방식대로 엄한 시골 학교 선생의 아들인 그는 성경 절반과, 귀가 따갑도록 많은 속담과 교훈 격언을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눈처럼 흰 머리도, 그가 아낙네들 앞에서 바람둥이 노릇을 하고 툭하면 술에 취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술이 얼큰하게 오르면 그는 기벤라트 씨네 집 모퉁이에 박힌 차막이 돌 위에 즐겨 앉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름을 불러 세워 놓고 격언을 푸짐하게 대접했다.

"한스 기벤라트 2세, 내 귀한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집회서는 뭐라고 하느냐? 악한 꾀를 내지 않아 그 일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름다운 나무에 달린 푸른 잎이 더러는 떨어지고

더러는 다시 돋아나듯이, 사람의 일도 그와 같아서 더러는 죽고 더러는 태어난다. 자, 이제 집에 가거라, 이 물개 녀석아."

이 늙은 포르슈는 경건한 격언과는 별개로 유령 따위에 관한 어둡고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잔뜩 품고 있었다. 그는 유령이 나도는 곳을 알았고, 제 이야기를 믿는 마음과 못 믿는 마음 사이를 늘 오락가락했다. 대개는 미심쩍다는 듯, 허풍 섞어 하찮게 여기는 투로, 이야기와 듣는 사람들을 다 놀리기라도 하는 듯이 시작했지만, 이야기하는 동안 차츰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목소리를 점점 낮추다가 마침내 나직하고 파고드는 듯한 으스스한 속삭임으로 끝맺었다.

이 가난하고 작은 골목에는 얼마나 많은 으스스한 것, 속을 알 수 없는 것, 어둡게 마음을 끄는 것이 들어 있었던가! 철공 브렌들레도 가게가 망하고 손질하지 않은 작업장이 아주 엉망이 된 뒤로 이 골목에 살았다. 그는 반나절씩 작은 창가에 앉아 북적이는 골목을 음울하게 내다보았고, 이따금 이웃집의 옷 해지고 씻지 않은 아이 하나가 손에 걸리면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사나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괴롭혀,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온몸이 시퍼렇게 되도록 꼬집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연 철사 한 토막에 목을 매어 제 집 계단에 매달려 있었는데, 몰골이 하도 끔찍해서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다가, 늙은 기계공 포르슈가 뒤쪽에서 함석 가위로 철사를 잘랐다. 그러자 혀를 빼문 시체가 앞으로 고꾸라져 계단을 굴러 내려가 질겁한 구경꾼들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한스는 밝고 넓은 무두장이 거리에서 어둡고 축축한 매 골목으로 들어설 때마다, 그 묘하게 숨 막히는 공기와 함께 황홀하면서도 오싹한 가슴 졸임에 사로잡혔다. 호기심과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모험을 예감하는 행복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매 골목은 아직 옛이야기나 기적이나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마법과 유령 놀음이 그럴듯하고 있을 법한 곳이었으며, 전설이나, 교사들이 압수하곤 하던 그 추문투성이 로이틀링겐 민중본[1]을 읽을 때와 똑같이 아프도록 달콤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책들은 존넨비르틀레, 신더한네스, 메서카를레, 포스트미헬 같은 어두운 영웅과 흉악범과 모험가 들의 악행과 그 벌을 다루었다.

그러나 매 골목 말고도, 다른 어디와도 다른 곳이 또 하나 있었다. 무언가를 겪고 듣고, 어두운 다락과 낯선 방들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바로 가까이 있는 큰 무두질 공장, 그 오래되고 거대한 집이었다. 그곳에서는 어둑한 다락에 커다란 가죽들이 걸려 있었고, 지하실에는 덮개를 씌운 구덩이와 들어가면 안 되는 통로가 있었으며, 저녁이면 리제가 아이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건너편 매 골목보다 더 조용하고 다정하고 사람 사는 곳다웠지만 수수께끼 같기는 못지않았다. 무두질 직인들이 구덩이와 지하실과 무두 껍질 마당과 다락에서 일하는 모습은 신기하고 별났고, 훵하니 입을 벌린 커다란 방들은 조용했으며 끌리는 만큼 으스스했다. 기운 세고 무뚝뚝한 집주인은 식인귀처럼 두려움을 사서 다들 피해 다녔고, 리제는 그 별난 집 안을 요정처럼 돌아다녔다. 리제는 모든 아이와 새와 고양이와 강아지를 지켜 주는 어머니였고, 선량함과 신기하기 짝이 없는 옛이야기와 노래 구절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소년의 생각과 꿈은 이제 오래전에 멀어진 이 세계 속을 헤매었다. 크나큰 실망과 절망에서 벗어나 그는 지나간 좋은 시절로 달아났다. 그때 그는 아직 희망으로 가득했고, 세상이 엄청나게 큰 마법의 숲처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숲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위험과 마법에 걸린 보물과 에메랄드 성들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이 황야에 조금 들어갔으나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피곤해져

버렸고, 이제 다시 수수께끼처럼 어스름한 입구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쫓겨난 사람으로서, 하릴없는 호기심을 품고.

한스는 몇 번 '매' 골목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옛 어스름과 옛 고약한 냄새, 옛 구석들과 빛 없는 계단참이 그대로 있었다. 문 앞에는 또다시 머리 센 늙은이들이 앉아 있었고, 씻지 않은 짚빛 머리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기계공 포르슈는 더 늙어서 한스를 더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수줍은 인사에 비웃듯 염소처럼 매애 하고 웃을 뿐이었다. 그로스요한, 별명 가리발디는 죽었고 로테 프로뮐러도 죽었다. 우편배달부 뢰텔러는 아직 있었다. 그는 개구쟁이들이 자기 오르골을 망가뜨렸다고 하소연하더니 코담배를 권하고는 이내 돈을 우려내려 했다. 끝으로 핑켄바인 형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하나는 지금 시가 공장에 다니며 벌써 어른처럼 술을 퍼마시고, 다른 하나는 교회 축일에 칼부림을 벌이고 달아나 벌써 한 해째 소식이 없다고 했다. 모든 것이 딱하고 초라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무두질 공장으로 건너갔다. 마치 그 오래된 큰 집에 그의 어린 시절이 잃어버린 온갖 기쁨과 함께 숨어 있기라도 한 듯이, 무언가가 그를 대문간을 지나 축축한 마당 너머로 이끌었다.

구부러진 계단과 돌을 깐 현관 마루를 지나 캄캄한 계단에 이르자, 그는 더듬더듬 다락까지 올라갔다. 거기에는 가죽들이 펼쳐 걸려 있었고, 그는 그 매캐한 가죽 냄새와 함께 갑자기 몰려나오는 추억을 구름째 들이마셨다. 다시 내려온 그는 뒷마당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무두질 구덩이들과, 무두 껍질 덩이를 말리는 좁은 지붕 덮인 높은 시렁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장 옆 걸상에 리제가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깎을 감자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둘레에서는 아이 몇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스는 어두운 문간에 멈춰 서서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땅거미가 내리는 무두장이네 뜰에는 커다란 평화가 가득했다. 마당 담 너머로 흘러가는 강물이 희미하게 소리를 낼 뿐, 들리는 것이라고는 리제가 감자를 깎는 칼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뿐이었다. 아이들은 쪼그리고 앉아 거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리제는 성 크리스토포루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밤중에 어떤 아이의 목소리가 그를 불러 강을 건네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다.

한스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캄캄한 현관 마루를 지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시 아이가 되어 저녁마다 무두장이네 뜰에서 리제 곁에 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매 골목만큼이나 무두장이네 집도 피해 다녔다.

---

1. 로이틀링겐 민중본은 로이틀링겐에서 찍어 낸, 도적 이야기 따위를 실은 싸구려 통속 책이다.

제6장

가을이 벌써 깊어 가고 있었다. 검은 전나무 숲 사이로 드문드문 선활엽수들이 횃불처럼 노랗고 붉게 빛났고, 골짜기에는 벌써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강은 아침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김을 피워 올렸다.

신학교를 그만둔 창백한 소년은 여전히 날마다 바깥을 쏘다녔다. 그는 맥이 없고 피곤했으며, 가질 수도 있었을 얼마 안 되는 사람 사귐마저 피했다. 의사는 물약과 간유와 달걀과 냉수마찰을 처방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건강한 삶이라면 어느 것이나 알맹이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젊은 기벤라트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서기로 만들든지 수공업을 배우게 하든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소년은 아직 허약해서 우선 기운을 좀 더 차려야 했지만, 머지않아 아들 일을 진지하게 다잡을 때가 올 터였다.

처음의 어지러운 인상들이 누그러지고 자살 자체도 더는 믿지 않게 된 뒤로, 한스는 들뜨고 오락가락하던 불안에서 벗어나 한결같은 우울로 넘어갔고, 부드러운 진흙 바닥에 빠져들 듯이 천천히, 속절없이 그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는 가을 들판을 쏘다니며 계절의 기운에 굴복했다. 저물어 가는 가을과 소리 없이 지는 잎, 갈색으로 바래 가는 풀밭과 짙은 아침 안개, 무르익어 피곤한 듯 죽고만 싶어 하는 초목을 보며 그는, 모든 병자가 그렇듯이, 무겁고 가망 없는 기분과 슬픈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함께 스러지고, 함께 잠들고, 함께 죽고 싶었고, 그의 젊음이 그것을 거스르며 조용한 끈기로 삶에 매달리는 것을 괴로워했다.

그는 나무들이 노래지고, 갈색이 되고, 헐벗어 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숲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젖빛 안개를 바라보았으며, 마지막 과일 따기가 끝난 뒤 생명이 꺼져 이제 아무도 울긋불긋 시들어 가는 과꽃을 돌아보지 않는 뜰들을 바라보았고, 멱 감기도 낚시도 끝나 버린 강, 마른 잎에 뒤덮이고 서리 내린 강가에는 끈질긴 무두장이들만 남아 버티는 그 강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강은 사과즙 찌꺼기를 잔뜩 싣고 흘렀다. 압착장마다, 방앗간마다 사람들이 지금 부지런히 사과즙을 짜고 있었고, 도시에서는 살며시 괴어 오르는 과일즙 냄새가 골목마다 감돌았다.

아랫방앗간에서는 구두장이 플라이크도 작은 압착기 하나를 빌려서, 한스를 사과즙 짜는 데 불렀다.

방앗간 앞마당에는 크고 작은 사과 압착기와 수레, 과일을 가득 담은 바구니와 자루, 함지와 큰 통과 양동이와 술통, 갈색 찌꺼기를 쌓은 산더미, 나무 지렛대와 손수레와 텅 빈 짐수레가 늘어서 있었다. 압착기들은 일하며 삐걱대고, 끽끽거리고, 신음하고, 염소처럼 매애 울었다. 대부분 초록 칠을 했는데, 이 초록이 찌꺼기의 누런 갈색과 사과 바구니들의 빛깔과 연초록 강물과 맨발의 아이들과 맑은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보는 사람마다 즐거움과 삶의 기쁨과 넘치는 풍요를 느끼며 마음이 끌리게 했다. 으깨지는 사과가 내는 우지끈 소리는 시큼하게 입맛을 돋우어서, 다가와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얼른 사과 하나를 주먹에 쥐고 한 입 베어 물지 않고는 못 배겼다. 대롱에서는 달콤한 햇즙이 굵은 줄기로 흘러나왔다. 붉은빛 도는 노란 즙이 햇빛 속에서 웃었다. 다가와서 그것을 본 사람은 한 잔만 달라고 청해 얼른 맛을 보지 않고는 못 배겼고,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시울을 적시며 단맛과 흐뭇함이 온몸을 흘러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달콤한

사과즙은 그 즐겁고 진하고 기막힌 향기로 사방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 향기야말로 한 해를 통틀어 가장 고운 것, 무르익음과 거둠의 정수다. 겨울을 코앞에 두고 이 향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는 동안 숱한 좋은 것, 놀라운 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5월의 비와 쏴 하고 쏟아지는 여름비와 서늘한 가을 아침 이슬, 다정한 봄 햇살과 이글이글 뜨거운 여름 뙤약볕, 하얗고 장밋빛으로 빛나던 과일 꽃, 거두기 전 과일나무의 무르익은 붉은 갈색 윤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 한 해가 돌아가며 데려온 아름답고 즐거운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빛나는 날들이었다. 부자들과 거드름쟁이들은 몸소 나와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한, 곱고 살진 제 사과를 손에 들어 무게를 가늠하고, 열두 자루나 그 이상 되는 제 자루를 세고, 은으로 된 휴대용 잔으로 맛을 보며, 자기네 사과즙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고 누구에게나 들리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 자루가 하나뿐이었고, 유리잔이나 질그릇 사발로 맛을 보며 물을 탔지만, 그렇다고 덜 자랑스럽거나 덜 즐겁지는 않았다. 무슨 까닭에선지 사과즙을 아예 짤 수 없는 사람은 아는 사람과 이웃을 찾아 이 압착기에서 저 압착기로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한 잔씩 얻어 마시고 사과 하나씩 주머니에 받아 넣었고, 아는 체하는 말로 자기도 이 일을 웬만큼은 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가난하든 부자든 수많은 아이가 작은 잔을 들고 돌아다녔는데, 저마다 베어 먹던 사과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과즙을 짤 때 빵을 넉넉히 먹으면 나중에 배탈이 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백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외쳤다. 아이들 법석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모두 바쁘고 들뜨고 즐거웠다.

"이리 와, 한네스! 이쪽으로! 딱 한 잔만!"

"고맙구먼, 그런데 벌써 배가 살살 아파."

"첸트너(50킬로그램)에 얼마 줬어?"

"4마르크. 그래도 일등품이야. 자, 맛 좀 봐!"

이따금 작은 사고가 났다. 사과 자루 하나가 너무 일찍 풀려 사과가 몽땅 땅바닥으로 굴러 나왔다.

"빌어먹을, 내 사과! 여보들, 좀 거들어 줘요!"

모두 함께 주워 담았고, 개구쟁이 몇만 그 틈에 한몫 챙기려 들었다.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 이 망할 녀석들! 먹는 거야 들어가는 만큼 먹어도 되지만, 넣어 가는 건 안 돼. 거기 서, 이 덜떨어진 녀석아!"

"어이, 이웃 양반, 그렇게 뻐기지 말고! 여기 맛 좀 봐요!"

"꿀맛이네! 영락없는 꿀맛이야. 몇 통이나 짜시오?"

"작은 통으로 둘뿐이오. 그래도 못한 건 아니라오."

"한여름에 사과즙을 안 짜는 게 다행이지. 그랬다간 죄다 그 자리에서 퍼마셔 버릴 거야."

올해도 빠지면 안 되는 투덜이 노인 몇이 와 있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손수 사과즙을 짜지 않지만 무엇이든 더 잘 알고, 과일을 거저나 다름없이 얻던 옛날 옛적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때는 모든 것이 훨씬 싸고 좋았고, 설탕을 넣는다는 건 아예 몰랐으며, 무엇보다 그 시절에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부터가 전혀 달랐다.

"그때는 수확이라고 말할 만했지. 나한테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놈 혼자서 다섯 첸트너는 떨궈 냈구먼."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나빠졌어도 투덜이 노인들은 올해도 맛보기를 실컷 거들고, 아직 이가 남은 노인들은 저마다 제 사과를 우물우물 씹는다. 한 노인은 큼직한 배를 몇 개 억지로 먹고는 지독한 배앓이를 얻었다.

"내 말이 그거야." 노인이 투덜댄다. "옛날엔 저런 걸 열 개는 먹었는데." 그러고는 꾸밈없는 한숨을 쉬며, 배앓이가 나기 전까지 배를 열 개나 먹어 치울 수 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

그 북새통 한가운데에 플라이크 씨가 압착기를 세워 두고 나이 많은 견습공에게 일을 거들게 했다. 그는 바덴 지방에서 사과를 들여왔고, 그의 사과즙은 늘 최상품이었다. 그는 조용히 흐뭇해하며 누구에게나 '맛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아이들은 더 흐뭇해서 둘레를 뛰어다니며 신이 나 사람 무리에 섞여 휩쓸렸다. 그러나 가장 흐뭇한 것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견습공이었다. 위쪽 숲 속 가난한 농가 출신이라 오랜만에 다시 바깥에서 힘차게 몸을 놀리며 실컷 일할 수 있어 뼛속까지 좋았고, 달콤한 햇즙도 기막히게 잘 넘어갔다. 건강한 시골 소년의 얼굴이 사티로스 가면처럼 히죽거렸고, 그의 구두장이 손은 어느 일요일보다도 깨끗했다.

한스 기벤라트는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말없이 쭈뼛거렸다.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첫 압착기에서부터 누가 잔을 내밀었다. 나솔트네 리제였다. 그는 맛을 보았고, 들이켜는 순간 달콤하고 힘찬 사과즙 맛과 함께 지난 가을들의 웃음 띤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으며, 다시 한 번 조금 끼어들어 즐겁게 놀고 싶은 수줍은 마음도 함께 일었다. 아는 사람들이 말을 걸고 잔을 권했으며, 플라이크네 압착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모두의 즐거움과 술이 그를 사로잡아 딴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아주 쾌활하게 구두장이에게 인사하고, 사과즙 짤 때 흔히 하는 농담을 몇 마디 했다. 구두장이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즐겁게 그를 맞았다.

반 시간쯤 지났을 때, 파란 치마를 입은 처녀 하나가 오더니 플라이크와 그의 견습공에게 웃어 보이고는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아, 그렇지." 구두장이가 말했다. "얘는 하일브론에서 온 내 조카다. 이 애야 물론 다른 가을걷이에 익숙하지. 고향에서는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

처녀는 열여덟이나 열아홉쯤 되어 보였고, 저지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몸놀림이 재고 쾌활했으며,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매가 좋고 풍만했다. 동그란 얼굴에서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검은 눈과 입 맞추고 싶어지는 예쁜 입술이 쾌활하고 영리해 보였고, 통틀어 말하자면 건강하고 명랑한 하일브론 처녀로는 보였지만 경건한 구두장이의 친척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처녀는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 사람이었고, 그 눈은 저녁과 밤에 성경과 고스너의 『보석 상자』[1]를 읽곤 하는 사람의 눈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스는 갑자기 다시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어, 에마가 얼른 가 버렸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에마는 그대로 남아 웃고 재잘거렸고 어떤 농담에도 재빨리 받아쳤으며, 한스는 부끄러워져서 아주 입을 다물어 버렸다. 존댓말을 써야 하는 처녀들과 어울리는 일은 그러잖아도 끔찍했는데, 이 처녀는 이토록 생기 있고 말이 많으며 그가 곁에 있든 말든, 그가 수줍어하든 말든 거의 개의치 않았으므로, 그는 어쩔 줄 모르고 조금 마음이 상해서 수레바퀴에 스친 길 달팽이처럼 더듬이를 거두어들이고 움츠러들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따분해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아서, 그 대신 방금 누가 죽기라도 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에마 자신은 더더욱 그랬다. 한스가 얻어들은 바로는 에마는 두 주 전부터 플라이크네 집에 다니러 와 있었는데, 벌써 온 도시 사람을 다 알았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며 햇즙을 맛보고, 농담을 하고 조금 웃다가 다시 돌아와 열심히 일하는 시늉을 했으며, 아이들을 안아 주고 사과를 나누어 주며 주위에 웃음과 흥을 뿌렸다. 골목 개구쟁이를 만나면 누구에게나 말을 걸었다. "사과 줄까?" 그러고는 뺨이 빨간 예쁜 사과를 하나 집어 두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알아맞혀 보라고 했다. "어디 맞혀 봐, 오른손? 왼손?" 그러나 사과는 한 번도 맞힌 손에 들어 있지 않았고, 아이들이 투덜대기 시작해야 비로소 사과를 하나 내주었는데, 그것도 더 작고 퍼런 것이었다. 에마는 한스에 관해서도 들은 것이 있는 듯, 늘 두통을 앓는다는 게 그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벌써 이웃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한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플라이크가 그의 손에 지렛대를 쥐여 주었다.

"자, 이제 네가 좀 해라. 에마가 도와줄 거다. 나는 작업장에 가 봐야겠다."

구두장이는 갔고, 견습공은 안주인과 함께 사과즙을 날라 가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래서 한스는 에마와 단둘이 압착기에 남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원수와 싸우듯이 일했다.

그러다가 지렛대가 왜 이렇게 무겁게 돌아가나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들자, 처녀가 밝은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삼아 지렛대에 몸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한스가 이번에는 화가 나서 다시 당기자 에마는 또 한 번 그렇게 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처녀의 몸이 버티고 있는 지렛대를 밀다 보니 갑자기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해졌고, 차츰 돌리던 손을 아주 멈추고 말았다. 달콤한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젊은 처녀가 당돌하게 그의 얼굴을 보며 웃었을 때, 에마가 갑자기

달라 보였다. 더 친해진 듯하면서도 더 낯설었다. 이제 그도 조금 웃었다. 서툴게, 허물없이.

그리고 이윽고 지렛대는 아주 멈추었다.

그러자 에마가 말했다. "우리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러고는 방금 자기가 마시던, 반쯤 남은 잔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 한 모금의 사과즙은 아주 독하고 아까 것보다 더 달게 느껴졌고, 다 마시고 나서 그는 빈 잔을 아쉬운 듯 들여다보며, 심장이 왜 이렇게 세차게 뛰는지, 숨쉬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의아해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다시 조금 일했다. 처녀의 치맛자락이 자기를 스치고 처녀의 손이 자기 손에 닿을 수밖에 없도록 자리를 잡으려 애쓰면서도, 한스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렵고도 황홀하여 심장이 멎는 듯했고, 기분 좋게 달콤한 기운 빠짐이 그를 덮쳐 무릎이 조금 떨리고 머릿속에서 어지러운 소리가 웅웅거렸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에마의 말에 꼬박꼬박 대꾸했고, 에마가 웃으면 따라 웃었으며, 에마가 바보 같은 장난을 치면 몇 번 손가락을 들어 을러 보였고, 에마의 손에서 잔을 두 번 더 받아 비웠다. 동시에 숱한 기억이 떼를 지어 그의 곁을 달려 지나갔다. 저녁이면 대문간에서 사내들과 함께 서 있던 하녀들, 이야기책에서 읽은 몇 문장, 그때 헤르만 하일너가 해 준 입맞춤, 그리고 "처녀애들"이니 "애인이 있으면 어떤지"니 하는 숱한 말과 이야기와 학생들의 은밀한 수다였다. 그리고 그는 비탈길에서 짐을 끄는 말처럼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둘레의 사람들과 법석은 울긋불긋 웃는 구름 같은 것으로 녹아 버렸으며, 낱낱의 목소리와 욕지거리와 웃음소리는 하나로 뭉쳐 흐릿하게 웅웅대는 소리에 묻혔고, 강과 옛 다리는 멀리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마도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는 에마의 얼굴을 더는 보지 못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검고 즐거운 눈과 붉은 입, 그 뒤의 하얗고 뾰족한 이뿐이었다. 그 몸도 흩어져 버려서 그는 그 낱낱만을 보았다. 검은 스타킹 위의 단화 한 짝이 보이는가 하면 목덜미에서 헤매는 곱슬머리 한 타래가 보였고, 파란 천 속으로 사라지는 햇볕에 그을린 동그란 목이 보이는가 하면 팽팽한 어깨와 그 아래 숨결 따라 오르내리는 물결이 보였으며, 또 불그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귀가 보였다.

그리고 또 얼마쯤 지나 에마가 잔을 함지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는데, 그때 함지 가장자리에서 에마의 무릎이 그의 손목을 눌렀다. 그도 몸을 굽혔다. 그러나 더 천천히 굽혔고, 얼굴이 에마의 머리카락에 닿을 듯했다. 머리카락에서는 희미한 향기가 났고, 그 아래 헝클어진 곱슬머리의 그늘 속에서 아름다운 목덜미가 따뜻한 갈색으로 빛나며 파란 윗옷 허리로 이어졌는데, 잔뜩 당겨진 훅 사이 틈으로 그 살결이 조금 더 비쳐 보였다.

에마가 다시 몸을 일으킬 때, 에마의 무릎이 그의 팔을 따라 미끄러지고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치고, 몸을 굽혔던 탓에 에마의 얼굴이 새빨개졌을 때, 한스의 온몸으로 세찬 전율이 달려갔다. 그는 창백해졌고, 한순간 깊고 깊은 피로를 느껴 압착기 나사를 붙들어야 했다. 심장이 경련하듯 오르내렸고, 두 팔은 힘이 빠져 어깨가 아팠다.

그때부터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처녀의 눈길을 피했다. 그 대신 에마가 다른 데를 볼 때면 처음 겪는 쾌락과 양심의 가책이 뒤섞인 마음으로 에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졌고, 아득한 푸른 해안을 거느린 새롭고 낯설게 마음을 끄는 땅이 그의 영혼 앞에 열렸다. 제 안의 이 두근거림과 달콤한 괴로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아직 몰랐다. 아니, 어렴풋이 짐작만 했고, 제 안에서 무엇이 더 큰지, 괴로움인지 쾌락인지도 몰랐다.

쾌락은 그의 젊은 사랑의 힘이 거둔 승리와, 거대한 삶에 대한 첫 예감을 뜻했다. 그리고 괴로움은 아침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 그의 영혼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뜻했다. 첫 난파를 가까스로 벗어난 그의 가벼운 조각배는 이제 새로운 폭풍의 손아귀에 들었고, 기다리고 있는 여울과 목을 부러뜨릴 암초 가까이로 들어섰다. 그 사이를 지날 때는 아무리 잘 이끌린 젊음에게도 길잡이가 없고, 저마다 제 힘으로 길과 구원을 찾아야 한다.

마침 견습공이 돌아와 압착기 일을 넘겨받은 것은 다행이었다. 한스는 한동안 더 머물렀다. 에마가 한 번 더 몸을 스치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주기를 아직 바랐다. 에마는 다시 남의 압착기들을 돌며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한스는 견습공 보기가 쑥스러워서 15분쯤 뒤 작별 인사도 없이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름답고 가슴 설레게. 찌꺼기를 먹고 살찐 참새들이 시끄럽게 하늘을 가로질렀다. 하늘은 이토록 높고 아름답고 그리움에 젖은 듯 파랬던 적이 없었다. 강이 이토록 맑고 초록빛 도는 파란색으로 웃는 거울이었던 적도, 둑이 이토록 눈부시게 하얗게 부서지며 소리친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로 칠한 고운 그림처럼 맑고 산뜻한 유리창 뒤에 서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큰 잔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제 가슴속에서도 그는 묘하게 대담한 감정들과 처음 품어 보는 강렬한 희망들이 숨 막히게 세차게, 두렵고도 달콤하게 출렁이는 것을 느꼈고, 그와 함께 이건 꿈일 뿐이고 결코 이루어질 리 없다는, 수줍게 의심하는 두려움도 느꼈다. 이 엇갈린 감정들은 부풀어 올라 어둡게 솟구치는 샘이 되었다. 무언가 너무도 센 것이 그의 안에서 풀려나 숨통을 트려는 것 같았다. 어쩌면 흐느낌일지도, 어쩌면 노래나 외침이나 큰 웃음일지도 몰랐다. 집에

와서야 이 흥분은 조금 가라앉았다. 집에서는 물론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다.

"어디 갔다 오냐?" 기벤라트 씨가 물었다.

"방앗간에 있는 플라이크 아저씨네서요."

"그 사람은 얼마나 짰냐?"

"두 통인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가 사과즙을 짤 때 플라이크네 아이들을 불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나는 다음 주에 짠다. 그때 데려오기만 해라!"

저녁 식사까지는 아직 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한스는 뜰로 나갔다. 전나무 두 그루 말고는 푸른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는 개암나무 회초리를 하나 꺾어 공중에 휙휙 휘두르고, 그것으로 시든 잎을 이리저리 들쑤셨다. 해는 벌써 산 뒤로 넘어갔고, 산의 검은 윤곽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그려진 전나무 우듬지들을 인 채 초록빛 도는 파랗고 촉촉하게 맑은 저녁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노랗고 갈색으로 불그레하게 물든 길쭉한 잿빛 구름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배처럼 천천히, 흐뭇하게, 엷은 금빛 공기 속을 지나 골짜기 위쪽으로 떠갔다.

저녁의 무르익고 빛깔 그득한 아름다움이 낯설고도 묘하게 그를 사로잡았고, 한스는 뜰을 거닐었다. 이따금 그는 멈춰 서서 눈을 감고 에마를 떠올려 보려 했다. 압착기 맞은편에 서 있던 모습, 제 잔으로 그에게 마시게 하던 모습, 함지 위로 몸을 굽혔다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일어서던 모습을. 그는 에마의 머리카락과 꼭 끼는 파란 옷을 입은 몸매와 목과, 검은 잔머리로 갈색 그늘이 진 목덜미를 보았고, 그 모든 것이 그를 쾌락과 떨림으로 가득 채웠다. 다만 그 얼굴만은 아무리 해도 더는 떠올릴 수가 없었다.

해가 지고 나서도 그는 서늘함을 느끼지 못했고, 깊어 가는 어스름을 이름 모를 비밀로 가득 찬 너울처럼 느꼈다. 그는 자기가 하일브론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핏속에서 깨어나는 사내다움이 벌이는 일은 낯설고 신경이 곤두서며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상태로만 어렴풋이 짐작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는 동안, 달라진 제 모습을 안고 오래 눈에 익은 것들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 그에게는 묘했다. 아버지와 늙은 하녀와 식탁과 그릇과 방 전체가 갑자기 늙어 버린 것 같았고, 그는 방금 먼 여행에서 돌아오기라도 한 듯 그 모든 것을 놀라움과 낯섦과 다정함이 섞인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죽음의 나뭇가지에 마음을 두던 무렵, 그는 같은 사람들과 같은 물건들을 작별하는 사람의 서글프고도 초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지금은 돌아옴이었고, 놀라움이었고, 미소였고, 다시 가짐이었다.

밥을 다 먹고 한스가 막 일어나려는데 아버지가 늘 하던 대로 짤막하게 말했다. "기계공이 되고 싶으냐, 서기가 되고 싶으냐, 한스?"

"왜요?" 한스가 놀라서 되물었다.

"다음 주 말에 기계공 슐러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시청에 견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잘 생각해 봐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한스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그는 어리둥절하고 눈앞이 아찔했다. 몇 달 동안 낯설어진 나날의 바쁘고 싱싱한 삶이 뜻밖에 그 앞에 나타나, 꾀는 얼굴과 을러대는 얼굴을 하고서 약속하며 요구했다. 그는 기계공에도 서기에도 딱히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수공업의 고된 몸일이 조금 겁났다. 그때 학교 친구 아우구스트가 떠올랐다. 아우구스트는 기계공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볼 수 있을 터였다.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빛이 바랬고, 그 일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았다. 다른 무언가가 그를 몰아대며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불안하게 현관 복도를 오락가락하다가 갑자기 모자를 집어 들고 집을 나서 천천히 골목으로 나갔다. 오늘 에마를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다. 가까운 술집에서 고함 소리와 쉰 목소리의 노래가 건너왔다. 여러 창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하나 또 하나 불이 켜지며 어두운 공기 속에 희미한 붉은 빛을 드리웠다. 팔짱을 낀 처녀들이 길게 한 줄로 늘어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즐겁게 골목을 내려갔다. 그 줄은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비틀거리며, 젊음과 기쁨의 따뜻한 물결처럼 잠들어 가는 골목들을 흘러갔다. 한스는 오래도록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다. 커튼을 친 창문 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 우물가에서는 한 아낙이 상추를 씻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는 젊은이 둘이 저마다 애인을 데리고 거닐었다. 하나는 처녀의 손을 느슨하게 잡고 그 팔을 흔들며 시가를 피웠다. 두 번째 쌍은 천천히, 서로 꼭 껴안은 채 걸어갔다. 젊은이는 처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처녀는 어깨와 머리를 젊은이의 가슴에 바싹 기대었다. 한스는 그런 모습을 백 번은 보았으면서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에는 은밀한 뜻이, 흐릿하지만 음탕하게 달콤한 의미가 있었다. 그의 눈길은 그 한 쌍에 머물렀고, 그의 상상은 무언가를 예감하며 곧 손에 잡힐 깨달음 쪽으로 밀려갔다. 숨이 막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들린 채, 그는 자기가 큰 비밀에 다가섰다고 느꼈다. 그것이 황홀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그 둘 다를 떨면서 미리 조금씩 맛보았다.

플라이크네 작은 집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열한두

살 소년이던 시절 자주 이곳에 오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플라이크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옥이며 악마며 유령에 관해 쏟아지는 그의 호기심 어린 물음을 끝까지 받아 주었다. 그런 추억이 거북했고 양심에 찔렸다. 그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다. 사실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몰랐다. 그래도 무언가 은밀하고 금지된 것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두운 데서 구두장이의 집 문 앞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은 구두장이에게 잘못하는 일 같았다. 그리고 구두장이가 자기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거나 지금 문을 열고 나온다면 아마 꾸짖지도 않고 웃어 버릴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는 집 뒤로 살금살금 돌아갔고, 이제 뜰 울타리에서 불 켜진 거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구두장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인은 무언가를 꿰매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고, 맏아들은 아직 자지 않고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에마는 아무래도 치우는 중인 모양으로 이리저리 오가서, 그는 에마를 늘 잠깐씩밖에 볼 수 없었다. 어찌나 조용한지 골목에서 아주 멀리 나는 발소리까지, 그리고 뜰 너머 강물이 나직이 흐르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어둠과 밤 냉기가 서둘러 짙어졌다.

거실 창들 옆으로 그보다 작은 복도 창 하나가 어둡게 나 있었다. 한참 뒤 이 작은 창에 흐릿한 형체 하나가 나타나 몸을 내밀고 어둠 속을 내다보았다. 한스는 몸매를 보고 에마인 것을 알아보았고, 두근거리는 기대로 심장이 멎었다. 에마는 창가에 선 채 오래도록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에마가 자기를 보는지, 알아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에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갈피 못 잡는 두려움 속에서 에마가 자기를 알아보기를 바라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흐릿한 형체가 다시 창에서 사라지더니 곧바로 작은 뜰 문이 딸깍 소리를 냈고 에마가 집에서 나왔다. 한스는 처음에 놀라서

달아나려 했지만 넋을 놓고 울타리에 기댄 채로, 처녀가 어두운 뜰을 지나 천천히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에마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그를 몰아댔지만 그보다 센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이제 에마는 바로 그의 앞에 섰다. 반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 사이에는 낮은 울타리뿐이었다. 에마는 그를 유심히, 묘하게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에마가 나직이 물었다.

"뭘 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에마가 자기에게 말을 놓았다는 것이 쓰다듬는 손길처럼 그의 살갗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에마는 울타리 너머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수줍고 다정하게 그 손을 잡아 살며시 쥐었다가, 손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따뜻한 처녀의 손을 가만가만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래도 손이 순순히 그에게 맡겨져 있자 그는 그 손을 제 뺨에 댔다. 파고드는 쾌락과 묘한 따뜻함과 행복한 피로가 물밀듯 그의 온 존재를 휩쓸었다. 둘레의 공기는 미지근하고 따뜻한 산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눅눅하게 느껴졌고, 그에게는 골목도 뜰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는 환한 얼굴 하나와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뿐이었다.

그리고 처녀가 아주 나직이 물었을 때, 그 말은 아득히 먼 밤 저편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나한테 입 맞춰 줄래?"

환한 얼굴이 다가왔다. 몸의 무게에 울타리 널빤지가 조금 바깥쪽으로 휘었고, 헝클어진 채 은은히 향기 나는 머리카락이 한스의 이마를 스쳤으며, 하얗고 넓은 눈꺼풀과 검은 속눈썹에 덮인 감은 두 눈이 그의 눈 바로 앞에 있었다. 수줍은 입술로 처녀의 입에 닿았을 때 세찬 전율이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그 순간 떨며 다시 물러섰지만, 에마가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제 얼굴을 그의 얼굴에 대고 누르며 그의 입술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에마의 입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입이 바싹 달라붙어 게걸스럽게 빨아들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의 목숨을 다 마셔 버리려는 듯이. 깊은 기운 빠짐이 그를 덮쳤다. 낯선 입술이 그에게서 떨어지기도 전에 떨리는 쾌락은 죽을 것 같은 피로와 괴로움으로 바뀌었고, 에마가 그를 놓아주었을 때 그는 비틀거리며 경련하듯 오그린 손가락으로 울타리를 붙들었다.

"있잖아, 내일 저녁에 또 와." 에마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 안으로 돌아갔다. 에마가 나와 있던 것은 5분도 되지 않았지만, 한스에게는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았다. 그는 텅 빈 눈길로 에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울타리 널을 붙잡고 있었고, 한 걸음 떼기에도 너무 피곤했다. 그는 꿈꾸듯 제 핏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피는 머릿속에서 망치질하듯 울렸고, 고르지 않게 아픈 물결을 이루며 심장에서 밀려 나갔다가 되돌아오면서 그의 숨을 막았다.

◆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열리고 구두장이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마 그때까지 작업장에 있었던 모양이었다. 누가 자기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덮쳐 그는 그 자리를 떴다. 그는 조금 취한 사람처럼 천천히, 내키지 않는 듯 휘청휘청 걸었고, 걸음마다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다. 졸린 박공과 흐린 붉은 창 눈을 단 어두운 골목들이 창백한 무대 배경처럼 그의 곁을 흘러 지나갔고, 다리와 강과 마당과 뜰도 그렇게 지나갔다. 무두장이 거리의 우물이 묘하게 크고 울리는 소리로 찰랑였다. 꿈에 사로잡힌 채 한스는 대문을 열고, 칠흑같이 어두운 통로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 문 하나를 열고 닫고 또 하나를 열고 닫은

뒤, 거기 놓인 탁자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자기가 집에, 제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동안이 지나서야 옷을 벗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옷을 벗고, 벗은 채로 창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을밤의 냉기에 몸이 떨려 베개 속으로 쫓겨 들어갔다.

금방 잠들 것 같았다. 그러나 눕자마자, 몸이 조금 따뜻해지자마자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피가 고르지 않게 세차게 끓어올랐다. 눈을 감기만 하면 처녀의 입이 아직도 제 입에 붙어서 영혼을 빨아내고 괴로운 열기로 그를 채우는 것만 같았다.

그는 늦게야 잠이 들었고, 쫓기듯 달아나며 이 꿈에서 저 꿈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무섭도록 깊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더듬더듬 손을 뻗다가 에마의 팔을 잡았고, 에마가 그를 끌어안았고, 둘은 함께 천천히 떨어지며 따뜻하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갑자기 구두장이가 거기 서서 왜 이젠 자기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스는 웃음이 터졌고, 그러자 그것이 플라이크가 아니라 헤르만 하일너라는 것을 알았다. 하일너는 마울브론 기도실 창턱에 그와 나란히 앉아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라졌고, 그는 사과 압착기 앞에 서 있었다. 에마가 지렛대에 몸을 버티고 있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거기 맞섰다. 에마가 몸을 기울여 그의 입을 찾았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칠흑같이 캄캄해졌으며, 이제 그는 다시 따뜻하고 검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어지럼과 죽음의 공포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동시에 원장이 연설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고는 아침 늦게까지 잤다. 맑고 금빛 나는 날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뜰을 오락가락하며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끈적하고 졸린 안개에 싸여 있었다. 그는 뜰의 맨 마지막 꽃인 보랏빛 과꽃이 아직 8월인 것처럼 햇빛 속에 아름답게 웃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따뜻하고 정다운 빛이 이른 봄인 것처럼 말라 버린 잔가지와

가지와 헐벗은 덩굴 둘레로 다정하게, 아양을 떨듯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보기만 할 뿐 겪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와 상관이 없었다. 갑자기 또렷하고 강한 추억 하나가 그를 사로잡았다. 이 뜰에서 아직 그의 토끼들이 뛰놀고 그의 물레바퀴와 작은 망치 방아가 돌아가던 시절의 추억이었다. 세 해 전의 어느 9월 날이 떠올랐다. 스당 기념일[2] 전날 저녁이었다. 아우구스트가 담쟁이를 들고 그를 찾아왔고, 둘은 깃대를 반들반들하게 닦고 금빛 꼭대기에 담쟁이를 매달며 내일 이야기를 하고 내일을 고대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둘은 잔치를 앞둔 예감과 큰 기쁨으로 가득했고, 깃발은 햇빛 속에 반짝였으며, 안나는 자두 케이크를 구웠고, 밤에는 높은 바위 위에서 스당 기념 불을 피우기로 되어 있었다.

한스는 왜 하필 오늘 그 저녁이 떠오르는지, 왜 이 추억이 그토록 아름답고 힘찬지, 또 왜 그것이 자기를 그토록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지 몰랐다. 이 추억의 옷을 입고 그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이 작별하려고 한 번 더 즐겁게 웃으며 그의 앞에 일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지나가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큰 행복의 가시를 남기고 가려 한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가 느낀 것은 다만, 이 추억이 에마와 어젯밤을 생각하는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때의 행복과 함께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일어섰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금빛 깃대 꼭대기가 반짝이는 것을 다시 보는 듯했고, 친구 아우구스트의 웃음소리를 듣는 듯했으며, 갓 구운 케이크 냄새를 맡는 듯했다. 그 모든 것이 그토록 밝고 행복했는데 그에게서 그토록 멀어지고 낯설어져 버려서, 그는 커다란 가문비나무의 거친 줄기에 기대어 가망 없는 흐느낌을 터뜨렸고, 그 흐느낌이 잠시나마 위안과 구원이 되어 주었다.

점심때 그는 아우구스트에게 달려갔다. 아우구스트는 이제 수석 견습공이 되어 있었고 몸이 몰라보게 벌어지고 자라 있었다. 한스는

기계공이 되는 일을 두고 자기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게 말이야, 좀 그래." 아우구스트가 세상 물정에 밝은 얼굴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게 좀 그렇다니까. 넌 약골이잖아. 첫해엔 대장일 할 때마다 그 빌어먹을 메질을 줄곧 해야 하는데, 앞메는 수프 숟가락이 아니거든. 쇠도 날라야 하고 저녁엔 치워야 하고, 줄질에도 힘이 들어. 처음에 뭘 좀 할 줄 알게 될 때까지는 헌 줄만 받는데, 그건 하나도 안 깎이고 원숭이 엉덩이처럼 반들반들하다고."

한스는 곧바로 기가 죽었다.

"그럼, 그만두는 게 낫겠네?"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에이, 누가 그렇대! 굼벵이처럼 굴지 마! 그냥 처음엔 춤판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 말고는, 그래, 기계공이란 근사한 거야, 알지? 머리도 좋아야 해. 안 그러면 대장장이나 되는 거지. 여기 좀 봐!"

그는 반들반들한 강철로 정교하게 만든 작은 기계 부품 몇 개를 가져와 한스에게 보여 주었다.

"봐, 여기선 반 밀리미터도 어긋나면 안 돼. 나사만 빼고 전부 손으로 만든 거야. 눈을 똑바로 뜨고 해야 한다고! 이제 이걸 갈고 담금질만 하면 끝이야."

"응, 멋지다. 내가 알기만 하면…"

아우구스트가 웃었다.

"겁나? 그래, 견습공은 들볶이기 마련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도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다음 금요일에 시작하면, 그때 나는 딱 견습 두 해를 채우고 토요일에 첫 주급을 받거든. 그럼 일요일엔 한판 벌이는 거야. 맥주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다들 오고, 너도 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게 될걸. 어때, 놀랍지! 게다가 우리 예전에도 그렇게 좋은 친구였잖아."

식사 때 한스는 아버지에게 기계공을 하고 싶다고, 일주일 뒤에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래, 좋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오후에 한스를 데리고 슐러네 작업장에 가서 그를 견습으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하자 한스는 그 일을 벌써 다 잊은 거나 다름없었고, 저녁에 에마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만 생각했다. 벌써부터 숨이 막혔고, 시간은 너무 길었다가 너무 짧았다가 했으며, 그는 뱃사공이 여울로 떠밀려 가듯 만남을 향해 떠밀려 갔다. 그날 저녁에는 밥 먹는 것은 말도 꺼낼 수 없었고, 우유 한 잔도 겨우 넘겼다. 그러고는 집을 나섰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다. 어둡고 졸린 골목들, 붉은 창들, 가로등의 어스름, 천천히 거니는 연인들.

구두장이네 뜰 울타리에서 그는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했고, 어둠 속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이 도둑처럼 느껴졌다. 1분도 채 기다리지 않았는데 에마가 그의 앞에 서서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쓸어 주고 뜰 쪽문을 열어 주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에마는 그를 끌고 덤불로 둘러싸인 길을 지나 조용히 뒷문으로 해서 캄캄한 집 안 통로로 들어갔다.

거기서 둘은 지하실 맨 위 계단에 나란히 앉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캄캄한 데서 서로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처녀는 기분이 좋아서 속삭이며 거침없이 재잘거렸다. 에마는 이미 입맞춤을 여러 번 맛보았고 사랑의 일에 밝아서, 수줍고 다정한 이 소년이 그저 안성맞춤이었다. 에마는 그의 야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마와 눈과 뺨에 입맞추었다. 그리고 입술 차례가 되어 다시 그렇게 길게, 빨아들이듯 입맞추자 소년은 어지러워져 넋을 놓고 축 늘어져 에마에게 기대었다. 에마는 나직이 웃으며 그의 귀를 잡아당겼다.

에마는 쉬지 않고 재잘거렸고, 그는 듣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듣는지 몰랐다. 에마는 손으로 그의 팔과 머리카락과 목과 손을 쓸어 주었고, 제 뺨을 그의 뺨에, 제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는 잠자코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달콤한 오싹함과 깊고 행복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따금 열에 들뜬 사람처럼 짧고 가볍게 움찔하면서.

"너 참 별난 애인이다!" 에마가 웃었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리고 에마는 그의 손을 잡아 제 목덜미와 머리카락 속을 쓸게 하고는 그 손을 제 가슴에 얹고 몸을 바싹 갖다 댔다. 그는 부드러운 생김새와 낯설고 달콤한 출렁임을 느꼈고, 눈을 감은 채 끝없는 깊이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안 돼요! 이제 그만해요!" 에마가 다시 입 맞추려 하자 그가 밀어내며 말했다. 에마는 웃었다.

그리고 에마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겨 팔로 감싸 안고는 그의 옆구리를 제 옆구리에 꼭 붙였다. 에마의 몸이 느껴지자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너도 나 좋아해?" 에마가 물었다.

그는 네,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고, 한참 동안 계속 끄덕였다.

에마는 한 번 더 그의 손을 잡더니 장난스레 제 코르셋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낯선 생명의 맥박과 숨결이 그렇게 뜨겁고 가까이 느껴지자 그는 심장이 멎는 듯했고, 숨이 하도 가빠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손을 빼며 신음하듯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일어서려다 그는 비틀거렸고, 하마터면 지하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왜 그래?" 에마가 놀라 물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에마가 뜰 울타리까지 가는 길에 그를 부축하며 몸을 바싹 붙인 것도 그는 느끼지 못했고, 에마가 잘 자라고 인사하고 그의 뒤로 작은 문을 닫은 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골목을 지나 집에 왔지만 어떻게 왔는지 몰랐다. 큰 폭풍이 자기를 휩쓸어 가는 것 같기도 했고, 거센 물결이 자기를 흔들흔들 실어 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좌우의 창백한 집들과, 그 위 높이 솟은 산등성이와 전나무 우듬지와 밤의 어둠과 크고 고요한 별들을 보았다. 그는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고, 강물이 다리 기둥을 스치며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으며, 물속에 비친 뜰과 창백한 집들과 밤의 어둠과 가로등과 별들을 보았다.

다리 위에서 그는 앉아야 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난간에 걸터앉아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물은 다리 기둥에 몸을 비비고, 둑에서 소리치고, 방앗간 쇠살대에서 풍금처럼 울었다. 손은 차가웠고, 가슴과 목에서는 피가 막혔다가 거꾸러질 듯 몰려가며 눈앞을 캄캄하게 했고, 다시 갑작스러운 물결이 되어 심장으로 흘러가 머리를 어지럼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집에 와서 제 방을 찾아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엄청난 공간을 지나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밤중에 그는 괴롭고 기진맥진해서 깨어났고, 아침까지 잠과 깸 사이에 누워 목마른 그리움에 가득 찬 채 다스릴 수 없는 힘들에 이리저리 내던져지다가, 이른 새벽에 마침내 그의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이 긴 울음으로 터져 나와 눈물에 젖은 베개 위에서 다시 한 번 잠이 들었다.

---

1. 고스너의 『보석 상자』는 날마다 읽을 성경 구절과 묵상을 모은 경건 서적이다.

2. 스당 기념일은 1870년 9월 2일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긴 날을 기리는 독일의 명절이다.

제7장

기벤라트 씨는 위엄 있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과 압착기를 다루었고 한스는 일을 거들었다. 구두장이네 아이들 가운데 둘이 초대에 응해 와서 과일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맛보기 잔 하나를 둘이 함께 쓰고, 주먹에는 엄청나게 큰 흑빵 조각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에마는 함께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통장이와 함께 반 시간쯤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한스는 용기를 내어 에마에 관해 물었다.

"에마는 어디 있니? 오기 싫대?"

꼬마들은 입 안에 든 것을 다 넘기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에마는 벌써 갔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갔다니, 어디로?"

"집에."

"떠났다고? 기차 타고?"

아이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오늘 아침에."

꼬마들은 다시 사과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한스는 압착기를 이리저리 누르며 사과즙 양동이를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사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왔고, 다들 일하며 웃었고, 아이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뛰어갔으며, 저녁이 되자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은 뒤 한스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열 시가 되고 열한 시가 되었지만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러다가 깊이, 오래 잠들었다.

여느 때보다 늦게 깨어났을 때 그는 무언가 불행한 일이 있었고 무언가를 잃었다는 흐릿한 느낌만 있었는데, 이윽고 에마가 다시 떠올랐다. 에마는 떠나 버렸다. 인사도 작별도 없이. 그가 마지막 저녁에 에마 곁에 있었을 때, 에마는 언제 떠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에마의 웃음과 입맞춤과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듯한 몸가짐을 떠올렸다. 에마는 그를 조금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일 때문에 성이 나고 아픈 마음에, 들뜬 채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힘이 불러일으키는 불안이 한데 엉겨 흐릿한 괴로움이 되었고, 그 괴로움이 그를 집에서 뜰로, 길로, 숲으로, 다시 집으로 몰아댔다.

그렇게 그는, 어쩌면 너무 이르게, 사랑의 비밀에서 제 몫을 겪었다. 그 몫에는 단것은 적고 쓴 것은 많았다. 부질없는 탄식과 그리운 추억과 위로 없는 곱씹음으로 가득한 낮들이었다.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 때문에 잠들지 못하거나, 숨 막히게 무서운 꿈속으로 곤두박질치는 밤들이었다. 그 꿈속에서는 영문 모를 핏속의 들끓음이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환상의 모습으로, 죽도록 휘감는 팔로, 눈이 뜨겁게 타는 공상으로, 아찔한 낭떠러지로, 이글거리는 거대한 눈으로 바뀌었다. 깨어나 보면 그는 혼자였고, 서늘한 가을밤의 외로움에 둘러싸인 채 제 처녀를 그리워하며 눈물에 젖은 베개에 신음하듯 얼굴을 묻었다.

기계 작업장에 들어가기로 한 금요일이 다가왔다. 아버지는 그에게 파란 아마포 작업복과 반은 털실로 짠 파란 모자를 사 주었다. 그는 그 옷을 입어 보았고, 철공 작업복을 입은 자기가 딴사람 같고 꽤 우스꽝스럽다고 느꼈다. 학교 건물이나 교장 집이나 수학 교사 집,

플라이크네 작업장이나 목사관 앞을 지날 때면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 많은 고생과 부지런함과 땀, 그토록 많이 바친 작은 기쁨들, 그 많은 자부심과 공명심과 희망에 찬 꿈,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 모든 것이 고작, 이제 그가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모두의 비웃음을 받으며, 가장 어린 견습공으로 작업장에 들어가게 하려고 있었단 말인가!

하일너라면 뭐라고 할까?

그는 차츰 파란 철공 작업복과 화해하기 시작했고, 그 옷을 처음 입어 볼 금요일을 조금은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도 적어도 다시 무언가 겪을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두운 구름 속에서 번쩍하는 번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처녀가 떠난 일을 잊지 못했고, 그의 피는 이 며칠의 흥분을 더더구나 잊지도 이겨 내지도 못했다. 피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몰아대며 외쳤다. 깨어난 그리움이 풀려나기를, 아니면 혼자서는 풀기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들 사이로 이끌어 줄 길잡이를. 그렇게 시간은 답답하고 괴롭게 더디 흘러갔다.

가을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햇살이 가득했고, 은빛 새벽과 울긋불긋 웃는 한낮과 맑은 저녁이 있었다. 먼 산들은 짙은 우단 같은 파란빛을 띠었고, 밤나무들은 금빛 노랑으로 빛났으며, 담장과 울타리 너머로는 담쟁이 잎이 자줏빛으로 늘어져 있었다.

한스는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고 있었다. 낮에는 시내와 들판을 쏘다니며 사람들을 피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의 괴로움을 알아챌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녁이면 골목으로 나가 하녀마다 눈여겨보고, 연인들 뒤를 몹시 꺼림칙한 마음으로 살금살금 따라갔다. 에마와 함께 있을 때는 바랄 만한 모든 것과 삶의 모든 마법이 가까이 있다가 얄궂게도 다시 빠져나가 버린 것만 같았다. 에마 곁에서 느꼈던 괴로움과 답답함은 이제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 에마를 다시 만난다면

다시는 수줍어하지 않고, 에마에게서 모든 비밀을 빼앗아 내어 지금 그의 코앞에서 문이 닫혀 버린 마법의 사랑의 뜰 안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상상은 온통 이 후덥지근하고 위험한 덤불 속에 얽혀 들어 그 안을 겁먹은 채 헤매었고, 좁은 마법의 원 바깥에 아름답고 넓은 세상이 밝고 다정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고집스러운 자기 학대 속에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기다리던 금요일이 마침내 오자 그는 오히려 반가웠다. 아침 일찍 그는 새 파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는 조금 머뭇거리며 무두장이 거리를 내려가 슐러네 집으로 갔다. 아는 사람 몇이 궁금한 듯 그를 돌아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는 묻기까지 했다. "어라, 너 철공 됐냐?"

작업장에서는 벌써 일이 한창이었다. 주인은 마침 쇠를 벼리고 있었다. 모루 위에 시뻘겋게 단 쇳조각 하나를 올려놓고, 직인 하나가 무거운 앞메를 휘두르면 주인은 모양을 잡는 더 섬세한 메질을 하며 집게를 놀리고, 그 사이사이 손에 맞는 대장 망치로 모루를 두드려 박자를 맞추었다. 그 소리가 활짝 열린 문으로 맑고 경쾌하게 아침 속으로 울려 나갔다.

기름과 쇳가루로 새까매진 긴 작업대 앞에는 고참 직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아우구스트가 서서 저마다 제 바이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천장에서는 빠르게 도는 벨트들이 윙윙거리며 선반과 숫돌과 풀무와 천공기를 돌렸다. 이 작업장은 물의 힘으로 기계를 돌렸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트는 들어서는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주인이 짬이 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눈짓했다.

한스는 화덕과, 멈춰 있는 선반들과, 쌩쌩 도는 벨트와 헛도는 바퀴들을 쭈뼛쭈뼛 바라보았다. 주인은 쇠를 다 벼리고 나서 그에게 건너와 크고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모자는 저기 걸어라."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벽에 박힌 빈 못을 가리켰다.

"자, 이리 와라. 여기가 네 자리고 이게 네 바이스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를 맨 뒤쪽 바이스 앞으로 데려가, 무엇보다 먼저 바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작업대와 연장을 어떻게 정돈해 두어야 하는지 보여 주었다.

"네 아버지가 벌써 말하더라. 네가 헤라클레스는 못 된다고. 보아하니 그렇구나. 뭐, 우선은 기운이 좀 붙을 때까지 대장일에서는 빠져 있어도 된다."

주인은 작업대 밑으로 손을 넣어 무쇠로 된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꺼냈다.

"자, 이걸로 시작해라. 이 바퀴는 주물 공장에서 막 나온 그대로라 곳곳에 작은 혹과 거스러미가 붙어 있다. 그걸 긁어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고운 연장들이 그 때문에 망가진다."

주인은 바퀴를 바이스에 물리고 헌 줄을 하나 꺼내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었다.

"자, 이제 계속해라. 다른 줄은 절대 쓰지 마라! 점심때까지 그걸로도 할 일이 넉넉할 거다. 그때 가져와 보여라. 그리고 일할 때는 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견습공은 생각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한스는 줄질을 시작했다.

"그만!" 주인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왼손은 줄 위에 이렇게 얹는 거다. 아니면 너 왼손잡이냐?"

"아닙니다."

"그럼 됐다. 차차 될 거다."

주인은 문 옆 맨 앞의 제 바이스로 가 버렸고, 한스는 어떻게든 해 나가려고 애썼다.

처음 몇 번 줄질을 하고는 그것이 그렇게 무르고 쉽게 깎여 나가는 것이 신기했다. 그러다가 그것은 맨 위의 바스러지기 쉬운 주물 껍질이 헐겁게 벗겨져 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가 매끈하게 다듬어야 할 거친 쇠는 그 아래에야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일을 이어 갔다. 어린 시절 장난 삼아 이것저것 만들어 보던 때 이후로, 눈에 보이고 쓸모 있는 무언가가 제 손 밑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그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주인이 건너다보며 소리쳤다. "줄질은 박자를 맞춰야 한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꾹 눌러라. 안 그러면 줄이 망가진다."

그때 가장 고참인 직인이 선반에서 할 일이 생겼고, 한스는 그쪽을 곁눈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철 축 하나가 회전판에 물렸고 벨트가 걸리자, 축이 빠르게 돌며 번쩍번쩍 윙윙거렸고, 그사이 직인은 거기서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반짝이는 쇳밥을 깎아 냈다.

그리고 사방에 연장이 널려 있었다. 쇠와 강철과 놋쇠 조각, 반쯤 된 일감, 반들반들한 작은 바퀴, 정과 송곳, 온갖 모양의 선반 날과 뚫개가 놓여 있었고, 화덕 옆에는 망치와 다듬 망치, 모루 받침, 집게와 인두가 걸려 있었으며, 벽을 따라서는 줄과 깎개가 줄지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기름걸레와 작은 비, 사포 줄과 쇠톱이 놓여 있었고, 기름통과 산 병과 못 상자와 나사 상자가 여기저기 서 있었다. 숫돌은 쉴 새 없이 쓰였다.

한스는 제 손이 벌써 새까매진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의 새까맣고 기운 작업복 곁에서 지금은 우스꽝스러울 만큼 새것이고 파랗게 보이는 제 작업복도 어서 손때가 묻었으면 했다.

오전이 깊어 가면서 바깥에서도 작업장에 활기가 들어왔다. 이웃 기계 편물 공장에서 일꾼들이 작은 기계 부품을 갈거나 고치려고 찾아왔다.

농부 하나가 와서 고치려고 맡겨 둔 빨래 압착기를 찾다가, 아직 다 안 됐다는 말을 듣고는 지독하게 욕을 퍼부었다. 그다음에는 차림이 말쑥한 공장 주인이 왔고, 주인은 그와 옆방에서 흥정을 했다.

그 곁에서, 그 사이사이에도 사람과 바퀴와 벨트는 한결같이 일을 이어 갔고, 그렇게 한스는 난생처음으로 노동의 찬가를 듣고 깨달았다. 적어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가슴을 울리고 기분 좋게 취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그 찬가 속에서, 그는 자기라는 작은 사람과 자기의 작은 삶이 커다란 리듬 속에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홉 시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고, 저마다 빵 한 조각과 사과즙 한 잔을 받았다. 그제야 아우구스트가 새 견습공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한스에게 힘을 북돋우는 말을 해 주고는, 첫 주급을 동료들과 신나게 써 버릴 다음 일요일 이야기를 다시 들떠서 늘어놓았다. 한스가 자기가 줄질하고 있는 바퀴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것이 탑시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우구스트는 그 바퀴가 나중에 어떻게 돌며 일하는지도 보여 주려 했지만, 그때 수석 직인이 다시 줄질을 시작했고 모두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갔다.

열 시에서 열한 시 사이가 되자 한스는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무릎과 오른팔이 조금 아팠다. 그는 이 발에서 저 발로 무게를 옮기고 몰래 팔다리를 뻗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잠깐 줄을 놓고 바이스에 몸을 기댔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렇게 서서 쉬며 머리 위에서 벨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가벼운 몽롱함이 찾아와 그는 1분쯤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주인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래, 왜 그러냐? 벌써 피곤하냐?"

"네, 조금요." 한스가 털어놓았다.

직인들이 웃었다.

"그건 차차 나아진다." 주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땜질하는 걸 한번 봐라. 이리 와!"

한스는 땜질하는 것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먼저 인두를 달구고, 땜질할 자리에 납땜 용액을 바른 다음, 뜨거운 인두에서 하얀 쇠붙이가 똑똑 떨어지며 나직이 지글거렸다.

"걸레를 가지고 그걸 잘 문질러 닦아라. 납땜 용액은 쇠를 삭이니 어떤 쇠붙이에도 묻혀 두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한스는 다시 제 바이스 앞에 서서 줄로 그 작은 바퀴를 긁어댔다. 팔이 아팠고, 줄을 눌러야 하는 왼손은 빨갛게 되어 쓰라리기 시작했다.

점심때 수석 직인이 줄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가자, 한스는 자기가 한 일을 주인에게 가져갔다. 주인은 그것을 대충 훑어보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대로 둬도 되겠다. 네 자리 밑 상자에 같은 바퀴가 하나 더 있다. 오후에는 그걸 해라."

그러고 나서 한스도 손을 씻고 나왔다. 점심 먹을 시간이 한 시간 있었다.

예전 학교 친구였던 상점 꼬마 점원 둘이 길에서 그의 뒤를 따라오며 그를 비웃었다.

"주 시험 붙은 철공!" 하나가 외쳤다.

그는 걸음을 서둘렀다. 자기가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그는 잘 알 수 없었다. 작업장은 꽤 마음에 들었다. 다만 너무 피곤했다. 지독히 피곤해.

그리고 현관문 아래에서, 벌써 앉아서 밥 먹을 생각에 반가워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에마 생각이 났다. 오전 내내 에마를 잊고 있었다. 이제 어제와 그제의 괴로움이 갑자기 다시 그의 목덜미에 올라탔다. 어느 때 못지않게 무거웠다. 그는 살그머니 제 작은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은 괴로움에 신음했다. 울고 싶었지만 눈은 말라 있었다. 목적이 무엇인지도 흐릿한 채 사람을 갉아먹는 그리움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거기 몸을 내맡겼다. 그 그리움은 잔인한 병처럼 그를 파먹었다. 머릿속은 휘몰아치며 아팠고, 목은 삼킨 흐느낌 때문에 쓰라렸다.

점심 식사는 고역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대답하고 이야기해야 했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던지는 자잘한 농담도 받아 주어야 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뜰로 뛰어나가 햇볕 아래에서 반쯤 꿈꾸며 15분을 보냈고, 그러고 나니 다시 작업장에 갈 시간이었다.

오전에 벌써 손바닥에 빨간 굳은살이 박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정말로 아프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에는 어찌나 부었는지 무엇을 잡든 아팠다. 그리고 일을 마치기 전에 그는 아우구스트의 지시를 받아 작업장 전체를 치워야 했다.

토요일은 더 고약했다. 손이 화끈거렸고 굳은살은 물집으로 커져 있었다. 주인은 기분이 나빠서 아주 작은 일에도 욕을 했다. 아우구스트는 굳은살이 박이는 건 며칠뿐이고 그다음에는 손이 단단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위로했지만, 한스는 죽도록 불행하다고 느끼며 온종일 시계만 곁눈질했고, 가망 없이 그 작은 바퀴를 긁어 댔다.

◆

저녁에 치우다가 아우구스트가 그에게 속삭이며 알려 주었다. 내일 친구 몇과 빌라흐로 놀러 갈 텐데 아주 신나고 즐거울 것이니 한스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두 시에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한스는 그러겠다고 했다. 사실은 일요일 내내 집에 누워 있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피곤했지만. 집에서는 늙은 안나가 상처 난 손에 바를 연고를 주었다.

그는 여덟 시에 벌써 잠자리에 들어 오전까지 잤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점심을 먹다가 그는 아우구스트 이야기를 꺼내며 오늘 그와 함께 들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50페니히를 주었으며,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만 다짐받았다.

한스는 아름다운 햇빛 속에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일요일이 즐거웠다. 손이 새까매지고 팔다리가 피곤한 일하는 날들을 뒤로하고 나니 거리는 더 엄숙했고 해는 더 밝았으며 모든 것이 더 잔치 같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는 제집 앞 볕 드는 걸상에 앉아 왕처럼 흐뭇한 얼굴을 하고 있는 푸줏간 주인과 무두장이와 빵장수와 대장장이를 이해했고, 그들을 더는 한심한 무지렁이로 보지 않았다. 모자를 조금 비스듬히 쓰고, 하얀 셔츠 깃에 솔질한 나들이옷을 입고, 줄지어 거닐거나 술집으로 가는 일꾼과 직인과 견습공 들을 그는 눈으로 좇았다. 수공업자들은 늘 그렇지는 않아도 대개 저희끼리 어울렸다. 목수는 목수끼리, 미장이는 미장이끼리 뭉쳐 제 신분의 명예를 지켰고, 그 가운데 철공이 가장 점잖은 패였으며 그 맨 위가 기계공이었다. 그 모든 것에는 정겨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러는 조금 순진하고 우스꽝스럽다 해도, 그 뒤에는 수공업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이 숨어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언가 즐겁고 듬직한 것을 나타내며, 아무리 초라한 재봉사 견습공에게도 그 작은 빛이 한 줄기 비치는데, 그 빛은 어떤 공장 일꾼에게도, 어떤 상인에게도 없다.

슐러네 집 앞에 젊은 기계공들이 차분하고 자랑스럽게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음직한 한 무리를 이루어 일요일에 놀 때에도 낯선 사람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한스도 그것을 느꼈고, 그들 무리에 끼게 된 것이 기뻤다. 그러나 계획된 일요일 놀이가 조금 두려웠다. 기계공들이 삶을 즐길 때에는 거하고 푸짐하게 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춤까지 출지도 몰랐다. 춤은 한스가 출 줄 몰랐지만, 그 밖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한몫 사내 노릇을 하고, 필요하면 숙취쯤은 조금 무릅쓸 생각이었다. 그는 맥주를 많이 마셔 본 적이 없었고, 담배는 시가 한 대를 조심조심 끝까지 피우고도 탈이 나거나 망신을 당하지 않을 만큼 겨우 익혀 둔 터였다.

아우구스트는 잔칫날처럼 기뻐하며 그를 맞았다. 고참 직인은 함께 가지 않겠다지만 그 대신 다른 작업장의 동료 하나가 오기로 했으니 적어도 넷은 되고, 그만하면 온 마을을 뒤집어 놓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오늘 맥주는 누구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도 된다고, 모두의 술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 그는 한스에게 시가를 하나 권했고, 넷은 천천히 길을 나서 느긋하고 자랑스럽게 시내를 어슬렁어슬렁 지나다가, 아래쪽 보리수 광장에 이르러서야 제때 빌라흐에 닿으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강의 수면은 파랗고 금빛으로, 하얗게 반짝였고, 잎이 거의 다 진 가로수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사이로 10월의 부드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으며, 높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밝게 파랬다. 지나간 여름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픔 없이 미소 짓는 추억처럼 부드러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고요하고 맑고 다정한 가을날 가운데 하루였다. 그런 날이면 아이들은 계절을 잊고 꽃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창가에서나 집 앞 걸상에서 생각에 잠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본다. 한 해의 정다운 추억뿐 아니라 지나온 평생의 정다운 추억이 맑은 파란 하늘을 지나 눈에 보이게 날아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신이 나서, 저마다 타고난 재주와 성미에 따라 술을 바치거나 제물을 잡아, 노래나 춤으로, 술잔치나 거창한 주먹다짐으로

이 아름다운 날을 기린다. 곳곳에서 갓 구운 과일 케이크가 나오고, 지하실에서는 햇사과즙이나 포도주가 괴어 오르며, 술집 앞과 보리수 광장마다 바이올린이나 손풍금이 한 해의 마지막 아름다운 날들을 기리면서 춤과 노래와 사랑 놀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빠르게 걸어갔다. 한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가를 피웠고, 그것이 조금도 탈이 나지 않는 데 자기도 놀랐다. 직인은 제 편력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가 허풍을 떨어도 아무도 언짢아하지 않았다. 그것도 놀이의 한 부분이었다. 아무리 수수한 직인이라도 일자리를 얻어 밥벌이를 하고 있고 증인이 나설 염려가 없으면, 제 편력 시절을 거창하고 신나게, 아니 전설처럼 이야기한다. 떠돌이 직인 생활의 놀라운 시학은 온 백성의 공동 재산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옛 모험담을 새로운 아라베스크로 꾸며 새로 지어내고, 어느 뜨내기와 동냥꾼이든 이야기에 빠져들면 그 안에 불멸의 오일렌슈피겔과 불멸의 슈트라우빙거[1]를 한 조각씩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말이야, 이런, 거긴 정말 사는 것 같았지! 내가 그 이야기 안 했던가? 돈 많은 장사꾼 하나가, 그 번드르르한 원숭이 같은 놈이 우리 주인 딸한테 장가들려고 했거든. 그런데 그 딸이 그놈을 돌려보냈어. 내가 한 수 더 좋았던 거지. 넉 달 동안 내 애인이었다고. 그 영감하고 싸움만 안 했으면 지금쯤 거기 눌러앉아서 그 집 사위가 돼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 주인, 그 망할 놈이, 그 비열한 인간 장수가 자기를 들볶으려 들더니 한번은 감히 손을 쳐들었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장 망치를 쳐들고 영감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더니, 그 영감이 제 대가리가 아까워서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가 버리고는 나중에 글로 해고를 통지하더라고 했다. 그 겁쟁이 멍청이가 말이다. 그리고 그는 오펜부르크의 큰 싸움 이야기도

했다. 철공 셋이, 자기도 거기 끼어서, 공장 일꾼 일곱을 반쯤 죽도록 두들겨 팼다는데, 오펜부르크에 가거든 키다리 쇼르슈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 친구는 아직 거기 있고 그때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냉정하고 거친 말투로, 그러나 속으로는 크게 열을 올리며 흐뭇하게 전해졌고, 듣는 사람마다 깊이 즐거워하며 나중에 언젠가 다른 데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기도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철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제 주인 딸을 애인으로 둔 적이 있고, 한 번쯤 못된 주인에게 망치를 들고 덤빈 적이 있으며, 한 번쯤 공장 일꾼 일곱을 흠씬 두들겨 팬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어떤 때는 바덴 지방에서, 어떤 때는 헤센이나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어떤 때는 망치 대신 줄이나 시뻘겋게 단 쇠였으며, 어떤 때는 공장 일꾼 대신 빵장수나 재봉사였지만, 언제나 그 옛이야기들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 들어도 즐겁다. 그 이야기들은 오래되고 훌륭하며 동업 조합에 명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떠돌이 직인들 가운데 체험의 천재나 지어내기의 천재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 둘은 따지고 보면 같은 것이다.

특히 아우구스트는 넋을 잃고 즐거워했다. 그는 줄곧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벌써 반쯤은 직인이 된 기분으로 시가 맛을 아는 사람처럼 시큰둥한 얼굴을 하고 금빛 공기 속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직인은 제 역할을 계속해 나갔다. 그가 함께 어울려 준 것을 너그러운 선심인 양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다. 직인으로서 그는 사실 일요일에 견습공들과 어울릴 처지가 아니었고, 꼬마의 푼돈을 술값으로 함께 축내 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일행은 강을 따라 큰길을 한참 내려갔다. 이제 천천히 오르며 굽이굽이 산으로 올라가는 수레 길과, 거리가 반밖에 안 되는 가파른 오솔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했다. 그들은 멀고 먼지가 날려도 수레

길을 골랐다. 오솔길은 일하는 날에나, 산책하는 신사들에게나 어울린다. 그러나 백성은, 특히 일요일에는 큰길을 사랑한다. 큰길의 시학을 그들은 아직 잃지 않았다.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는 것은 농사꾼이나 도시의 자연 애호가나 할 일이고, 그것은 노동이거나 운동이지 백성의 즐거움이 아니다. 그에 비해 큰길은 어떤가! 편하게 나아가며 수다를 떨 수 있고, 장화와 나들이옷이 상하지 않고, 수레와 말을 보고, 다른 한량들을 만나고 앞지르고, 차려입은 처녀들과 노래하는 젊은이 무리와 마주치고, 뒤에서 농담이 날아오면 웃으며 되받아치고, 멈춰 서서 수다를 떨고, 혼자 몸이면 줄지어 가는 처녀들 뒤를 쫓아가며 웃어 대고, 저녁이면 좋은 친구들과 쌓인 사사로운 다툼을 몸으로 드러내어 셈을 치를 수도 있는 곳이 아닌가! 떠돌이 직인이 즐겁고 편하고 수확도 많은 큰길을 오솔길과 바꿀 만큼 어리석은 적이 없듯이, 도시의 소시민도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일행은 수레 길로 갔다. 길은 시간이 넉넉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크게 굽이를 그리며 느긋하고 다정하게 산으로 올라갔다. 직인은 웃옷을 벗어 지팡이에 걸어 어깨에 메었고, 이야기하는 대신 이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 휘파람이 어찌나 대담하고 신명 나던지, 그는 한 시간 뒤 빌라흐에 닿을 때까지 줄곧 불었다. 한스를 두고 놀리는 말이 몇 마디 오갔지만 한스는 크게 개의치 않았고, 그 놀림은 한스 자신보다 아우구스트가 더 열심히 막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일행은 빌라흐 앞에 섰다.

◆

마을은 붉은 기와지붕과 은회색 초가지붕을 이고 가을빛으로 물든 과일나무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고, 뒤로는 어두운 산 숲이 굽어보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어느 술집에 들를지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닻' 술집은 맥주가 가장 좋았고 '백조' 술집은 케이크가 가장 맛있었으며, '모퉁이' 술집에는 예쁜 주인 딸이 있었다. 마침내 아우구스트가 '닻'으로 가자고 밀어붙이면서, 몇 잔 마시는 동안 '모퉁이'가 달아나지는 않을 테니 나중에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눈을 찡긋하며 넌지시 말했다. 모두 그게 좋다고 했고, 그래서 일행은 마을로 들어가, 외양간들과 제라늄 화분을 놓은 나지막한 농가 창들을 지나 '닻'으로 향했다. 그 집의 금빛 간판이 둥글고 어린 밤나무 두 그루 너머에서 햇빛에 번쩍이며 손짓했다. 기어이 안에 앉고 싶어 한 직인에게는 안됐지만 술청은 사람으로 꽉 차서 일행은 뜰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닻'은 손님들이 보기에 고급 술집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식 시골 술집이 아니라, 창이 너무 많고 걸상 대신 의자를 놓았으며 양철로 된 울긋불긋한 광고판을 잔뜩 붙인 최신식 벽돌 상자였다. 게다가 도시풍으로 차려입은 여급이 있었고, 셔츠 바람인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언제나 유행 따라 지은 갈색 양복을 빼입고 있는 주인이 있었다. 이 주인은 사실 파산했지만 가장 큰 빚쟁이인 큰 맥주 양조업자에게서 제집을 도로 세내어 썼고, 그 뒤로 더욱 거드름을 피웠다. 뜰이라야 아카시아 한 그루와, 담쟁이가 아직 절반쯤 뒤덮은 큰 철망 울타리가 전부였다.

"다들 건배!" 직인이 외치며 셋과 차례로 잔을 부딪쳤다. 그리고 제 솜씨를 보여 주려고 한 잔을 단숨에 다 비웠다.

"이봐요, 예쁜 아가씨,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얼른 한 잔 더 가져와요!" 그는 여급에게 외치며 탁자 너머로 빈 맥주잔을 내밀었다.

맥주는 아주 훌륭했다. 차갑고 너무 쓰지도 않았다. 한스는 즐겁게 제 잔을 맛보았다. 아우구스트는 맛을 아는 사람의 얼굴로 마시며 혀를

쩝쩝 차고, 그 틈틈이 불 잘 안 드는 난로처럼 연기를 뿜어 댔다. 한스는 속으로 그것이 부러웠다.

이렇게 신나는 일요일을 보내며,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큼 일한 사람처럼, 삶을 즐기고 흥겹게 놀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술집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나쁘지 않았다. 함께 웃고 이따금 자기도 농담을 한번 던져 보는 것은 좋았다. 잔을 다 비운 뒤 힘주어 탁자에 탕 내려놓고 대수롭지 않게 "한 잔 더요, 아가씨!" 하고 외치는 것은 좋았고 사내다웠다. 다른 탁자의 아는 사람에게 잔을 들어 보이고, 식은 시가 꽁초를 왼손에 늘어뜨린 채 다른 사람들처럼 모자를 뒤통수로 밀어 젖히는 것도 좋았다.

함께 온 다른 작업장 직인도 이제 몸이 달아올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울름의 어떤 철공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맥주를, 그것도 좋은 울름 맥주를 스무 잔이나 마실 수 있었고, 다 마시고 나면 입을 쓱 닦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자, 이제 좋은 포도주나 한 병!" 그리고 칸슈타트에서는 소시지를 열두 개나 잇달아 먹어 치우고 그것으로 내기에 이긴 화부를 알았다. 그러나 그 화부는 두 번째 그런 내기에서는 졌다. 작은 술집의 차림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 치우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실제로 거의 다 먹었는데, 차림표 끝에 치즈가 네 가지 나왔다. 그가 세 번째 치즈에 이르렀을 때 접시를 밀어내며 말했다. "이제 한 입 더 먹느니 차라리 죽겠소!"

이 이야기들도 큰 박수를 받았고, 세상 여기저기에 지칠 줄 모르고 마시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마다 그런 영웅과 그의 위업을 하나씩은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슈투트가르트의 어떤 사내"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루트비히스부르크였을걸, 어떤 용기병"이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감자 열일곱 개였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샐러드를

곁들인 팬케이크 열한 장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사실 그대로라는 듯 진지하게 늘어놓았고, 세상에는 갖가지 훌륭한 재주와 별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는 엉뚱한 괴짜들도 있다는 깨달음에 흐뭇하게 빠져들었다. 이 흐뭇함과 이 사실 존중은 모든 단골 술꾼 속물근성이 물려받은 오래되고 존경스러운 유산이며, 젊은이들은 술 마시기와 정치 이야기와 담배와 결혼과 죽음을 흉내 내듯이 그것도 흉내 낸다.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한스가 케이크는 없느냐고 물었다. 여급을 불러 보니 케이크는 없다고 했고, 모두 그 일로 지독하게 흥분했다. 아우구스트는 일어서서, 케이크조차 없다면 한 집 건너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다른 작업장 직인은 형편없는 술집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프랑크푸르트 직인만 그냥 있자고 했는데, 여급과 조금 수작을 벌이며 벌써 여러 번 여급을 진하게 쓰다듬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 광경이 맥주와 함께 그를 묘하게 들뜨게 했다. 이제 자리를 뜨게 되어 그는 다행이었다.

셈을 치르고 모두 길로 나섰을 때, 한스는 석 잔의 맥주 기운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반은 피로이고 반은 무엇이든 해 보고 싶은 마음인 기분 좋은 느낌이었고, 눈앞에 얇은 너울 같은 것이 드리워져 모든 것이 그 너머로 꿈속에서처럼 멀고 거의 현실 같지 않게 보였다. 그는 줄곧 웃음이 났고, 모자를 조금 더 대담하게 비스듬히 썼으며, 자기가 더없이 신나는 사내라도 된 것 같았다. 프랑크푸르트 직인이 다시 그 싸움터 같은 휘파람을 불었고, 한스는 그 박자에 맞춰 걸으려고 애썼다.

'모퉁이' 술집은 꽤 조용했다. 농부 몇이 햇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생맥주는 없고 병맥주만 있었는데, 곧바로 저마다 앞에 한 병씩 놓였다. 다른 작업장 직인이 통 큰 데를 보이려고 모두가 함께 먹을 커다란 사과 케이크를 하나 시켰다. 한스는 갑자기 엄청나게 배가 고파서 잇달아 몇 조각을 먹어 치웠다. 오래된 갈색 술청의 튼튼하고 넓은 벽 걸상에 앉아

있으니 어둑하고 편했다. 고풍스러운 찬장과 거대한 난로는 어스름 속에 묻혀 있었고, 나무 살로 된 큰 새장 속에서는 박새 두 마리가 퍼덕였는데, 먹이로 빨간 마가목 열매가 잔뜩 달린 가지 하나가 살 사이로 꽂혀 있었다.

주인이 잠깐 탁자로 와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 뒤로 이야기가 다시 무르익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한스는 독한 병맥주를 몇 모금 홀짝이며, 과연 한 병을 다 비울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프랑크푸르트 직인은 다시 라인 지방 포도밭 축제며 편력이며 싸구려 여인숙 생활에 관해 지독하게 허풍을 떨었다. 다들 즐겁게 귀를 기울였고, 한스도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문득 그는 자기 몸이 더는 제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방과 탁자와 병과 잔과 친구들이 걸핏하면 부드러운 갈색 구름처럼 한데 녹아들었다가, 그가 힘껏 정신을 가다듬어야만 다시 모양을 찾았다.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더 세차게 부풀어 오를 때면 그는 이따금 따라서 크게 웃거나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그 말은 곧 잊어버렸다. 잔을 부딪칠 때면 그도 함께 부딪쳤고, 한 시간이 지나자 자기 병이 빈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너 술 잘 마신다." 아우구스트가 말했다. "한 병 더?"

한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술 마시는 일을 그는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직인이 노래를 시작하고 모두 따라 부르자, 그도 목청껏 함께 불렀다.

그러는 사이 술청은 사람으로 가득 찼고, 주인 딸이 나와 여급의 시중을 거들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처녀로, 건강하고 다부진 얼굴에 차분한 갈색 눈을 하고 있었다.

주인 딸이 새 병을 한스 앞에 내려놓자, 곁에 앉은 직인이 곧바로 가장 멋을 부린 수작을 퍼부었지만 주인 딸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에게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곱상한 소년의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주인 딸은 한스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재빨리 한 번 쓸어 주고는 찬장 쪽으로 돌아갔다.

벌써 세 병째를 마시고 있던 직인은 주인 딸을 따라가 어떻게든 말을 붙여 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키 큰 처녀는 덤덤하게 그를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고, 이내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자 그는 탁자로 돌아와 빈 병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갑자기 신이 나서 외쳤다. "얘들아, 신나게 놀자. 잔 부딪쳐!"

그러고는 질펀한 여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한스에게는 이제 흐릿하게 뒤섞인 목소리들만 들렸고, 두 번째 병을 거의 다 비웠을 즈음에는 말하는 것도, 웃는 것조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그는 박새 새장으로 건너가 새들을 좀 놀려 주고 싶었다. 그러나 두 걸음을 떼자 어지러워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고, 조심조심 되돌아왔다.

그때부터 그의 들뜬 즐거움은 점점 사그라졌다. 자기가 취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술판 전체가 더는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득히 먼 곳에서처럼 갖가지 불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집에 가는 길, 아버지와 벌일 험한 꼴,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작업장. 머리도 차츰 아파 왔다.

다른 사람들도 실컷 즐길 만큼 즐겼다. 정신이 맑은 한순간에 아우구스트가 셈을 하겠다고 했고, 1탈러를 내고 거스름돈을 얼마 받지 못했다. 일행은 떠들고 웃으며 길로 나섰고, 환한 저녁 햇빛에 눈이 부셨다. 한스는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아우구스트에게 기댄 채 끌려갔다.

다른 작업장 철공은 감상에 젖었다. 그는 「내일이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하네」를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일행은 사실 집으로 가려 했지만, '백조' 술집 앞을 지날 때 직인이 기어이 한 번 더 들어가자고 우겼다. 문 앞에서 한스는 몸을 빼냈다.

"난 집에 가야 해."

"넌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하잖아." 직인이 웃었다.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다고. 나… 가야… 해."

"그럼 화주라도 한 잔 하고 가라, 꼬마야! 그게 다리에 힘을 주고 속을 가라앉혀 준다. 그래, 두고 봐라."

한스는 제 손에 작은 잔이 쥐어진 것을 느꼈다. 그는 많이 흘렸고, 나머지를 삼키자 그것이 목구멍에서 불처럼 타는 것이 느껴졌다. 지독한 구역질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는 혼자 비틀거리며 문 앞 계단을 내려갔고,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게 마을을 벗어났다. 집과 울타리와 뜰이 비스듬하게 뒤죽박죽 돌며 그의 곁을 지나갔다.

사과나무 아래 축축한 풀밭에 그는 드러누웠다. 역겨운 느낌과 괴로운 걱정과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잔뜩 몰려와 잠들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더럽혀지고 욕보았다고 느꼈다. 어떻게 집에 간단 말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지? 그리고 내일은 자기가 어떻게 될까? 그는 자기가 하도 부서지고 비참해서 이제 영원히 쉬고, 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만 같았다. 머리와 눈이 아팠고, 일어나 다시 걸어갈 만한 힘조차 몸 안에서 느껴지지 않았다.

갑자기 늦게 밀려온 덧없는 물결처럼 아까의 흥겨움이 한 가닥 되살아났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 사랑스러운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오, 사랑스러운 아우구스틴,
다 끝났네.

그런데 노래를 마치자마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파 왔고, 흐릿한 상상과 추억과 부끄러움과 자책이 흐린 물결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는 크게 신음하며 흐느끼면서 풀밭에 쓰러졌다.

한 시간 뒤, 벌써 날이 어두워 올 무렵, 그는 일어나 휘청휘청 힘겹게 산을 내려갔다.

기벤라트 씨는 아들이 저녁 식사 때 돌아오지 않자 실컷 욕을 퍼부었다. 아홉 시가 되어도 한스가 여전히 오지 않자 그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굵은 등나무 회초리를 꺼내 놓았다. 그 녀석, 이제 아비 매를 맞을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집에 오기만 해 봐라, 아주 경을 칠 테니!

열 시에 그는 현관문을 잠갔다. 아드님 나리께서 밤마실을 다니고 싶으시다면 어디서 자든 알아서 하라지.

그런데도 그는 잠들지 않고, 누군가 문고리를 슬며시 돌려 보고 쭈뼛쭈뼛 초인종 줄을 당기기를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노 속에서 기다렸다. 그는 그 광경을 그려 보았다. 이 떠돌이 녀석, 어디 혼 좀 나 봐라! 그 개구쟁이 놈은 틀림없이 곤드레가 되어 오겠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줄 테다, 그 망나니, 그 능구렁이, 그 못된 놈! 뼈마디를 다 추려 놓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잠이 그와 그의 분노를 이겼다.

그 시각, 그토록 벼름을 받던 한스는 벌써 차갑고 고요하게 천천히 어두운 강물에 실려 골짜기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구역질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은 그에게서 걷혀 나갔고, 어둡게 떠내려가는 그의 가녀린 몸을 차갑고 푸르스름한 가을밤이 내려다보았으며, 검은 물이 그의 손과 머리카락과 핏기 가신 입술을 가지고 놀았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동트기 전에 사냥을 나선 겁 많은 수달이 있었다면 모를까. 수달은 약삭빠르게 그를 살펴보고는 소리 없이 그 곁을 미끄러져

지나갔다. 그가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길을 잃고 비탈진 데서 미끄러졌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물을 마시려다 몸의 균형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름다운 물이 그를 꾀어 그 위로 몸을 숙이게 했고, 밤과 창백한 달빛이 평화와 깊은 안식을 가득 담고 그를 마주 바라보자, 피로와 두려움이 조용히 그를 떠밀어 죽음의 그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른다.

낮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어 집으로 메고 왔다. 질겁한 아버지는 회초리를 치우고 쌓아 둔 분노를 거두어야 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내색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이튿날 밤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이따금 문틈으로 고요해진 제 아이를 건너다보았다. 아이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고운 이마와 창백하고 영리한 얼굴로 여전히 무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남들과 다른 운명을 누릴 권리를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이마와 손에는 살갗이 조금 푸르죽죽하게 벗겨져 있었고, 예쁜 이목구비는 잠들어 있었으며, 두 눈 위에는 하얀 눈꺼풀이 덮여 있었고, 다 다물리지 않은 입은 흡족하고 거의 즐거워 보였다. 소년이 꽃필 무렵에 갑자기 꺾여 즐거운 길에서 끌려 나온 것처럼 보였고, 아버지도 피로와 외로운 슬픔 속에서 이 미소 짓는 착각에 굴복했다.

장례에는 함께 따라가는 사람과 구경꾼이 많이 몰려들었다. 한스 기벤라트는 다시 한 번 누구나 관심을 두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다시 한 번 교사들과 교장과 목사가 그의 운명에 마음을 썼다. 그들은 모두 프록코트에 엄숙한 실크해트 차림으로 나타나 장례 행렬을 따라갔고, 무덤가에 잠깐 서서 저희끼리 속삭였다. 라틴어 교사가 유난히 침울해 보이자 교장이 그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렇다네, 교수. 저 아이는 무언가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가장 뛰어난 아이들한테 거의 늘 운이 없다니, 딱한 일 아닌가?"

아버지와, 쉬지 않고 소리 내어 우는 늙은 안나 곁에 구두장이 플라이크가 무덤가에 남았다.

"참 쓰린 일이오, 기벤라트 씨." 플라이크가 위로하듯 말했다. "나도 그 녀석을 아꼈소."

"도무지 알 수가 없소." 기벤라트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재주 있는 아이였고, 일도 다 잘 풀렸지 않소. 학교며 시험이며. 그러다 갑자기 불행이 줄줄이 닥치다니!"

구두장이는 묘지 문을 빠져나가는 프록코트 차림들을 가리켰다.

"저기 신사 양반 몇이 가는구려." 그가 나직이 말했다. "저 사람들도 거들었소. 그 애를 저 지경까지 몰고 가는 데 말이오."

"뭐요?" 기벤라트 씨가 발끈해서 미심쩍고 놀란 눈으로 구두장이를 쳐다보았다. "아니, 이런, 그게 무슨 소리요?"

"진정하시오, 이웃 양반. 나는 그저 학교 훈장들을 말한 것이오."

"어째서? 어떻게 말이오?"

"아, 별것 아니오.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우리도 그 애한테 소홀했던 게 이것저것 있었을지 모르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작은 도시 위로 해맑게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골짜기에서는 강물이 반짝였으며, 전나무 산들은 먼 곳을 향해 부드럽게, 그리움에 젖은 듯 푸르렀다. 구두장이는 엷고도 슬프게 웃으며 그 남자의 팔을 잡았다. 남자는 이 시간의 고요와, 묘하게 아픈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빠져나와, 머뭇거리며 쭈뼛쭈뼛 늘 살던 삶의 낮은 땅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

1. 오일렌슈피겔은 장난꾸러기 떠돌이의 전형, 슈트라우빙거는 떠돌이 직인의 전형이다.

판권면

수레바퀴 아래서

원제 · Unterm Rad

지은이 ·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1877~1962)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저본 · 1906년 S. 피셔판(베를린). 그 판의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독일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49,075단어 · 일곱 장 · 895문단(원문과 같음) · 옮긴이 주 11개

저작권 · 대한민국에서는 저자가 1962년에 사망해 구법의 사후 50년 기준으로 2012년 말 보호기간이 끝났으며,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사후 70년 연장은 이미 만료된 저작물에 소급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06년에 출판된 저작물로서 퍼블릭도메인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저자 사후 70년을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2032년 말까지 원저작물이 아직 보호된다.**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을 기준으로 공개하며, 그 밖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대한민국·미국)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1